

# 교과서연구

제 43 호

2004. 12

차 례

- 발행인 / 한병천
- 기획편집위원장 / 허 강
- 위원 / 김만곤, 노희방, 곽상돈,  
윤광원, 이춘식, 조성준

## 권두언

지식 기반 사회와 교과서의 성격 /이돈희 .....4

## 특별 기획

### 바람직한 교과서 발행 제도의 발전 방안 - 각계

교과서 제도 개선,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김차진...10

개방적이고 공정한 교과서 발행 제도 확립 /이혜영 .....15

초·중등 학교 교과서의 검정제 확대 방안 /조난심.....19

직업 교육 분야 교과서는 전문 연구 기관에서 편찬·발간

/김선태 .....24

익숙한 것에서 더 나은 것으로 /김병옥 .....27

초등 학교 교과서는 국정제 유지해야 /유하상 .....31

검정제의 전면 확대와 발행사의 수익성 보장 /고영목 .....36

공급 수수료의 현실화 및 공급 시스템의 개선 /강환동 .....40

국정제 폐지와 미래 지향 발행제로 전환 /안병우 .....47

다양한 요구의 충족과 교과서 질 향상과의 함수 관계

/백경선 .....52

## 현장 교육

영국의 선생님과 대화 /함수곤 .....56

## 논 단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시각과 정책 방향 /한상진 .....62

교과서 게재 사진 촬영의 문제점과 개선점 /손종진 .....70

## 나의 제언

교과서 개발의 제 문제와 해결 방안 /정혜정 .....74

현행 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의 넘침과 모자람 /황충일 ...79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교과서연구』에 게재된 내용은 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 연재

오스트리아의 학교 제도와 교과서 제도(-교과서 제도II-)/발터 텐서 ...84

## 편수 행정의 발자취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국사 교과서 파동/윤종영 .....89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교과서의 탄생/정준섭 .....95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과학과 교과용 도서 편찬 개요/이규석 .....100

유치원 및 특수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제 문제/소정자 .....105

## 단상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난제와 해결의 길/현영호 .....109

다시 생각해 보는 교과용 도서 검정/김광민 .....114

## 탐방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15)-황태랑(대한교과서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119

## 연구 보고서 소개

교과용 도서 개발 비용에 관한 연구 .....124

일본의 교과용 도서 편찬 체제 및 개발 모형 연구 .....124

교과용 도서 저작권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 개선 연구 .....125

판정 보류제·정기 검정제 도입 방안 연구 .....125

## 자료

제 2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수상작 및 심사평 .....126

● 연구재단 소식 .....138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140

● 원고 모집 .....141

● 연구재단 후원 기금 출연 안내 .....142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143

\* 표지 글씨 : 신두영

\* 표지 디자인 : 대한교과서(주) 편집팀

**세계적** 안목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시기에 살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천년대라는 연대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난 200년 동안 서양의 선진 산업 국가들로부터 시작된 근대화 또는 산업화의 과정이 ‘새로운 굴절의 현상’을 경험하는 시기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천 년대에 경험할 미래적 현상을 추상적으로 예견하고, 그것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수준만의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 새로운 굴절의 현상이 구체적으로 관찰되고 경험되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시대의 사회를 흔히 ‘지식 기반 사회’라고 일컫고 있다.



## 지식 기반 사회와 교과서의 성격

■ 글 / 이돈희(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전 교육부 장관)

### ☒ 지식 기반 사회란? ☒

최근에 특히 경제 부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식 기반’이라는 말은 지식이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작용하는 새로운 기능적 특징을 지닌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지식 기반 사회란, 여러 가지의 단편적인 정보들이 이제는 그 자체가 자원으로 활용되고 상품적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는 의미의 수준에서만 아니라, 조직되고 다듬어진 지식을 생산하고, 사용하고, 교환하고, 확산하고, 재구성할 때 거기서 창출되는 생산적 힘과 사회적 가치에 우리의 삶이 크게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지식 기반 사회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1990년대의 후반에 이

지식 기반 사회란, 여러 가지의 단편적인 정보들이  
이제는 그 자체가 자원으로 활용되고 상품적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는  
의미의 수준에서만 아니라, 조직되고 다듬어진 지식을 생산하고, 사용하고,  
교환하고, 확산하고, 재구성할 때 거기서 창출되는 생산적 힘과 사회적  
가치에 우리의 삶이 크게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말한다.

르러 빈번히 사용되고, 다소 체계적인 이론서도 최근에 출간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사회학자인 다니엘 벨(Daniel Bell, 1973.)은 이미 1970년대에 산업 사회의 후기적 징후를 지식 기반 사회라고 예견하였고, 그것은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 1947.)가 근대 사회의 후기적 삶의 양상을 전망하여 ‘포스트모던(postmodern)’이라고 서술한 것과 특징상 유사한 관심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 ☒ 지식과 일과 교육 ☒

지식이 생산 활동에 적용되기 시작한 산업 혁명 이전, 즉 농경 사회적 체제에서 지식과 생산 활동은 서로 분리된 생활의 영역이었다. 이에 따라서 특히 학교 제도와 체계적인 형식 교육은 일과 무관한 병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식과 일의 완전한 분리는 교육과 일의 관계 또한 엄격히 분리시켜 놓았다.

이 때의 지식은 문제의 해결이나 생산적 원리를 개발하는 실용적 지식이라기보다는 주로 우주와 세계의 질서를 설명하는 관조적 지식이었다.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지식을 개인의 인격적 요소로서 소유한 상태를 의미하였다. 동양의 군자나 선비의 개념, 서양의 자유인이나 신사의 개념은 그 일차적 특징이 실천보다는 이론에, 신체적 활동보다는 정신적 사유를 향유하는 인간이라는 데 있었다.

산업 혁명의 진행과 함께 지식은 부분적으로 생산 활동과 연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통적 학교와 교육의 내용은 여전히 고도의 이론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고, 17세기부터 발달한 자연 과학적 지식이 부분적으로 생산 활동에 응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식은 실용성을 지닌 것이었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것이었으나, 단지 소수의 전문적 엘리트들만의 과업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식 기반 사회에 이르러 지식은 자원, 자본, 노동과 같이 생산의 핵심적 요소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하고, 일의 범위와 양상도 신체적

활동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고도의 이지적·이론적 원리를 광범하게 사용하는 특징을 지님에 따라, 교육의 세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이제는 일이나 생산 과정과는 완전히 분리된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의 교육과는 정반대로 일과 교육의 완전한 통합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제는 교육의 본질적 의미에 있어서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볼 수 있던 기초적 지식과 응용적 지식의 구분이 별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며, 지식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바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식의 생산은 대중에 의해서 다양하게 개발되고 확산된다. 또, 지식을 사용하는 생산적 활동에 종사하는 새로운 중산층의 증대는 지식을 학습하는 기회를 학교 교육에만 한정할 수 없게 되고, 언제나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지식을 확장하는 노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평생 학습 사회의 구축을 재촉하게 된다.

이제 지식은 교양에 속하고 일은 생산인에 속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은 무너지고, 지식도 생산 활동과 밀접히 연계되며 일도 교양인의 중요한 자질에 속하게 된다. 지식의 생산, 소유, 사용 모두 개인적 차원의 과업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이제 교육적으로 중요한 지식은 어떤 개인의 탁월한 인식 능력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역사적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식의 발달 과정에서 천재적인 학자나 고매한 성현이나 영웅적인 실천가의 공헌을 결코 과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진리와 허위를 판단하는 기준, 구조와 형식의 일관성을 식별하는 기준,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지니는 유의미성의 기준, 그것을 탐구하는 원리나 기법 등을 포함하는 방법적 원리 등 지식을 지식으로 성립시키는 기준과 조건은 그 지식과 더불어 함께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성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천재의 영감에 의해서나, 어떤 권위의 선언에 의해서나, 어떤 우연의 사건에 의해서 발견되거나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지식과 더불어 삶을 사는 우리는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비판하고, 거부하고, 재조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교육의 장에서 지식의 이러한 성격을 기본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지식을 우상화하거나 절대시하거나 미신화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며, 지식을 인간화하고 자기 주도의 권내에 두게 하는 데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게 할 것이다.

### ☒ 교과서의 성격과 기능 ☒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는 그것의 일차적 특징에 있어서 내용 중심적인 것이든  
경험 중심적인 것이든 간에 학생의 사고력을 자극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고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논리적 사고’에만 관련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고력이 작용하는 양태, 즉 사고의 양식으로는 다양한 것이 있다.

전개된다. 흔히 ‘교과서적 사고’라는 말이 있듯이 교과서는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지는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무엇이어야 하느냐에는 교과서를 두고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일 수가 있다. 지식과 기능 등과 같은 것, 즉 흔히 우리가 교육 내용이라고 일컫는 것이어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교육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경험을 조직해 놓은 것이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교과서는 그것의 일차적 특징에 있어서 내용 중심적인 것이든 경험 중심적인 것이든 간에 학생의 사고력을 자극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고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논리적 사고’에만 관련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고력이 작용하는 양태, 즉 사고의 양식으로는 다양한 것이 있다. 예컨대, ‘과학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수렴적 사고’, ‘전략적 사고’, ‘심미적 사고’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다양성이 있다.

대개 사고는 어떤 문제 혹은 문제 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해결된 상태를 의미하는 목표의 성격이 다르고 그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들(수단)의 종류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교과서가 사고의 생산성을 지니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일률적인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논리적 사고를 자극한다는 것은 교과서 속에 담기는 내용의 요소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전제와 결론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자극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서의 내용은 생각이나 사실의 진술들로 엮어져 있다. 어떤 대목의 내용이 앞서 서술된 내용을 논리적 전제로 삼는 경우에 “이 말은 앞서 설명한 무엇을 전제로 할 때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그 전제에 해당하는 생각은 어느 것이겠는가?” 등과 유사한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 사고를 자극한다는 것은 다루고자 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한 가설들을 상상하고 그것의 검증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가?”, “거기에는 어떤 법칙성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 없는 내용, 그냥 수용하기만 하게 되어 있는 내용으로  
조직되어 있는 교과서는 사실상 백과 사전의 일부와 같은 것일 뿐,  
생동감을 지닌 교과서일 수는 없다. 교과서란 단순히 내용의 체제가 아니라,  
학습을 위한 안내서이며 동시에 교육적 경험의 요강이기도 하다.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유도하는 현상의 생동감 있는 서술이 있어야 한다. 사실, 현상, 사건의 단순한 설명 또는 이론의 논리 정연한 설명만으로는 과학적 사고를 자극할 수 없다.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위에 의해서 수용하는 지식이나 주장이나 사상에 대하여 전면적인 또는 부분적인 부정을 시도해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은 참으로 믿을 만한 것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두 개의 이론은 참으로 서로 반대 되는 것인가?”, “두 개의 상반된 이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인가?”, “이 이론으로 이러한 특정한 구체적 사실도 설명해 낼 수 있는 것인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 왔는가?”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일이 반드시 학생과 교사가 서로 대면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도 가능한 반론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학생으로 하여금 체계적 사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소개된 내용과 유사한 것을 독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든가, 그것을 응용하여 새로운 구상을 해 보게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경험적 수준에 맞게 어떤 이론을 응용한 실천적 활동이나 기구의 조작이나 일상적 문제의 해결이나 이론의 개발을 소박한 수준에서 해 볼 수 있도록 지침이나 요강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이론에 따라 우리는 무엇을 해 볼 수 있겠는가?”, “우리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등의 발문 형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수렴적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사고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이나 이론의 활용을 위한 방안을 창출해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과에 따라서 문제는 다르겠지만, 예컨대 생활 환경의 정화를 위해서 또는 물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문제의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고 그 방안을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한다든가, 생활의 질서를 위해서 학급 집단이 간단한 입법을 행사해 본다든가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자유스럽게 생각을 말하게 하고 유사한 것들을 몇 가지의 범주로 분류하고, 분류된 것들의 공통된 특징을 부각시켜 그 범주의 성격에 따라서 명명토록 하는 것은 개념을 형성하는 연습적 경험이 될 수 있다.

전략적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거나 확인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 혹은 절차를 면밀히 계획하며,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경험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계획은 반드시 완벽할 필요가 없으며, 중도에 당면하는 예상치 않은 요소들을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전망을 지속적으로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체육에서의 게임, 과학에서의 답사, 사회과학에서의 토론 등이 전형적인 경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교과서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황을 암시하고 실천해 보는 지침을 준다.

심미적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다루는 어떤 내용을 구체적 경험에 관련시키고 그것은 총체적 특징을 지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심미적 사고라고 해서 반드시 순수한 예술적 경지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론에 따라서 실험을 하는 경우에 그 과정의 총체적 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실험에 임하는 정서와 호기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성취감을 경험하게 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심미적 사고의 경험이다.

이론에만 의존하기 않고 실제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관련된 잡다한 요소들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구조적 특징을 지각하도록 하는 것도 심미적 경험의 특징이다. 예컨대, 곤충, 식물, 돌 등의 채집된 것들을 어떤 체제에 의하여 진열하고 그 진열된 구조가 이론적인 것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교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사고 양식이 동원되는 빈도와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고 양식을 배분하는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교과 성격에 따라서 어떤 양식의 사고를 어떤 내용과 더불어 자극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를 미리 계획하고 다양한 사고 양식이 골고루 동원될 수 있도록 한다면, 교과서는 그만큼의 진부함과 메마름과 딱딱함을 면하고 학생의 왕성한 사고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 것이 없는 내용, 그냥 수용하기만 하게 되어 있는 내용으로 조직되어 있는 교과서는 사실상 백과사전의 일부와 같은 것일 뿐, 생동감을 지닌 교과서일 수는 없다. 교과서란 단순히 내용의 체제가 아니라, 학습을 위한 안내서이며 동시에 교육적 경험의 요강이기도 하다. **연**



# 교과서 제도 개선,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 글 / 김차진(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관)



**교**과서 제도와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화두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다원화·다양화되는 요구를 어떻게 교과서에 담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국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교과서 제도를 전환하자는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다. 이러한 화두는 지식 사회의 변화 속도와 엇비슷한 속도로 교과서를 개편해 나가면 해결이 쉽겠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변화하는 사회 모습을 완만하게나마 교과서에 담아 나가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 국정 교과서 제도의 장·단점

국내·외의 교과서 제도를 비교해 보면, 각 나라마다 독특한 역사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제 중에서 하나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정, 검정, 인정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중등 학교 보통 교과는 이미 국정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전환되었다. 다만, 초등학교 전 교과, 중·

고등학교 국어, 국사, 도덕 교과, 그리고 고등학교 전문 교과 등이 아직 국정 교과서로 남아 있는 상태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 국정 교과서 제도를 유지해 온 주된 이유는, 첫째 국가 수준에서 균형 있는 교육 수준 및 교육 내용을 확보할 수 있고, 둘째 교과서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우려 때문이다. 참고로, 국정 제도는 북한, 핀란드, 필리핀 등이 국정 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 교과서가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 종류의 교과서만 가지고는 다양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거나 학습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북돋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 적은 개발 예산에 맞추다 보니 우리 교과서가 세련된 디자인, 개성 있는 편집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텍스트보다는 각종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즐기고 이해하려는 청소년들의 기호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도

많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학습자의 기호도 충족시키고, 사회의 다양한 의견 및 시대 변화 양상을 아울러 담아 낼 수 있도록 국정 교과서를 검정 교과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 2. 검정 교과서 확대를 위한 준비

국정 교과서를 검정 교과서로 전환하는 데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검정 전환이 초등학교에서도 합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더욱 정교한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초등학교는 중등학교와 달리 교사 1인이 10여 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 과목을 일시에 검정으로 전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파장(波長)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 제도 변화를 합리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연구 결과에 터하여, 초등학교 교원 및 학부모, 그리고 출판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거나, 교육 NGO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교과서 제도 변화시에 학교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초등학교와 달리 중등학교는 교과목별 전공 교사가 지도하고 있으며, ‘교과교육연구회’ 등의 활동을 통해 관련 지식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초등보다는 문제가 덜할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그렇더라도 유연한 자세로 생산적인 결론에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국정 교과서를 검정 교과서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예산 문제와 교육 내용의 중립성 확보 문제는 남는다는 것이다. 검정 교과서는 상대적으로 교과서 가격이 비싸고, 의무 교육 기간인 중학교까지는 교과서 대금을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액의 국고 지원이 요청된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내부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전문가 협의회, 예산 당국과의 사전 협의회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교육 내용의 중립성 확보 문제도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다.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교과서 내용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거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논쟁에 휘말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 국어, 국사, 도덕 등의 과목을 검정 교과서로 전환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쉽게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정 교과서를 검정 교과서로 전환하는 데는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겠지만, 그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 신중하게 제도를 변화시켜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3. 교과서 전문 출판사를 육성해야

교과서 개발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혼자서 도맡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검정 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하는 검정 기준 및 집필상의 유의점을 참조하여 검정 교과서 출판을 원하는 출판사가 개발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검정 교과서 제도하에서 질 높은 교과

교과서 전문 출판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과서 정기 검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교과서 생산의 틀을 마련하자는 주장은,  
현행의 부정기(不定期) 검정 제도하에서는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다.

서 개발의 관건(關鍵)은 뭐니뭐니해도 교과서 전문 출판사를 육성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일이다. 교과서 전문 출판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과서 정기 검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기 검정제 도입을 통해 예측 가능하며, 합리적인 교과서 생산의 틀을 마련하자는 주장은, 출판사가 검정 교과서를 준비하는 일정 기간 동안만 편집 인력을 확보하였다가, 검정이 끝나면 인력을 내보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현행의 부정기(不定期) 검정 제도하에서는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다.

이웃 일본에서는 대체로 4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판사도 고급 편집 인력을 확보하여 교과서 개편시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교과서 개편이 끝나면 유틸 인력은 차기 교과서 편찬에 대비하여 연구에 종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검정 출원 업체는 교과서 전문 출판사로 성장하고 있으며, 교과서 편집 인력도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정기 검정 제도가 도입되면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굳이 국가가 요구하지 않아도 출판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나라에서도 다수의 교과서 출판 전문 업체가 성장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 다만, 정기 검정제 도입을 위해서는 선결 요건이 있다. 출판사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에 못지않게 교육인적자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는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검정 업무 수행 기관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먼저 합리적인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제도 개선을 통해 교과서 편찬, 생산, 공급, 평가, 환류 체제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교과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서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 4. 교과서의 신뢰도·타당도 확보가 중요

검정 교과서 발행 과정에 참여해 본 분들이라면 이구동성으로 집필 및 심사 과정이 너무 짧은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교과서 집필 기간을 좀더 늘려 주면 되겠거니’ 하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가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다.

외국의 경우와 같이 교과서 발행에 몇 년간의 노력을 투입한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나라 실정에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검정 교과서 심사 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생기는 잉여 시간을 집필 기간에 투입하는 방법을 하나의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출판사가 검정 교과서 제작 과정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조언을 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경제 문제는 경제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자문을 받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검정에 제1차 합격한 도서를 대상으로 수정·보완 과정을 출판사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 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거나, 교육 공동체를 함께 참여시키는 등 수정·보완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정·보완 과정에 해당 정부 부처나 경제계, 학계, 교육 관련 NGO 등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참여를 보장하게 되면 질 높은 교과서가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어 교과서는 쉽고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 어문 규정에 알맞은 표기법이 중요하므로 국립국어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본을 생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교과서 수정·보완 절차를 개방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사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안전한 교과서’에 머물지 않고 ‘질 좋은 교과서’를 생산하는 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게 된다.

## 5. 장기적 교과서 질 제고 방안 필요

지금까지 논의한 정기 검정 제도 도입과 맞물려 장기적으로는 교과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질 높고 효용성 높은 교과서 생산을 담보하여야 한다.

국정 교과서의 실험본 또는 현장 검토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학교에 공급하게 되는 검정 교과서는 비록 검정 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내용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편이다. 따라서, 교과서 질 제고를 위해서는 주기적, 체계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편수 인력이 부족하여 1과목 1편수관 체제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편수 인력이 행정 업무도 겸하고 있으므로 편수 업무에만 전적으로 매달려 있을 수도 없다. 검정 교과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교육인적자원부 편수 업무 담당자들이 곤욕을 치르곤 하는데, 편수관들은 교과서 내용에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이념적 측면에서도 보편 타당한 이론을 교과서에 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늘 느끼고 있다.

그에 비해, 일본의 문부과학성에는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와는 별도로 교과서 조사관만 50여 명을 두고 있는데, 교과서 내용을 평소에 꼼꼼하게 검토하여 수정 지시를 내리며, 수정 지시 내용이 담긴 공문을 언론 매체에 공개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 교과서가 생산되는 문화와 환경이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본 국민들의 교과서관(觀)과 우리 나라 국민들의 교과서관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 국민들은 교과서 조사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정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출판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와 국민들은 검정 교과서 내용에 대해 일정 부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 차이이다.

교과서 사후 평가 제도를 당장에 실시하기가 어렵다면, 그 대안의 하나로 검정 교과서에 대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즉, 검정 교과서를 펴낸 출판사가 해당 도서의 특징을 담은 상세한 안내 자료를 단위 학교에 보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는 이와 같이 제공되는 다양한 자료를 검토해 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사용할 도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한편, 학교에서는 출원된 검정 교과서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단위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도서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안목도 길러 나가야 한다. 다만,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한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여야만 교과서 채택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가 있다.

지금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과용 도서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검정 도서가 확대될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는 꼼꼼히 내용을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검정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출판사들은 수요자들에게 책의 품질 및 내용에 대해 평가받게 되므로 그 결과는 곧 교과서 제작에 반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방안은 교과서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이다. 사회 지도층 인사 및 학부모, 교사를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우리 나라 교과서에 나타난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교과서 제도 개선 및 수정, 보완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언론을 중심으로 하여 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생산적 관심도 절실히 필요하다. 교과서 제도에 대하여 확실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게 되면, 교

사와 학부모로 하여금 교과서 및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키워 줄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에 대한 비판과 검정 교과서에 대한 질타를 할 때는 논리적으로 논거를 세워서 누구나 문제점을 알기 쉽게 안내해 주는 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글이 많이 나와야 우리 국민들이 교과서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으며, 생산적인 담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지금까지 교과서 발행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과서 제도는 한 가지 문제만 건드려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과 정기 검정 제도,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과 우수한 교과서 편집 인력 확보, 검정 교과서 심사 일정과 집필 기간 간 연계 조정 문제, 교과서 내용의 관련 기관 검토와 중립성 확보 문제 등은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 장치와 같아서 연관성 있는 제도를 동시에 보완하여야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끝으로, 교과서 발행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사람들은 교과서가 학습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면서도 알찬 내용, 우리의 문화 유산을 후세에 전하는 그릇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실한 알맹이를 담아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교과서관(觀)을 재정비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아울러 필요하다. 좋은 교과서는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교육인적 자원부와 교과서 전문 연구 기관, 교과 교육 연구자, 일선 학교 교원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를 통해 여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탄탄한 이론을 마련하는 일은 또다른 장을 빌려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 개방적이고 공정한 교과서 발행 제도 확립

■ 글 / 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21 세기 지식 기반 사회는 인적 자원이 개인적,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사회로서 지식 창조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이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하여 학교 교육은 경직성과 획일화의 틀을 벗어 버리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조장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화되고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교육 제도 중 하나로 교과서 제도를 들 수 있다.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과서 연구 개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는 자율적 관리 능력을 교과서 발행 제도에도 확신시켜 민주 사회로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쟁과 창의로 교과서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교과서 발행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방안들은 고도의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 1. 교과서의 질 향상과 교재의 다양화

교과서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우선적 과제는 학생들이 현재 시중에 범람하는 수험용 참고서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학습 내용의 제시와 학습 방법의 안내를 충실히 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교과서의 편집 방법을 천편일률적으로 통일하지 말고 교과서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즉, 지금처럼 교과 내용을 압축하여 난해한 용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도록 제시하지 않고,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술하며, 풍부한 삽화와 사진, 도표를 신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학생들에게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해설해주는 교본 방식 이외에 문제를 제기하여 사고력을 자극하거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의 형태를 구안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체제, 판형, 분량, 가격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최소

필수 수준의 내용을 제시하고, 학업 능력 우수 학생과 부진 학생을 위해서는 심화·보충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인차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교재의 개발은 학생 각자의 흥미, 능력, 필요에 적합한 개별 학습을 가능하게 해 교육의 수월성을 촉진시키는 요체가 된다. 이러한 자료의 개발은 수학, 과학, 외국어 등 교과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종래의 인쇄 자료 이외에 시청각 자료 및 첨단 정보 통신 매체를 활용하는 자료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어·음악·외국어 교과에서 말하기, 듣기 지도를 위해 녹음 재생이 가능한 청각 자료를 개발 보급하며, 사회, 과학, 실업 교과에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컴퓨터 등 첨단 정보 통신 매체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관련 전문 연구 기관이나 업체에 적극 권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 보조 학습 프로그램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학교에 컴퓨터 및 첨단 정보 통신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기 위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교과서 연구 기능 활성화

국정 교과서는 연구 개발형이라 하여 이전보다 연구 기능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교과서 개발 과정 중 3개월 간의 기초 연구를 제외하고는 교과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검정 교과서는 각각의 저작자들에 의해 교과서가 집필되므로 별도의 연구 과정은 잡

혀 있지 않고 저작자들 나름대로 조사 연구하여 집필하게 된다. 그러나 집필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교과서에 대한 충실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번 만들어진 교과서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활자나 내용상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수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교과서 전문 연구 기관이나 출판사들이 교과서의 질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기초 연구, 내용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그 기능을 전담할 연구 기관도 없고 출판사 자체 내에서도 이미 만들어진 교과서를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는 학교 및 교과별 전문 편수 인력을 확보하여 교과서 관련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교과서 개발 기관 및 출판사의 연구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 3. 교과서 출판업계의 전문성 강화

현재 많은 수의 검정 교과서 출판사들은 재정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교과서 전문 편집진을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검정이 있을 때만 편집진을 구성하였다가 검정이 끝나면 해체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출판사들이 편집진을 상시 보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영 규모가 영세하여 몇 년에 한 번 있는 검정 출원을 위해 상설 기구를 둘 수 없다는 것이며, 전문 인력 부족도 중요한 이유이다.<sup>1)</sup>

교과서 출판업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교과서 출판사들이 현재보다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대신 정부는 교과서 출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교과서 연구 및 편집진의 전문성 향상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 편집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출판사의 검정 교과서 출원 요건을 높이고 명시하는 것이다. 예컨대, 출판사 전속 전문 편집 요원을 일정 수 확보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과 시설을 갖춘 출판사만이 교과서를 출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출판사의 노력만으로 교과서 출판업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교과서 출판사들이 현재보다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대신 정부는 교과서 출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교과서 연구 및 편집진의 전문성 향상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 편집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4. 개방적이고 공정한 교과서 발행 제도 확립

교과서 질 향상을 위한 이상의 방안들이 소기의 의도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직되고 닫힌 교과서 정책을 개방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개방적인 교과서 발행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구미 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자유 발행제의 채택은 우리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의 여건을 바탕으로 개방적인 교과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교과서 발행을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을 지양하여 지방 자치 단체나 교과서 발행 관계자들(교육과정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교과서 출판업계, 교과서 출판 관련 자율 단체, 교육 연구 기관 등)이 자율적, 전문적으로 담당해 나가도록 조치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발행에 관한 정책 결정의 권한을 자치 단체나 전문 연구 기관에 위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발행과 공급에 관한 사항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계속 결정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편찬 지침 결정과 같은 교과서 편찬의 전문성에 관한 것은 교육 연구 전문 기관이나 지역 교육과정 개발 센터(교육연구원이 그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및 교과서 출판업계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정부가 주도적으로 교과서 편찬 제도를 개방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의 국정 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하고, 현재의 검정 교과서에 관한 각종 규제적 조치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그 점진적 개방의 속도를 보아 가면



서 검정 도서를 인정 도서화하고, 나중에는 자유 발행 정책 도입까지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점진적 개선의 차원에서 교과서 발행을 특정 제도에 고정시키지 말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즉, 개방화의 방향에 맞추어 교과서 발행 제도, 정책을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넷째, 검정 교과서 출판업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즉, 검정 교과서는 발행사들이 교과서 판매 수익을 발행 부수와 관계 없이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다. 이러한 완전 균등 분배제는 발행사 간의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질 담보 및 그 개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sup>2)</sup>

앞으로 교과서 완전 균등 분배제를 발행 부수에 따른 비례 분배로 전환하여 출판업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교과서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과서 연구나 전문 인력 교육·훈련 등에 투자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5. 교과서 발행의 경제성 제고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은 현재와 같은 한정된 제작 비용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단시일 내에 교과서 발행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따라서, 교과서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교과서 발행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적어도 5~6년 기간 정도의 단기간

내에 교육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는 교과서의 교과서는 1회용 소모품으로 개발하지 말고 대여용으로 튼튼하게 개발해서 몇 년 간 반복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첫 발행 연도에는 다소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교과서가 개편되기까지는 중복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상 교과로는 국어, 수학, 과학, 예·체능 교과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년별 위계가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일부 교과에 있어서는 매 학년용 교과서를 개발하지 않고 2~3개 학년 공용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문, 예·체능 교과, 도덕 및 윤리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사회와 부도(지리·역사) 등도 중학교와 고등 학교용을 구분하지 않고 공용으로 개발하여 대여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모든 교과서의 교재를 전통적인 형태의 교과서로만 개발하지 말고 교과서의 특성에 따라 컴퓨터 보조 학습 프로그램, 모듈이나 실험·실기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교과서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고등 학교의 기계 제도, 공업 경영과 같은 특수 전문 과목의 경우 교과서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 효과를 높이는 측면에서도 권장할 만한 대안이다. 

1) 광병선·이혜영. 「교과서와 교과서 정책」. 한국교육개발원, 1986.

2) 허 강 외. 「교과서 발행사의 운영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3. 12.

# 초·중등 학교 교과서의 검정제 확대 방안

■ 글 /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본부장)



## 1. 우리 나라 교과서 제도의 근간으로서의 검정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과서, 양질의 교과서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요구는 국가 교육과정의 수정, 보완 혹은 개정의 요구와 함께 교육 정책 당국이 다루어야 할 현안 문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사실,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던 제 7차 교육과정기에도 교과서 검정제의 확대가 논의되었다. 당시에는 개혁적인 신교육과정과 IMF 체제로 인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라는 교육 이념과 현실 간의 갈등 속에서 중등 학교 단계에서의 검정제 확대와 초등 학교 단계에서의 검정제 축소라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곧 중등 학교에서는 사회 과목의 교과서까지 검정제가 도입되었고, 초등 학교에서는 당시 검정 교과서였던 영어 교과서가 국정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교과서 검정제의 확대 문제가 단지 교육 이념만이 아니라 교과서 발행과 공급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이라는 차원까지를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결정임을 잘 보여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우리 교육 상황과 경제 상황은 제 7차 교육과정 개정 고시 시기인 1997~1998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적인 이념면에서는 교과서 검정제의 확대가 당연시되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교육 재정의 증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이 증폭되면서 교과서 검정과 관련된 이념적 대립이 좀더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초·중등 학교 교과서 검정제 확대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관련된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잘 알다시피, 검정 교과서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를 말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어떤 교과서의 어떤 과목을 검정 교과서로 발행할 것인지를 결정함과 아울러, 국가 교육과정, 검정 기준 등을 마련하고, 검정 위원을 구성하여 검정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는 한

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검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교과서 검정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도입되었고,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첫째, 교과서 검정제는 국정제에 비해 교육의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창의성을 대전제로 하는 21세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것은 교육권의 하향 이동을 말한다.

시·도 교육청과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은 필연적으로 교사에게 가르치는 자유를 주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교과서 선택 문제가 걸려 있다. 반면에 정부가 개입하여 편찬한 교과서에는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검정제를 확대하여 원하는 전문가나 교사가 저작자로 참여토록 하고, 또 교과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만큼 자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둘째, 검정 제도는 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한다. 교과서는 교과의 사실 지식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자료가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와 자연 현상을 해석하고 인간 자신의 정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과 내의 접근 방법적 다원성과 가치 함축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검정 교과서 제도는 저작자가 자신의 논점에 따라 남과 다른 유형의 교과서를 제작하려 노력하게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교과서 제도는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시대 정신에 맞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정 교과서 개발 과정에도 많은 전문가나 교사가 참여하지만, 개발 책임자의 관점에 크게 의존하게 되어서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관점을 충분히 살려 내기 어렵다. 반면에 검정 교과서는 일정한

기준을 준거로 심사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개발하므로 다양성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지만, 저작자에 따른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검정제에서는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줄어든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가 민간 부문에 대하여 최소한의 간섭만 해야 하며, 그 방향은 심판자와 배려자 기능이다. 경기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과 관련된 쟁점이 있을 때 입법 취지에 따라 시비를 가리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에게 시장 경쟁 논리가 아닌 배려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이다.

교과서 시장에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제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교과서 개발을 직접 맡아 독점적 지위를 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시장 질서만 엄격하게 유지하고 상품 공급은 공급자에게 맡겨 민간의 창의적인 의도를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시장 경제의 제일 원리인 경쟁을 통한 상품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즉, 경제 논리를 교육에 도입하여 수요자가 직접 상품의 질적 판단을 하도록 하고, 그 성향에 맞추어 생산자가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려는 데에 검정 제도의 논거가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교과서 검정제는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추구, 그리고 정부 개입의 축소라는 자유 시민 사회의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점차 사회의 민주화에 걸맞는 교과서 제도의 개방화, 다양화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 교과

교과서 검정제는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추구, 그리고 정부 개입의 축소라는 자유 시민 사회의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점차 사회의 민주화에 걸맞는 교과서 제도의 개방화, 다양화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 교과서 제도의 근간은 이제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검정 교과서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서 제도의 근간은 이제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검정 교과서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 2. 현행 국정 교과서 실태와 검정제 확대에 대한 찬반 논란

검정제 확대 대상이 되는 교과서는 현재 국정으로 발행되는 초등 학교 전체 교과서와 중등 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의 교과서이다. 이들 교과서의 검정제 확대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엇갈리고 있다.<sup>1)</sup>

### 가. 초등 학교 교과서 검정제 도입 여부

우선 초등 학교 교과서를 살펴보면, 현재 초등 학교 교과서 거의 전체가 국정 도서('우리들은 1학년'과 사회과 4학년 '지역 교과서'는 인정 도서임.)로 발행되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초등 학교 교과서에 검정제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 학교 교과서도 검정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교과서 검정제 도입 취지, 곧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추구하고 정부 개입의 축소 등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까지 초등 학교 교과서가 국정으로 발행됨으로써 교육 대학 교수들의 교과서 집필 기회

가 원천 봉쇄되었고, 그로 인해 초등 학교 교과서의 연구, 개발이 뒤쳐진 점을 들면서 초등 학교 교과서도 검정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이도 있다. 그러나 초등 학교의 경우에는 검정제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국정제가 더 타당하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기간인 초등 학교 교과서는 다양한 검정 교과서보다는 단일한 국정 교과서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 모두가 공통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다양성 이전에 국가 수준의 일관된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동일시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과서가 다양하면, 교육과정의 내용도 다양해진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둘째, 교과서 검정제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 부재로 인해 검정제의 일시적인 확대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검정 교과서를 실제로 선택하고 가르치게 될 초등 교사들의 준비도를 우려하는 입장이다. 초등 교사들은 제 6차 교육과정기 중간에 잠깐 동안 실시되었던 영어 교과서를 제외하고

는 검정 교과서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검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되었을 때에 초등 교사들은 교과서 선택, 활용, 공급 등 여러 면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 학교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검정제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셋째, 검정제 도입으로 교과서 종수가 많아지면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주로 초등 학교 교사들에게서 제기되는 의견인데, 현재 초등 학교는 국민 공통 기본 10개 교과를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각 교과별로 여러 종의 교과서가 발행된다면, 그것들을 다루어야 하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물론, 다양한 교과서의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넷째, 검정제로 전환하면 교과서 발행 및 공급 비용이 증가하여 정부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초등 학교 교과서는 의무 교육 관행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검정제를 도입한다면, 여러 종의 검정 교과서 발행 및 공급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를 지불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섯째, 초등 학교 학생들의 잦은 전학에 따른 교과서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상당수의 학생들이 전학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학을 가는 학교가 다른 교과서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전학 갈 때마다 해당 학교의 교과서를 구매 주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검토해 볼 때에, 현 단계에서 초등 학교에서는 단계적, 순차적으로 교과

서 검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특히, 검정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초등 학교 교사들에게 적응 기간을 갖도록 일부 교과 또는 학년의 교과서를 먼저 검정화하고, 그 결과를 보아 가면서 점차 검정제를 확대해 나가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초등 학교에서 검정제 도입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교과는 예·체능 교과, 사회과, 수학, 과학, 실과 교과 등이다. 반면에 초등 학교에서 검정제 도입에 대한 찬성률이 낮고,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교과라는 응답이 높은 교과는 국어, 도덕 및 저학년 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교과서로 나타났다.

#### 나. 중등 학교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

현재 중등 학교에서 국정 도서로 남아 있는 교과는 국어, 도덕, 국사의 세 교과의 교과서이다. 의견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교과에 대한 검정제 도입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의 민주화, 개방화 추세에 비추어 이러한 교과서들을 더 이상 국정 교과서로 발행하는 것은 지지되기 어렵다는 입장이 약간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이들 교과의 교과서를 검정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첫째, 국어 교과서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일관된 어문 정책의 필요성, 국어 교과서 작품 선정에 있어서의 편향성 우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출제의 어려움 등을 들어서 검정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둘째, 현재 도덕 교과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시기인 7~10학년은 물론, 11~12학년의 선택 과목 교과서들도 모두 국정으로

교과서의 제도를 변화시키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을 배우게 될 학습자, 가르치는 교사, 교과서를 연구 개발하는 전문가,  
 그리고 편찬, 발행, 공급하는 출판사 관계자 모두의 지혜를 모아 가능하면  
 전향적이면서도 문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도덕과 교과서에 대한 참여 인력의 한계를 낳아서 국정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집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도덕과의 고교 선택 과목들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검정제를 도입하고, 더 나아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도 검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도덕과 교과서 검정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의 이념적 갈등 증폭의 우려, 6·25 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한 해석의 차이, 편향된 이념의 반영 등이 우려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민족 정체성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사 교과서가 검정화되면, 자칫 일부 개인 혹은 집단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상고사 문제, 근·현대사 문제 등 아직 국사학계 내에서도 이설이 분분한 내용들을 중·고등 학생들의 교과서에 반영하는 어려움 등이 국사 교과서 검정제 도입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로 제기되었다.

다시 말하여, 중등 학교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의 검정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좀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앞의 논의에서 보듯이 각 교과별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등 학교 세 교과와 교과서에 검정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언급된 문제점들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대응책 모색이 요구된다.

### 3. 교과서 검정제 확대를 위한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 수렴의 필요성

이상으로 현재 국정 도서로 남아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와 중등의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제 확대 방안과 관련된 논란을 살펴보았다. 전국의 학교에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제도를 변화시키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을 배우게 될 학습자, 가르치는 교사, 교과서를 연구 개발하는 전문가, 그리고 편찬, 발행, 공급하는 출판사 관계자 모두의 지혜를 모아 가능하면 전향적이면서도 문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시대가 요구하는 발전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으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sup>23)</sup>

1) 이 절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난심 외(2004), 「초·중·고등학교 국정 도서의 검·인정화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未刊), 참조.

# 직업 교육 분야 교과서는 전문 연구 기관에서 편찬·발간

■ 글 / 김선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1. 직업 교육 분야 교과서 개발 현황 및 특징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제 7 차 교육과정에 의한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 등 실업계 고교 학교 현장에 투입할 국정 도서 83 책(교사용 보완 교재 CD 자료 2 매 포함)을 편찬·개발함으로써 직업 교육의 내실화 및 발전에 기여한 기관으로 자부하고 있다. 2002년부터 현장에 공급되기 시작한 이들 교과서는 기존의 제 6 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에 비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로우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삽화, 만화, 사진, 도면 등의 수량을 30 % 이상 늘림으로써 학습 효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오류 없는 교과서 편찬을 위해, 현장 검토, 내용 검토, 평가 검토, 최종 검토 등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교과서에 대한 학생 및 교사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종전 실업계 고등 학교 전문 교과서의 진부한 편집 체제를 완전히 변모, 일신시키는 새로운 편집 디자인 체제를 개발, 적용하기

위해 「실업계 고등 학교 전문 교과서 편집 디자인 체제 적용을 위한 기초 연구」와 매뉴얼 및 CD 개발,

그리고 적용 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감수 작업 등을 통해 교과서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이 밖에도 특이할 만한 변화는 교과 내용 전개를 실업계 고등 학교 특성에 맞게 모듈식 교재 체제를 도입한 것이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 개발을 위한 우수 학교, 산업체, 대학(학계) 인력 풀을 구축하였으며, 집필 내용의 현장성, 학문성 등을 강화하였고, 직업 훈련 교재를 실업계 고등 학교 교과서와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부 및 산업인력공단 관계자와 협력 체제를 강화하였다.

## 2. 교과서의 품질 관리 및 편찬의 발전 방향

이 글에서는 향후 직업 교육(실업계 고등 학교) 분야 교과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발행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재가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하며,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재 체제의 개선, 편집 디자인 시스템 적용의 개선, 교육과정 개편 및 교재 편찬·개발 정책의 변화 등이 다음과 같이 요구된다.

첫째, 근본적으로 좋은 교재가 만들어지려면 가장 먼저 학습 내용을 정교하게 체계화시켜야 한다. 훌륭한 교재 체제가 개발되고, 편집 디자인 시스템이 우수해도 그것에 담을 학습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않으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재 개발시에는 직무 분석 등을 통해 개발 교재에 대한 체계적 내용 분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교재 체제는 담을 내용의 성격,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유기적으로 그 틀이 변용되고, 응용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재 개발시에는 교재의 특성에 알맞은 체제 개발을 먼저 한 후에 교재 집필 및 편찬을 하면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재 개발시에는 교육 내용 전문가와 체제 전문가, 그리고 출판·인쇄를 담당하게 될 전문가들이 교재 개발 과정에서 함께 참여하여 협력한다면 보다 우수한 교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재의 내용 제시 체제는 교재의 외적 체제와 긴밀한 연계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가독성 및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교재의 특성을 고려한 색도, 서체, 글자 크기, 어간, 행간, 행장, 행수, 사진, 삽화 등과 적절한 분량, 제책 형태에 대한 외적 체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재 체제 구현을 위한 편집 디자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타이포그래피(정보의 구성과 제시), 사진, 그림 등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개념을 교재 개발자들도 적극적으로 인식·수용하여 교재 개발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재 개발을 위한 표준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교재를 집필하고 편찬하는 일련의 과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많은 노력과 정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최종 인쇄물이 나오기까지 행정적 절차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원고 작성에서 인쇄물 산출까지 수십 차례의 세부 단위 공정이 최소 작업 단위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실습용 교재의 경우에는 300여 쪽 내외에 이르기 때문에 교재 개발 기획 단계에서부터 소재 발굴 및 원고 작성, 학습 내용의 성격에 따른 교재 체제의 개발, 교재 체제를 적용하기 위한 편집 디자인 시스템 구안 및 적용, 원고(문자 원고, 삽화 원고, 사진 원고, 디지털 원고 등) 교정, 교정 인쇄, 제책 등의 각 단계별, 공정별 절차가 매우 복잡다단하게 전개된다. 보다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재 개발을 위해서는 이들 공정별로 교재 개발 계획을 작성할 때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된 교재 개발 시스템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교재 개발 참여자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기초 학습 능력이 낮은 학생들을 위해 직업 교육 교재는 흥미 유발, 가독성 제고 등을 위해 가급적 컬러(4도) 인쇄가 가능하도록 교재 개발 관련 예산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실업계 고등 학교 교과서는 교육 내용의 질 관리 및 적정가의 보급 등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편찬, 보급해야 한다. 실업계 고등 학교 교과서의 경우에 심의 및 편찬  
관련 예산 지원은 국가가 담당하게 하고, 편찬, 개발 및 공급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또는 국책 연구기관이 대행하도록 한다.

### 3. 직업 교육 분야 교과서 발행 정책의 개선 방향

다음에는 직업 교육 분야의 특성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모듈식 교재 개발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듈식 교재 개발은 교육과정의 구조와 긴밀한 연계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기 교육과정 개정시에는 능력 중심 교육과정 및 구성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이론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듈식 교재는 수준별 학습, 개별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교재 개발을 시작하기보다는 각 모듈별로 수시로 교재 개발이 가능한 체제 확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단위 학교 수준에서 학생들의 수준 및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는 모듈식 교재 개발이 가능하도록 국정 도서 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모듈식 교재는 제본 형태의 다양화(파일철로 해서 언제든지 삽입보완이 가능한 제책 형태)로 부분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학습 진도와 관련된 모듈의 별도 분책 및 워크시트 등을 분리, 합철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가 용이하다.

셋째, 실업계 고등 학교의 교과서가 산업체

현장 및 학생들의 학습 특성 및 수준에 알맞게 편찬, 개발되고 공급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 기관에서 실업계 교과서의 전반적인 편찬 및 발행, 공급 등의 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실업계 고등 학교 교과서는 교육 내용의 질 관리 및 적정가의 보급 등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편찬, 보급해야 한다. 최근에는 수요가 많은 교과서가 점차 검·인정 교과서(예를 들면, 공업계의 공업 입문, 상업계의 상업 경제, 기타 과목인 디자인 일반 등)로 개발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과서가 아직도 국정 교과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 학교 교과서의 경우에 심의 및 편찬 관련 예산 지원은 국가가 담당하게 하고, 편찬, 개발 및 공급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또는 국책 연구 기관이 대행하도록 한다.

다섯째, 실업계 고등 학교 학생들의 가정 환경을 고려하고, 직업 교육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교과서의 무상 공급 및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상·중·하 수준별 교재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다양한 워크시트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ICT 기반 교수·학습 자료 등의 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 익숙한 것에서 더 나은 것으로

## - 국정제의 지향과 검정제의 지향 -

■ 글 / 김병옥 (새교육신문 편집국장)



**국** 정제와 검정제, 인정제를 함께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과서 발행 제도는 이에 적응하기 바빴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익숙해진 이 제도에 안주하고 있다. 또,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나은 것으로 눈길을 돌려야 향상될 수 있다. 흔히, 자유 발행제를 새로운 것으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이에 전자도서를 거치지 않고는 시대 변화에 걸맞지 않게 되는 한계가 기다린다.

더 나은 것이란, 기준을 배제하자는 뜻이 아니므로 기왕에 적용한 국정제는 지향하면서 검정제를 지향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어야 공평이 유지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더 다듬고 갈고 닦은 다음에 자유 발행제로 건너가면 훨씬 새로워지기 쉽다. 문제는 기왕의 익숙한 것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것으로 달라질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난 10월 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인적자원부 국정 감사에서 들춰낸 고교 근·현대사의 일부 검정 교과서에 대한 편향성 시비는 현행 검정 교과서 제도의 지향점을 찾는 데 시사한 바 크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보다 이에 관련된 인사들의 주장에서 지향점을 찾을 수 있었다.

더욱이 국정 감사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인 시시비비에 이어 역사학 관련 3 학회에서 지난 10월 14일, 긴급히 학술 회의를 열어 제 목소리를 낸 것은 고무적이다. 이 날 학술 회의에 참여한 학회는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교육연구회 등 학계의 큰 기둥이다.

특히, 이 날 학술 회의의 주된 관심사는 검정제도의 한계를 풀자는 데 집약되었고, 또한 정부의 입맛에 맞추는 교과서 양산도 청산할 때가 온 것을 예고했다. 상명대학교 사학과 주진오 교수의 경우에 검정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경험을 되짚어 지침에 충실한 교과서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즉, 교육인적자원부 준거에 충실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검정 등을 거치고 나면, 집필진 개인의 주관적 견해가 들어갈 자리는 좁아지게 마련이다. 때문에 현행 검정 제도는 더 나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보다 편향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할 만큼 집필자의 재량

이 위축당하는 실정이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교과서 채택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지름길이다.

경희대학교 사학과 허동현 교수의 경우는 검정 교과서 검정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살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짚어 냈다. 즉, 허 교수는 9종의 교과서를 9일 만에 검정했는데, 너무나 업무가 벅찼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니 검정 위원의 다른 판단이 개입될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상은 검정 교과서 가운데 특정 교과서의 집필과 검정에 참여한 두 전문가의 체험을 통한 문제 제기와 시정 방향을 제시한 대안으로 상기해 본 것이다.

다음은 검정 교과서의 공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다.

한나라당의 이주호, 유승민 의원은 지난 9월 29일 기자 회견을 열어 중학교와 고등학교용 검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들이 조합 형태로 카르텔을 구성해 값을 균일화하는 한편, 과목별로 이익을 공동 분배하는 등 옳지 못한 담합 행위에 빠져 있다고 폭로성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두 의원은 이를 입증할 근거로 지난 2001년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44개 출판사 대표가 교과서 채택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생산, 공급하면서 이익금을 동일 과목 안에서 책별로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공개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출판사들이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해서 교과서의 질을 높일 만한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교과서의 질이 낮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참고서 시장이 1조 원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국검정교과서협회는 바로 다음 날, 설명 자료를 통해 교과서 가격을 균일화하고 과목별 총 이익금을 균등 배분한 것은, 교과서 채택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과다 경비 지출 및 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출판사 스스로의 자구책이라고 해명했다. 또, 카르텔은 이윤의 증대를 목적으로 자유 경쟁을 피하고 연합하는 형태이나 동 행위는 이윤의 증대보다는 과당 경쟁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교과서는 일반 공산품이 아닌 국민 교육을 위한 일종의 공공재로서 공공재 수준과 가격의 균형은 정부의 제도 사항이며, 특히 검정 교과서는 보다 나은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채택하게 한다는 근본적인 원칙하에 매출액이 낮은 군소 출판사도 이의 균등 배분을 통해 경영을 개선, 지속적으로 검정 교과서 발행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다양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또 대형 출판사의 독과점 기도를 사전에 예방하고 검정 교과서의 근본 특성인 다양, 창의, 전문성 등의 유지 및 과목별 전문 발행사 육성에 목적을 둔 것으로 밝혔다. 또, 주문 공급 절차의 간편(단일)으로 최종 소비자인 학교, 학생, 학부모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자부했다.

한국검정교과서협회측은 또 부실한 교과서(공교육)의 피해와 참고서 구입(사교육비 부담) 등 이중고 발생 지적에 대해 검정 교과서는 이미 검정에 합격된 도서로서 이익금 균등 배분을 교과서의 질과 사교육비와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이익금 균등 배분제 폐지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검정 교과서 출판사의

**제 7 차 교육과정에서는**  
**새 천년의 새로운 세기를 살아갈 미래의 교육은**  
**다품종 소량 생산식 교육 체제로 옮겨 왔다.**  
**그래서 질을 중시하는 교육, 개성 있고 창의적인 인간을 다양한 영역별로**  
**소량 육성하는 교육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교과서 채택 과열 경쟁에 따른 학교 현장의 채택 부조리 발생을 우려했다.

발행된 교과서의 채택 부수 차이로 인한 출판사별 교과서 가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발행 부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대형 출판사의 독과점 형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서를 공급하여 학교의 선택 폭을 넓혀 준다는 검정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비인기 비수익성 교과목의 경우에 검정 출원 기피 현상으로 국정제로의 환원 구실을 제공하고, 이로 인한 국고 손실이 초래될 것을 경계했다.

다음은 학교에서 직접 검정 교과서를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의정부여자고등학교 김태호(생물) 교사의 경우, 6 개 항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 교과서보다는 교사용 지도서가 부실하여 교사들의 손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현장 교사의 경험 내용이 없다.
  - ②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 ③ 시중에 나온 참고서와 비교할 때 수준과 질이 떨어지는 사진, 삽화, 보충 설명이다.

- ④ 학습자의 눈 높이에 맞춘 설명 부족과 난해하고 모호한 설명의 표현이다.
  - ⑤ 어려운 학술 용어를 풀어서 쓰지 않아 교사 및 학생들의 이해력을 감소시킨다.
  - ⑥ 인터넷, 시디롬, 비디오 테이프 등 멀티미디어 자료가 부족하다.
2. 각 교과별로 현재의 세계적인 연구 성과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이 부족하여 시대 감각이 뒤떨어지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다.
  3. 주제별로 분책되어 있지 않아 사용하기 불편하므로, 주제와 단원에 따라 교과서를 분절할 수 있는 출판 기술이 필요하다.
  4. 학습 내용이 많아 학습자들의 토론, 조사, 연구 시간이 부족하게 되므로 반복되는 학습 내용을 줄이고 체험 활동을 통해 교과서 내용이 토론, 조사, 연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다양하고 독특한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 ① 멀티미디어 : 동영상, 애니메이션, 컴퓨터 음악 작곡 등을 1년간 배울 수 있는 교과서
    - ② 사진 촬영 : 디지털 카메라 사용 방법, 사진 촬영 기법, 작품 사진 등 1년간 배우는 교과서
    - ③ 생물 분류 : 동물, 식물, 곤충, 곰팡이 종류 등을 1년간 배울 수 있는 교과서
    - ④ 요리 : 한식, 중식, 일식 등의 요리를 1년간 배울 수 있는 교과서
  6. 통합 학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를 기다

리고 있다.

현재 한 학년에 하나의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것보다는 여러 학년에 걸쳐 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교과서가 편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고등 학교 현장 교사들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교과서 정책의 혁신과 실천 의지가 관건이다. 문제가 이에 도달하면 자연 교육인적자원부를 향해 화살을 날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 정책의 조타실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순서이다.

한 마디로 교과서 정책의 현주소는 편수 행정의 푸대접이다. 편수직에 대한 관심과 예우가 부실하고 그래도 되는 것인 양 굳어져 있다. 다만,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안에 반영된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 지원과 교과용도서의 개발·보급비가 금년보다 조금 나아질 것에 위로받고 있다.

교육과정은 이미 수시 개정 체제를 도입하는 단계로 진일보했다. 이에 따른 연구·개발, 정규 교과와 연계된 대안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이 시급하다. 이것이야말로 교사의 수업 기획권과 맞물린다. 수시 개정 체제는 교과서 자유 발행 제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우리 나라 교육 과정의 변천은 차수별로 특징을 갖고 있다.


1954년 제 1차 교육과정에서 1987년 제 5차 교육과정에 이르는 기간은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체제이므로 교과서 중심 학교 교육으로 일관했다.

이를 위해 제 1차는 교과 중심, 제 2차는 생활 중심(1963년), 제 3차는 학문 중심(1973년), 제 4차는 교육 사조의 균형·조화(1981

년), 제 5차는 교과 통합(1987년)이었다. 그 이후 제 6~7차는 교육부와 교육청·학교의 역할 분담 체제로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으로 발전했다. 때문에 제 6차는 교육과정 편성의 역할 분담(1992년), 현행 제 7차는 역할 분담, 균형, 조화(1997년)이다.

제 1차부터 제 6차까지의 교육과정 개정 주기는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시 개정 체제를 시행할 경우에 개정 주기는 의미가 달라진다. 1995년 5월 31일 교육 개혁안에서 예고되고, 1997년 12월 30일 고시된 현행(제 7차) 교육과정의 초·중등 교육 혁신 배경을 되돌아보게 된다. 즉, 기존의 교육은 소품종 대량 생산식 교육 체제였다. 그러므로 양을 중시하는 교육이었고, 단순 기능인, 단순 지식인을 대량 육성하는 교육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를 탈피하고 제 7차 교육과정으로 건너와 새 천년의 새로운 세기를 살아갈 미래의 교육은 다품종 소량 생산식 교육 체제로 옮겨 왔다. 그래서 질을 중시하는 교육, 개성 있고 창의적인 인간을 다양한 영역별로 소량 육성하는 교육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울러 교과서를 접한 교사와 학생 간의 변화는 추구하는 상이 다르게 나타날 단계이다.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교사와 교과서처럼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 그렇다. 이를 두고 교육인적자원부 박삼서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교과서 활용의 관점은 교과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로써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교과서는 수업의 경전이 아니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체화하고 상세화한 전국적, 일반적, 공통적 자료라는 뜻이다. 

# 초등 학교 교과서는 국정제 유지해야

■ 글 / 유하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상무이사)



## 1. 교과용 도서의 발행 제도 변화

우리 나라의 교과서 발행 제도는 국정과 검정, 인정제를 같이 병행하고 있고, 또 제 7차 교육과정기에 와서는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 도서’로 78책을 지정해 사실상의 자유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 교과서 발행의 모든 제도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국정 도서로 지정되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도서가 721책, 각 출판사에서 제작해 검정을 거친 검정 도서가 1,601책, 각 시·도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발행된 인정 도서가 1,275책(2004. 2. 1. 현재)으로 아직 우리 나라는 국정 도서의 비중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출판사의 이윤이 보장되기 어려운 특수 학교나 실업 학교의 전문 도서만이 국정 도서로 지정되어 문부성에서 발행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에는 아예 국정제라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 발행제를 널리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 정치적, 사회적 특이성으로 인해 교과서의 전면 자율화(자유

발행제) 내지 검인정화는 그 토대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대치가 지속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극심한 이념적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하다. 경제도 좋지 않다. 이렇다면 국정제의 장점(국가 정체성 유지, 경제성-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일정 수준의 품질 담보 등)이 더 부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미 매스컴에서 발표한 대로, 앞으로 교과서의 국정제를 없애고 초등 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의 교과서를 검인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숙고하면서 준비하는 모양새다. 이것은 오랫동안 교과서 출판계가 당국에 강력히 요구해 왔던 사안이기도 했다.

하지만 요즈음의 사회적 분위기로는 그것이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자칫하면 더 큰 사회적 혼란과 예산 낭비, 국가 정체성 등의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어, 교과서 발행 제도나 그 방법을 연구하는 기관이나 정책 당국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 거기에서 지난 8·11 조치(국정 도서 발행권 재지정) 이후

교과서 발행 제도에 대한 정책 결정은 미래의 일이고,  
미래의 일은 오늘 우리가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더욱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실,  
그리고 여론은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최우선 순위의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로는 출판업계의 동향에도 미묘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2. 국정 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

언론 보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교과서 발행 제도에 대한 정책 결정은 미래의 일이고, 미래의 일은 오늘 우리가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더욱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실, 그리고 여론은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최우선 순위의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여기서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의 의미를 새삼 되뇌이며, 교과서와 교과서 발행 제도의 변화가 교육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또 교과서 출판에 관계하는 한 사람의 교육인으로서 감히 기대해 마지않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던 회사로는 朝鮮印刷株式會社와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가 대표적이었다(이종국, 대한 교과서사, p. 98. ~이하 계속 인용). 이들 회사가 발행하던 교과서는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교과서였다. 조선인쇄주식회사는 1904년에 설립된 日韓圖書印刷株式會社의 후신이었고,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의 경우는 朝鮮總督官房印刷局의 후신이었다.

특히,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는 시설이나 종업원 수에서 당시 가장 방대한 규모였으며, 교과서 발간을 원활히 수행할 목적으로 법인체를 조직, 1923년에 새로 발족되었다. 이 회사는 조선총독부 발행 교과서뿐만 아니라 각종 유가 증권, 관보 등도 발행하여 전국에 공급했다.

그 밖에도 近擇印刷所, 大海堂印刷所, 朝鮮單式印刷所 등이 조선총독부 편찬 교과용 도서들을 인쇄했거나 발행에 참여하였다.

8·15 광복은 자유에 대한 갈증의 폭발을 가져와 출판 사업이 그 문화적 욕구를 채워나갔는데, 이에 호응하여 여러 출판사들이 속속 창립되었다. 그 중에서도 乙酉文化社, 同志社 등은 발족 당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과서 생산 등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쌓았다.

당시 미 군정청에서 시달한 교육 방침 중에서 교과목 등 교육 내용에 관련된 것은 ‘교수 용어를 한국어로 할 것과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교과목은 일체 교수함을 금하는’ 포괄적인 지시였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는 각 학교로 하여금 적당히 처리하도록 하되, 산수나 이과(理科)와 같은 교과목 이외에는 일본 교과서의 사용을 금하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교사만에 국한할 것을 강조하였다(문교부, 국민 학교 교육과정 해설, 1988, p. 13).

제 1 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 35 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이에 따른 교과서는 1955년부터 국정, 검정, 인정으로 나누어 편찬, 발행되었는데,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정규 교과서로 하고, 인정 교과서를 보조 교과서로 규정한 교육법에 따라 시행되었다. 인정 교과서에 대해서는 1950년 12월 21일 대통령령으로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이 수립되었지만, 본격적인 인정 도서의 편찬과 평가 업무는 1955년부터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국정 도서는 초등 학교 교과서와 중학교 및 고등 학교 교과서 중에서 국어, 국민 윤리, 국가 이념 반영 과목, 실업에 관한 교과목 중에서 문교부 장관이 정하는 교과서였다. 검인정의 신청 자격은 저작자 또는 출판사였으며, 검정 합격 중수는 제한 없이 원고 심사 기준을 충족한 도서이면 어떤 것이든 합격할 수 있었다.

### 3. 실업계 교과서의 국정화

광복 후 여러 출판사에서 각종의 교과서들이 출판되었지만, 주로 인문 교과의 교과서들이었고, 실업 전문 교과의 교과서는 ‘도양 비료’(정음사), ‘중등 작물학’(동아문화사), ‘중등 가사 교본’(문화당) 등이 겨우 출판되었을 뿐이었다. 실업계 교과서는 소요 부수가 많지 않아서 출판사에서 이윤을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실업 교육은 절실한 현실적 문제였으므로 당국에서는 우선 출판계에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당시의 어려운 교과서 수급 사정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계 인사, 그리고 출판계 인사들이 동일한 명분을 공감한 데서 창립을 보게 된 것이 大韓敎科書株式會社の

설립이었다.

대한교과서주식회사는 실업계 전문 교과서의 생산, 공급을 위한 대안으로서 출범했지만, 실업계 전문 교과서만으로는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즉, 다수부짜리 인문계 교과서의 발행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이것이 1952년 12월 중·고등 국어의 번각 발행권을 대한교과서(주)가 수입하게 된 배경이다.

오늘날 제 7 차 교육과정기에 이르러서는 초등 학교 교과용 도서 전부와 중등 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 등의 과목에 대한 교과용 도서가 국정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목뿐만 아니라, 도서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서 검정에 의한 공급이 어려운 실업계와 특수 목적계 고등 학교의 전문 과목 교과용 도서와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 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정책적으로 국정 도서로 개발하고 있다.

국정 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편찬, 발행하는 교과용 도서이지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연구 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국정 도서의 전량을 위탁하여 편찬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교과서 편수 자료 I, p. 351.).

국정 교과서는 대한교과서(주)와 정부 출연 기관인 국정교과서(주)가 그 대부분을 나누어 발행해 오다,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1999년 5월 국정교과서(주)가 대한교과서(주)로 인수·합병됨으로써 대한교과서(주)가 전량 발행, 공급하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2002년 고등 학교 국어를 포함한 다수의 국정 교과서가 대한교과서(주)에서 (주)두산, (주)교학사 등 6 개 출판사로



발행권이 이관되었고, 이어서 다시 2004년 8월, 초등 학교 교과서를 포함한 총 719 책의 국정 도서 전량에 대하여 5 개사(대한교과서, 교학사, 천재교육, 금성출판사, 지학사)로 발행권 분배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역사적인 맥락의 당위성과 함께 국

정 도서를 전담해 오던 대한교과서주식회사는 교과서(지도서 포함) 427 책, 매출액 대비 약 47.8 %인 600여 억 원으로 사업이 축소 조정됨으로써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표 1】 국정 도서의 발행권 다원화 (2004. 8.)

학교급별		국정 도서명	발행사	비 고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총론 외) 【12 책】	대한교과서	
특수 학교		국어 I 외 【79 책】	대한교과서	
초등 학교		바른 생활 1-1 외 【126 책】	대한교과서	
		국어(말하기·듣기 1-1 외) 【42 책】	교 학 사	
		수학(수학 1-가 외) 【36 책】	천재교육	
		외국어(초등 영어3 외) 【8 책】	금성출판사	
중학교		국어(국어 1-1 외) 외 【24 책】	대한교과서	
		도덕(도덕 1 외) 【6 책】	지 학 사	
		사회(국사) 【2 책】	교 학 사	
		생활 외국어(생활 독일어 외) 【14 책】	금성출판사	
고등 학교	보통 교과	국어(국어(상) 외) 외 【8 책】	교 학 사	
		도덕(도덕 외) 외 【10 책】	지 학 사	
		수학(확률과 통계 외) 【4 책】	천재교육	
		특별 활동(자치 활동 외) 외 【7 책】	대한교과서	
		외국어(아랍어 I 외) 【4 책】	금성출판사	
	전문 교과	농업, 상업 계열(농업 경영 외) 【58 책】	교 학 사	
		공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 (기초 제도 외) 【179 책】	대한교과서	
		과학 계열(물리 실험 외) 【15 책】	지 학 사	
		외국어 계열(영어 독해 I 외) 【80 책】	금성출판사	
		체육 계열(체육 개론 외) 【5 책】	천재교육	

국정 교과서 제도는 출판사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잘못하면 비난받기 십상이겠으나, 유·불리를 떠나 우리 나라의 교육 문화를 근심하는  
 한 시민으로서 가지는 생각은 일관된다. 초등 학교의 교과서는  
 아직은 국정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4. 초등 학교 교과서는 국정제 유지해야

사회가 다원화되고, 그 가치 또한 다원화된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과거 우리 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획일적인 리더십은, 향수의 대상은 될지언정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는 사회가 되었다. 불과 일십 년 안팎에 우리 사회는 눈부신 변혁의 시기를 겪어 내고 있는 참이다. 사회 전 부문 중에서도 교육계의 변화는 가장 느리게 온다고 하는데, 모르긴 해도 교과서는 어찌면 또 그만큼 더 느릴지도 모른다. 교과서는 언제나 ‘교과서적’이어야 할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 교과서가 지금 변하고 있고, 변하였다. 교과서도 변하고 교과서 발행 제도도 변하였다. 이 현실을 누가 감히 외면하고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생각해 보자. 변화와 변혁은 바람직하겠지만, 멋모르고 휩쓸려버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병폐가 된다. 오랫동안의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 성급히 나서기보다는 길게 연구하고 모색하여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한다. 초등 학교는 중·고등 학교와 다르다. 초·중등 교육법에서 학교급별 특성을 따로 명시(제 38 조, 제 41 조, 제 45 조)한 것은 학교급별 학습자와 교수자가 지닌 특성과 목표가 명확하게 다름을 나타낸 것이다.

국정 교과서 제도는 출판사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잘못하면 비난받기 십상이겠으나, 유·불리를 떠나 우리 나라의 교육 문화를 근심하는 한 시민으로서 가지는 생각은 일관된다. 초등 학교의 교과서는 아직은 국정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교과서의 질 향상과 선택의 제한성이 문제가 된다면 복수의 국정 교과서 발행도 생각해 볼직하다.

‘초등 교육은 국민 공통 기초 교육이자 보편적 가치 교육으로서 그 특성상 내용의 다양성보다는 절대적으로 통합성과 일관성, 보편성이 요구되는 교육(유학영, 국정 도서 발행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3. 12.)’이라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교과서 발행 제도는 다양하다. 일부 교과목은 국정이 되었다가 검정이 되고, 다시 또 국정이 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경제 논리에 따라 왔다갔다하기도 했다. 그 때는 그것이 최선이고 정당했을지는 모르나, 일시적인 면피 행정은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점이다. **연**

# 검정제의 전면 확대와 발행사의 수익성 보장

■ 글 / **고영목** ((주)도서 출판 디딤돌 상무이사)



**제** 7차 교육과정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1997년에 개정, 고시된 교육과정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가 2000년 초등학교 1, 2학년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2004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활용됨으로써 수능 시험 평가에까지 적용된다. 그런데 제 7차 교육과정과 그에 따라 편찬된 교과서, 이어지는 학업 성취도 평가 등에 대해서 유기적,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 8차 교육과정<sup>1)</sup> 개정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과서 편찬 작업에 관여하는 주체들은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간헐적으로 주위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 논의의 핵심이 교과서 발행 제도에까지 닿고 있기 때문에, 과연 초등학교 교과서는 검정화될 것인지, 중등학교의 국정 도서는 어디까지 풀릴 것인지, 궁극적으로는 교과서 자유발행 제도도 받아들여져야 한다면 이번 제 8차 교육과정 개정시에 그 단초나마 열릴 것인지 등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인정화 여부는 초등학교 학습물 시장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고, 교과서 자유 발행 제도는 출판계에 장기간의 준비 작업과 그에 따른 회사 내 교과서 연구 조직의 상설화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 발행 제도의 변화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출판사적 차원에서 교과서 발행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교육과정 정책과 교과서 제도가 어떻게 결정이 나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제 7차 교과서 작업에 참여한 경험과 우리의 교육 현실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 1. 교과서 검인정 제도는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교과서 검인정 제도는 교과목 숫자라는 형식적 측면에서도 확대되어야 하고, 검정 기준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적 측면에서도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기존의 국정 도서 중 수요가 적어서 출판사의 검정 신청이 없는 교과목을 제외한 초등학교의 전 교과서와 중등학교의 국어, 국

**국가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검정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최대한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교과서 검정 제도를 정착시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경쟁 체제에 맡기는 것이 질 좋은 교과서로 가는 지름길이다.  
제 7 차 교과서를 만들면서 내용과 형식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였더니  
훨씬 질 좋은 교과서가 만들어졌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사, 도덕 교과들은 최대한 검정화되어야 한다. 이런 국정 도서들은 국가 수준에서 기준과 관점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 교과목이거나,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논쟁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는 과목들이었다. 지난 양극화 시대에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국가관이나 민족 정체성 확립, 이념적 가치 등의 문제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국민을 선도하여야 했고, 자원이 한정된 시기에 국가가 나서 교과서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 개방성, 유연성, 다양성, 창의성 등의 가치가 무엇보다 소중해졌고, 시민 사회의 가치 요구 수준도 민주와 평등은 물론, 여성, 환경, 평화, 소비자 주권 등으로까지 확대되는 다원화 시대를 맞고 있다. 예전처럼 국가가 나서는 한두 개의 교과서로 지금의 시대 정신을 충족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더구나 새로운 교과서로 배워야 할 학생들은 항상 10~20년 후의 예측하기 힘든 시기를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세대들이다. 앞선 세대가 물려주어야 할 전통적 가치가 결코 가볍게 취급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뒤의 세대가 헤쳐 나가야 될 삶의 다양성을 억누르는 누를 범해서도 안 된다.

국가도 집중점과 응집력을 가져야 하는 하나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

정을 가능한 교과서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시하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최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 역시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역할이다. 효율성과 다양성, 응집과 분산, 문화 전승과 문화 창달이라는 대립적 가치의 균형점에 현재로서는 교과서 검인정 제도가 자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 교과서의 종류가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통제가 심한 검정 기준을 제시한다면 내용면에서 다양한 교과서가 탄생되기 어렵다.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특징, 교과목별 편찬 방향 등은 명확히 제시하더라도 각 과목별 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진술 방식, 분량 등에 대해서는 좀더 과감하게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내용과 형식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한 제 7 차 교과서이지만, 차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초록이 동색’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7 차 교육과정 시기에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교과서들을 분석해 보면, 객관적으로 질이 우수한 책, 차별화 포인트가 명확한 책, 학습 지도가 용이한 책, A/S가 담보된 책들이었음이 발견된다.

따라서, 국가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검정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최대한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교과서 검정 제도를 정착시켜 시장 메

커니즘이 작동하는 경쟁 체제에 맡기는 것이 질 좋은 교과서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 수 있다. 제 7 차 교과서를 만들면서 내용과 형식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였더니 훨씬 질 좋은 교과서가 만들어졌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 2. 교과서 자유 발행 제도의 도입은 시기 상조이다

교과서 자유 발행 제도는 지난 해 연말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교과서 발행 제도의 대안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철회한 현안이 되었고, 최근에는 검정 교과서의 이익 균등 분배가 교과서의 질 개선을 막고 있다는 어느 국회 의원의 주장과 함께 다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 자유 발행 제도 논의는 뜨겁지만 논의 수준은 매우 거칠다. 한쪽에서는 교과서 자유 발행 제도가 마치 교과서에 대한 무정부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폄하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교육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당위적 과제 수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이 있다.

국가가 주도하거나 관여했던 교과서 제도를 점차 시장 메커니즘과 시민 사회가 관여하는 쪽으로 권한을 위임해 가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이 시대적 흐름을 지향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모든 제도와 정책은 양면성으로 현존하기에 교과서 자유 발행 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려면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 단계적 조치로 교과서 검인정 제도의 전면적 확대 실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 외적 논리보다는 교육 내적 여건의 성숙도에 맞추어 교과서 자유 발행 제도의 단추가 하

나씩 풀려 가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개별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사고 과정을 고려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교사가 다분히 일방적으로 다수의 학생에게 수업을 진행하고 그 수업 결과를 얼마나 잘 습득했는지를 평가하는 ‘결과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 중심 교육’의 극치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학력 평가가 자리잡고 있고, 그 학력 평가가 대학 입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한, 평가 기준으로서 텍스트북의 필요성과 텍스트 콘텐츠의 통일성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입시 제도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거나, 나아가 결과 중심 교육에서 과정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대폭적인 교사의 평가권 인정 여부나 대학 당국의 학생 선발권의 자율성 확대 여부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 자유 발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모두 위험한 정책이다.

또, 교과서 자유 발행 제도가 다른 모든 조건들을 사상하고서라도 바로 시행되려면 교육과정 고시 후부터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만 3~4년은 주어져야 한다. 출판사는 물론 저작자들이 선진 국가의 교과서처럼 글줄 원고와 시각 원고를 틈실하게 준비하려면 1~2년 안에는 불가능해서 잘못하면 교과서 자유 발행 제도가 졸속 행정의 표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3. 교과서 발행사의 수익성이 보장되어 교과서 연구 조직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질 좋은 교재를 생산하고 있는 외국의 유명 출판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벌써 급별 중심 교과서 발행사의 형태가 아닌 교과별 전

문 출판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으로 전문화하여 K-1 학년부터 K-10 학년까지 수직 계열화하여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다. 또, 이들은 검정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상시적인 교과서 연구 조직으로 집필진과 편집진을 구축하여 교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미 개발된 도서의 개정판을 지속적으로 발행함으로써 교재의 질을 개선해 가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 교과서 사업은 교육과정 개정 주기에 맞추어 몇 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절 사업 정도로 여겨진다. 전문적인 편집진이 상시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 출원 시기마저도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과서 편집 작업과 참고서 편집 작업을 동시 진행하는 회사도 허다하다. 교과별 전문 발행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교과서 발행 경험이 축적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각 원고의 자료들마저 축적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태생적으로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외부 인사들은 민간 교과서 출판사들이 교과서에 이어 자습서, 문제집, 참고서 등을 발간하여 막대한 이윤을 벌어 가는 사교육의 온상처럼 보기도 하는데,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필자는 주변 회사 중에 교과서로 인하여 돈방석에 앉은 회사를 보지 못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회사도 제7차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23종 출원에 19종 합격으로 80%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산서를 두들겨 보니 59억 투자에 약 8억 정도의 이윤 창출(13.5%)에 불과하였다. 외견상으로는 꽤 많은 사업으로 보이지만 3년 투자에 회수 기간 8년이라는 시간을 대입해

보면 기회 비용도 되지 않는 겨우 이자 수준의 수익 보전일 뿐이다.

괜히 우는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학습물 출판사는 학생 고객에게 미치는 회사 이미지와 저작권 문제 해결의 한 방편으로 교과서 사업을 계속해 가는 것이다.

민간 교과서 출판사들이 영세할 수밖에 없는 또다른 수치가 있다. 검정 교과서 출원 대비 교과서 합격률이 50%대에 머무르는데 합격한 교과서의 이익 배당금 10% 정도로는 불합격된 교과서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각 출판사 내 교과서 연구 조직의 상설화, 교과별 전문 출판사로의 분화·발전 등을 통해 질 좋은 교과서가 생산되길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다름 아니다.

한국에서의 교육 투자는 그릇의 모양에만 신경을 썼지 그 그릇에 담을 내용물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다. 하드웨어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 활성화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정부는 교과서 발행사의 수익성을 큰 폭으로 보장해 주어 출판사도 공공재인 교과서의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 1) 제8차 교육과정은 앞으로 개정될 교육과정을 단순히 제7차에서 연속된 숫자로 표현한 것일뿐 교육당국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수시 개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공급 수수료의 현실화 및 공급 시스템의 개선

글 / 강환동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업무상무)



## 1. 교과서 공급 제도의 변천

교과서 공급 제도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변경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국정 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는 모두가 발행자 공급 또는 도매업자와 전국 서련 공급 제도를, 1950년부터 1977년까지는 민간 공급인(서점) 제도를, 1978년부터 2000년까지는 공급 대행 기관 공급 제도로 운영되었고, 2002년(2003학년도)부터는 발행사 자율 책임 공급 제도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표 1】 참조).

여기서 1978년 이전까지는 국정교과서(주)와 대한교과서(주), 검인정교과서회사(중등교과서(주), 고등교과서(주), 한국실업교과서(주))가 지역별로 공급인(서점 경영자)을 두고 교과서 주문에서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국정교과서(주)에서 대행하는 체제로 독점을 하면서 촉탁 사원 신분의 공급인을 채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한편, 공급인은 소속 회사의 업무를 우선

처리하다 보니 공급 조직을 운영 관리하는 회사와 위탁 회사 간에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위탁 회사들은

항상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고, 제반 행정 지시가 불이행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여 교과서를 공급하는 데 애로가 많았다.

또한 위탁 발행사들이 교과서를 생산하여 공급하려고 하면 이미 각 지방의 창고는 공급 대행 회사 교과서가 우선 공급되어 있어 공급이 지연되고, 한 공급 조직에서 대량을 취급하다 보니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교과서 공급이 3월까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그 후, 국정교과서(주)가 민영화되고, 이 회사를 대한교과서(주)가 인수하면서 2년(1999학년~2000학년)을 대행하였으며, 그 다음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2년(2001학년~2002학년)을 대행하였으나 공급 시스템을 아웃소싱제로 변경, 혼란을 초래하여 3월 신학기가 되어도 일부 학교에는 교과서가 공급되지 못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있었다.

【표 1】 교과서 공급 제도의 변천

교과서 제도	공급 시기		교과서 구분	
			국정 교과서	검인정 교과서
발행자 또는 도매업자 공 급. 전국 서 련 공급 제도	1945~1949		○ 국정교과서 발행사 독자 또는 도매업자(7~8 군데) ○ 대한교과서(주) : 1948. 9. 창업	○ 검인정 교과서 발행사 또는 도매업자(7~8 군데) ○ 대한중등교과서협회 사업으로 전국서적상연합회가 공급
민간 공급인 제도	1950~1977		○ 문교서적(주) : 1950년 창업 ○ 대한문교서적(주) : 1952년 창 업 － 문교서적 인수 － 서울 외 5개 사무소 설치 ○ 국정교과서(주)로 명칭 변경 : 1961. 8.	○ 한국검인정도서공급(주) : 1952. 11. ○ 한국검인정교과서(주) : 1957. 7. ○ 한국검인정교과서발행인 협회 : 1958. 3. ○ 한국실업교과서(주) : 1962. 5. ○ 중등교과서(주) : 1965. 12. ○ 고등교과서(주) : 1967. 12.
공급 대행 기관 공급 제도	국정교과서 (주)	1977. 8.~ 1998. 12.	○ 국정교과서(주)가 공급 업무 대행(교과서 전체)	○ 한국 2종교과서발행조합 : 1978. 8. ○ 한국 2종교과서협회 : 1981. 8. ○ 공급권 없음(국정에서 대행).
	대한교과서 (주)	1999. 5.~ 2000. 8.	○ 대한교과서(주)가 국정교과서 (주) 인수, 공급 업무 대행	○ 공급권 없음(대한에서 대행).
	(재) 한 국 교과서연구 재단	2000. 10. ~2002. 9.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공급 대행 (발행권 다원화 : 대한, 교학, 두산, 중앙, 지학, 천재)	○ 공급권 없음(연구재단 대행).
발행자 자율 책임 공급 제도	2002. 10.~2004. 9.		○ 대한교과서(주)	○ 한국검정교과서협회로 명칭 변경 : 2002. 8.(국정과 검정으 로 구분) － 국정 도서 발행 5개 회사가 협회 공급 조직 이용(교학, 두 산, 중앙, 지학, 천재)
	2004. 10.~		○ 대한교과서(주) － 국정 도서 발행 3사가 대한 공급 조직 이용(교학, 금성, 지 학, 천재)	○ 한국검정교과서협회

※ 자료 : 허 강,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일진 출판사, 2004. p.308.



교과서 공급 제도를 발행자 자율 책임 공급제로 변경하면서  
 교과서 공급 체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공급인은 급여제의 직원에서  
 개인 사업자(서점) 형태로 신분이 변경되었으며, 학교에 대한 서비스는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종전에 비하면 많이 향상되었다.

그 원인에는 낮은 수수료 문제도 한몫을 하였다. 공급 대행 기관 공급 제도 이전만 해도 국정 교과서의 경우 11%, 검인정 교과서는 15%의 공급 수수료에 공급인은 서점 경영자들이었다. 공급 대행제를 하는 동안의 공급 수수료는 4.7%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4.23%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2002. 6. 19. 대통령령 제 18429 호)하여 공급 대행 기관 공급제에서 발행자 자율 책임 공급제(2003 학년도부터)로 공급 체제를 변경하고, 수수료율도 인상 조정하였다.

초등 학교 국정 교과서와 중·고등 학교 일부 국정 교과서는 대한교과서(주)에서, 중·고등 학교 검정 교과서와 국정 교과서 일부[발행사: (주)교학사, (주)두산,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지학사, (주)천재교육]는 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서 공급하는 이원화 체제로 2년간 운영하면서 적기에 안정적인 공급을 하였으나, 2005 학년도부터는 국정 교과서[발행사: (주)교학사, (주)금성출판사, 대한교과서(주), (주)지학사, (주)천재교육]는 대한교과서(주)에서, 검정 교과서는 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서 공급하는 체제가 이루어졌다.

## 2. 현행 교과서 공급 제도의 문제점

교과서 공급 제도를 발행자 자율 책임 공급제로 변경하면서 교과서 공급 체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공급인은 급여제의 직원에서 개인 사업자(서점) 형태로 신분이 변경되었으며, 학교에 대한 서비스는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종전에 비하면 많이 향상되었다.

교과서를 학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현관 적재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적재를 하고, 잔여 교과서에 대한 반품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공급인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던 것을 공급인이 학교와 협의하여 일자를 정하고 직접 학교에서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에게 분배하는 분배 비용도 3배 이상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아직도 해결해야만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공급인이 학교에 수시로 연락할 사항이 많으나 교과서 담당 교사가 수업 중인 관계로 업무 연락이 원활하지 못하며, 최근에 와서는 겨울 방학 이전에 학교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의 보관 창고 부족 등으로 방학 기간에 공급하는 경우 담당 교사가 학교에 출근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교과서 인수와 정산, 반품의 업무는 행정실에서 주관하는 것이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는, 현재 중·고등 학교의 경우, 공급의 이원화로 2개사(한국검정교과서협회, 대한교과서)가 공급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학교에서는 교과서 인수 횟수 증가, 정산, 반품과 입금 등을 각각 따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지역 교육청에서는 2개 회사의 공급인을 상대하여 주문, 계약, 정산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 문제는 발행사 간에 협의하거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재하여 학교 수와 취급 금액 등을 감안, 초등과 중·고등으로 구분하여 공급 업무를 행하도록 하면 원만히 해결될 수도 있다. 다만, 초등 교과서와 중·고등 교과서를 모두 발행하는 발행사는 거래처(공급인)가 이원화되어 주문, 공급, 반품, 정산까지의 업무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셋째는, 공급자 중심의 공급제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급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과서의 실수요자인 학교와 학생이 쉽고 편하게 교과서를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는 대량 물량을 공급자 편의에 따라 학교에 공급하고 학교는 학생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우선,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하는 시기와 교과서를 분배하는 시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공급인이 일시에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학생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앞의 서점을 이용하도

록 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으나, 유통 과정이 추가되어 상당한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유통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교과서 정가가 오르게 되고, 소비자 부담이(초·중학교는 의무 교육으로 국가 부담, 고등학교는 학부형 부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급 수수료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 3. 교과서 공급 제도의 발전 방향

#### 가. 공급 수수료의 현실화

이상에서 제시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급 조직의 운영 관리와 공급 수수료율의 상향 조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현재 교과서의 공급 수수료율을 보면 초등 학교는 정가 대비 7.14%이고, 중·고등학교는 5.88%선으로, 국내 제반 공산품 중에 이렇게 낮은 수수료율은 없다.

중·고등 학교의 공급 비용을 보면, 교과서 보관 창고와 사무실 임차료, 학교 운반 경비와 반품 경비, 인건비와 관리비, 학교(학생) 분배 경비, 이행 보증 보험료(교육청 계약, 발행사 계약)와 화재 보험료, 소득세 등이 전체 공급 수수료의 약 70%선인 4.13%이고, 나머지 약 30%인 1.75% 내외가 공급인 소득으로 보면 된다.

공급인의 소득이 적고 교과서 대금 회수기간이 6~7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검정교과서협회의 경우 공급 비용의 일부를 선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교과서 대금 정산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며, 군소 단위 지역을 담당하는 공급인에게는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대한교과서(주)의 경우는 주로 초등 학교용이기 때문에 교

**우리와 공급 과정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공급 수수료는  
무상 급여(소·중학교) 교과서는 정가의 15%, 유상 급여(고등 학교) 교과서는 16%이며,  
그 밖에 약 2.5%의 추가 공급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다. 추가 지급되는 2.5%는 어떤 공급  
체계를 이용하느냐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직공급 체계와 중간 공급 체계의 차이이며,  
미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15%에서 25%까지 지급하고 있다.**

육청과의 계약에 따라 수금하므로 입금 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급인의 처우를 적정선까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급 수수료율을 정가 대비 15%까지 상향 조정되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공급인이 취급하는 학교 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와 공급 과정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공급 수수료는 무상 급여(소·중학교) 교과서는 정가의 15%, 유상 급여(고등 학교) 교과서는 16%이며, 그 밖에 약 2.5%의 추가 공급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다. 추가 지급되는 2.5%는 어떤 공급 체계를 이용하느냐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직공급 체계와 중간 공급 체계의 차이이며, 미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15%에서 25%까지 지급하고 있다.

#### 나. 교과서 공급 조직의 운영 개선

교과서 공급 조직은 지역 교육청의 매출과 취급 부수 등을 감안하여 각 사가 공급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교과서 공급을 발행자 자율 책임 공급제로 변경하면서 공급인 수는 종전의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대행할 때의 133 명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236 명(대한교과서 120 명, 한국검정교과서협회 116

명)으로 증가하였다.

또, 서점 경영자들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검정교과서협회의 경우는 기존 공급인도 교과서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을 취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공급인이 사무실과 창고를 임차하여(일부 공급인 자가 창고 확보) 공급 업무만 전담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서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상으로는 서점이지 진정한 의미의 서점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검정교과서협회는 기존 공급인에게 서점이 아닌 사무실에서라도 교과서를 비치하여 개별 판매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으나 신학기가 끝난 비수기에는 수요자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점을 개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한편, 지난 해부터 참고서 시장의 침체로 일반 서적상 등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존의 서점마저 폐업을 하는 상황이어서 서점 개업을 권장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러나 기존 공급인이 서점을 개업하지 않고 교과서만 취급할 경우, 지역 서점과의 경쟁력에 밀려 잠식당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급인들은 관할 지역 내의 모든 교과서 수요자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갖추어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공급

【표 2】 전국 교과서 공급인 현황 (2004. 10.)

시·도별	종 전	현 행		합 계	시·도별	종 전	현 행		합 계
		대 한	검 정				대 한	검 정	
서 울	11	11	14	25	충 북	7	7	7	14
부 산	4	3	6	9	충 남	12	10	7	17
대 구	4	3	6	9	전 북	9	8	6	14
인 천	4	5	4	9	전 남	14	13	7	20
광 주	2	2	3	5	경 북	16	14	13	27
대 전	2	2	3	5	경 남	15	11	12	23
울 산	2	2	2	4	제 주	2	2	1	3
경기도	17	18	19	37					
강원도	12	9	6	15	합 계	133	120	116	236

권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

앞으로 공급 조직은 공급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한 공급인이 취급하는 학교 수와 취급액을 적정화하고, 대한교과서(주)와 한국검정교과서협회, 기타 교과서 발행사, 교육인적자원부가 충분히 협의하여 공급 대상을 학교급별(초등과 중·고등)로 구분하고, 그래서 한 학교를 1개 공급인이 전담하도록 개선해 나간다.

#### 다. 교과서 공급 업무의 개선

앞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공급인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급 시설(창고와 매장)을 확보하고, 학교에 공급하는 횟수는 2~3회에서 1~2회로 줄여 학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한다. 이 밖에도 교과서 공급 제

도 개선에 관한 다음 사항에도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교과서 공급 업무 중 학교 공급 이후 추가 수요로 인해 민원이 일부 발생되고 있다. 교과서를 분실하였거나 전입 학생들의 경우 교과서를 구하려고 교과서 판매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며칠을 기다려 책을 받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

학교에서 학생이 교과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교과서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담당 교사는 공급인에게 주문하고 공급인이 직접 학교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과서를 사려고 오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서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교과서 직매장(초, 중·고등 학교 전 교과서 판매)을 운영하고 있다.

### 공급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공급인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급 시설(창고와 매장)을 확보하고,

학교에 공급하는 횟수는 2~3회에서 1~2회로 줄여

학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각 교과서 발행사가 공급인에게 개별 판매를 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별로 교과서 판매 서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주문 제도도 시행하고 있으나 소량 구입의 경우, 교과서 대금보다 송료 지출이 많아지기도 한다. 그리고 직접 공급인이나 판매점에서 교과서 한두 권을 구입하는 경우도 교과서 대금보다 교통비 지출이 더 많아져 경제적 낭비의 요인이 된다.

다음으로는 교과서 담당 교사의 전·출입과 업무 기피 및 교과서 담당 교사가 매년 변경되고, 대부분 초임 교사가 담당하다 보면 교과서 관련 업무에 혼선과 주문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2004 학년도 중학교는 지역 교육청에서 정원 외에 과다 주문을 하지 못하게 하여 반품률이 예년의 3%에서 1.9%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고등 학교의 경우, 심화 과정 교과서가 3학년까지 적용되면서 교과서 주문 오류가 많아졌으며, 신입생의 경우는 과다 주문으로 반품률이 오히려 5%선으로 증가해 우려할 수준이다.

주문 오류는 과부족 원인이 되어 부족한 교과서는 추가 생산을 해야 하며, 남은 교과서는 반품 발생으로 발행사에 재고로 남게 되어 교과서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 학부모나 국가 예산 부담이 가중된다. 일부 학교

는 주문 오류가 학생에게 교과서를 분배한 후(2월 말 또는 3월 초)에 발견되어 교과서를 반품하고 추가 주문하기 때문에 신학기에 교과서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교과서 발행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교과서 주문이 완료되면 전년과 대조해서 변동된 경우에는 공급인을 통해 학교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다.

교과서 발행사는 추가 생산과 재고 도서 폐기로 인해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공급인은 추가 공급과 반품 회수에 따른 비용이 발생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측인 학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교과서 담당 교사도 자주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과서 발행자와 공급인도 교과서의 발행·공급이 학교 교육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학교와 학생에 대해 최선의 서비스를 다 한다는 목표하에 일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도 교과서 공급 체제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연**

# 국정제 폐지와 미래 지향 발행제로 전환

■ 글 / 안병우 (한신대학교 교수)



## 1. 머리말

한국사 교과서에 관한 사회의 관심은 대단히 높고, 그 때문에 심심찮게 교과서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진다. 지난 국정 감사장에서 금성출판사가 발행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친북, 반미, 반재벌적 편향성이 심하다고 한 발언과 그로 인해 촉발된 파란은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보여 준 대표적 사건이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그러한 교과서 공격은 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 심각한 사건이다.

이렇게 한국사 교과서가 정치 쟁점이 되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사 교과서가 국민 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어느 교과서나 마찬가지로, 한국사 교과서는 특히 공평하고 균형 있게 서술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 발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점을 짚어 보려고 한다.

## 2. 교과서 발행 제도를 둘러싼 논쟁

### 가. 국정제 시행과 폐지 요구

‘국사’ 교과서는 1974년부터 국정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유신을 통해 영구집권을 획책한 박정희 정권은 제3차 교육과정에서 국사과를 독립시키고 전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국사 교육 강화 조치를 취하면서 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었다. 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국정 교과서제도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국정제를 옹호하는 근거는 국사 교육 내용이 하나로 통일되어 국민의 국사 인식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개개 학자의 편견을 극복하고 풍부한 내용을 수록할 수 있으며, 연구 인력을 집중하여 교과서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설(異說)과 소수설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며, 급진적 좌경 또는 보수 반동 사관으로 인한 교육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정제는 처음 시행할 때부터 줄곧 학계의 반대에 직면했다. 국정제에 대한 반대는 크게

세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첫째는 국정제에서는 단 하나의 교과서만을 발행하기 때문에 교과서가 성전(聖典)으로 인식되고, 교사는 충실한 해설자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되며, 그 결과 하나의 역사 해석만이 통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역사 교육론에 입각한 비판이다. 둘째는 교과서의 사관(史觀)과 내용에 대한 비판으로 발행 직후부터 제기되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더욱 격렬해져 국정제 비판의 주요 논거가 되었다.

국정 교과서는 지배층을 위주로 서술하고, 민족 개념과 민족 내부 모순을 호도하며, 결국 지배층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군사 독재 정권의 집권 정당성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를 보는 관점에 대한 비판은 특히 현대사 서술을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셋째는 집필 기간, 비용, 집필자 선정, 인쇄 수준 등 구체적인 발행 과정과 내용에 관한 비판이다. 이렇게 국정 교과서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발행 직후부터 다방면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비판해 왔다. 심지어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국정 교과서를 편찬하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도 국정제를 비판하였다. 국정제를 옹호하는 학자는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 나. 검정제 교과서의 발행

제7차 교육과정을 시행하면서 국정 한국사 교과서 제도에 변화가 생겼다. 제7차 교육과정은 10학년까지를 국민 공통 교육과정으로, 11~12학년을 심화 과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11, 12학년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심화 선택 과목으로 배치하고, 그 교과서를 검정으로 발행하게 한 것이다.

2002년에 처음 발행된 ‘한국 근·현대사’ 교

과서는 모두 6종이 검정을 통과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검정 과정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으며, 최근에도 다시 논란이 되었다. 검정 과정에서의 논란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을 서술했고, 당시의 정부 치적을 미화했다는 등 서술 내용과 검정 과정을 문제삼은 것이고, 그 결과 검정 위원이 전원 사퇴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최근의 논란은 금성출판사의 교과서가 친북, 반미, 반재벌적 경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촉발되었다. 검정 교과서는 이렇게 시련을 겪으면서 출현하였고, 아직도 시련을 겪고 있다.

교과서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금성교과서를 분석한 전문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그 교과서는 친북의 입장에서 서술했다고 볼 수 없다. 친북 주장은 곧 사상적 공격을 뜻하는 것으로,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마녀 사냥식의 이념 공세가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친미나 반재벌이니 하는 것은 집필자의 역사관에 맡길 것으로, 친미나 반미, 친재벌이나 반재벌 중 어느 하나의 입장에 서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미국은 우리의 오랜 우방이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벌은 기업 형태의 하나이다. 따라서, 반미나 반재벌이 마치 민주 질서를 부정하는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교과서 공격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향하는 바는 구시대로의 회귀이다. 따라서, 그 의도 자체가 비교육적이며, 발행 제도로 말한다면 검정제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국정제로 복귀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 다. 인정제와 자유 발행제 요구

한편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인정제나 자유 발행제로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정제와 자유 발행제는 그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다. 인정제는 보다 다양한 교과서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의 간여를 보다 줄인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비교적 적합한 제도이다. 자유 발행제는 교과서의 편찬과 발행을 거의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정제와 자유 발행제는, 그 이상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당장 시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인정제는 국가의 검정 절차를 대폭 완화된 형태를 띠게 될 것이고, 따라서 매우 다양한 교과서가 발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유 발행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누구나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정제보다 교과서 사이의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엄격한 검정 과정을 거친 교과서에 대하여도 온갖 공격을 하는 현실에서, 인정제나 자유 발행제의 도입은 더욱 거센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고, 잘못하면 그러한 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검정제 실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한국사 교육이 바람직하게 된다는 점을 인지시킨 후에 차츰 인정제나 자유 발행제로 옮겨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3. 발행 과정의 민주성과 자율성

#### 가. 교육과정과 준거안의 작성

한국사 교과서 발행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쟁은 발행 과정에서 집필자의 의도가 얼마만큼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가 하는 점

이다. 그것은 곧 국가가 어느 정도 교과서 내용에 간여하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교과서는 집필자의 개인 학설을 그대로 서술하는 책은 아니다. 교과서는 그 발행 형태가 어떠하든 아직도 전범적(典範的) 교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교과서 발행은 교사가 자기의 역사관과 수업 방식에 적합한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검정제로 교과서를 발행할 때, 다양한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준거안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준거안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작성하기도 하고, 공모하는 방식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 작성 과정에서 학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면서도 그 내용은 집필 지침을 간략히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국정 교과서의 집필 과정

중학교와 고등 학교 1학년에서 사용하는 ‘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발행한다. 편찬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필진과 연구진을 구성한다. 대개 교수와 교사로 집필진과 연구진을 구성하며, 제7차 교과서 편찬시에는 교수와 교사를 한 팀으로 하여 집필하게 하였다. 교사들이 많이 포함됨으로써 교육 현장의 요구가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게 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집필진 구성은 언제나 뒷말을 낳는다. 과연 집필진이 학계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그들이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서술할 만한 사람들인지, 과연 중등 역사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인지 등등에 대하여 늘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 제기



는 집필자 개인의 자질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국정 교과서를 집필한다는 사실에 연유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시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가 교과서 편찬에서 손을 떼고, 다수의 저작자들이 임의로 교과서를 집필하게 허용하는 것이다.

#### 다. 검정 과정과 다양한 교과서의 출현

검정제로 교과서를 발행할 때,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검정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마땅한가? 검정은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교과서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를 갖추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면 충분하다. 즉, 국가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준수하였는지, 반인간적이고 성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저작권을 위배했는지 등의 일반적 사항과 잘못된 서술이 있는지 정도만 검정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는 크게 공통 기준과 교과 기준으로 나누어 검정하며, 검정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특히, 분단 상태에 있는 까닭에 북한과 관련된 서술에 극히 민감한데, 남과 북은 언젠가는 하나의 국가 틀 속에서 살아갈 동족(同族)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검정 기준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검정 기준과 과정이 다양한 교과서의 출현을 막는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 4. 내용 구성과 서술

#### 가. 시대순 서술과 분류사 체계

교과서 발행과 관련하여 또 하나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초등 학교부터 배우는 한국사를 어떻게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학년급별(學年級別)로 수준 차이를 두어 서술하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중학교 교과서는 시대순으로 서술하고 정치사가 중심이 되어 있으

며, 고등 학교 교과서는 분류사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또, 고등 학교 2, 3학년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배울 것으로 예정하고, 고등 학교 1학년 교과서는 근·현대사를 소략하게 서술하였다. 그 결과,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은 결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다. 이러한 점들이 서술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분류사 서술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인데, 그 체계의 참신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무척 혼란스러워한다.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을 고대에서부터 근대까지 배우고 나서 ‘경제 구조와 경제 생활을 다시 고대에서부터 시작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류사 형태의 서술은 한 분야의 구조와 그 변화상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데 강점이 있다. 그렇지만 학생들에 의하면 그 변화의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없으며, 교사들에 의하면 경제 구조를 설명하면서 정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 중복 교육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분류사 서술 방법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중·고등 학교의 교과서를 연계하여 일관 체제로 서술하든지,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나. 교과서 서술과 역사관

국정제를 폐지하고 검정제로 전환할 때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교과서의 역사관일 것이다. 국정제가 가장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제도라는 믿음 때문에 국정제를 고수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정제를 폐지하였을 때 나타날 위험성 때문에 국정제를 고수하려고 한다. 그 위험성이란, 말할 것도 없이 현재의 체제를 위협하는

역사관에 입각한 교과서의 출현 가능성이다.

그러나 그러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현재의 검정제로는 대한 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교과서는 발행될 수 없으며, 그것은 검정제가 아무리 완화되어도 불가능한 일이다.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최근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공격에서 보듯이, 자기들의 기준에서 서술하였던 것과 달리 서술할 것에 대한 우려이다. 그러나 기왕의 국정 국사 교과서가 군사 독재 정권의 출현을 미화하여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에 역행하는 서술을 하였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우려는 계속 역사를 왜곡 서술하도록 요구하는 것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다.

민주 사회에서 역사를 보는 관점은 학자와 교육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적인 역사 교육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다양한 시각에 입각한 교과서가 발행되어야 하고, 교사가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교과서를 선택하여 교육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과서에 나타나는 사관의 차이는 우려해야 할 일이라기보다 장려해야 할 일이다. 정말 우리가 우려해야 할 일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에서 과거의 잘못된 서술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과, 국가의 과도한 간여로 검정제 아래에서도 ‘이나저나 별 차이 없는’ 교과서가 발행되는 것이다.

## 5. 맺음말

현재 한국사 교과서는 두 가지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고등 학교 1학년과 중학교 ‘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고등 학교 2, 3학년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검정으로 발행한다. 검정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발행한 것은 국정제 시행 이래 거의 30년 만의 일이다.

다. 그 동안 우리는 국정 ‘국사’ 교과서에 너무 익숙해졌다. 그 ‘익숙함’ 속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역사관도 포함된다. 국사 교과서는 민족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목표 아래 국정제 발행 유지의 당위성을 제시해 왔다.

이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특히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개를 고려하면서 민족이 걸어온 길, 우리 사회가 성취한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미래의 민족사를 열어 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과거의 정권에 기여한 국정제는 폐지하고 다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과서가 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서 발행 제도도 바꾸어야 한다. **연**

## 참고 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 교과서 발행 제도 개선 연구 학술 세미나 발표문』. 2003.
- 남지대. 『고등 학교 국사 교과서 근·현대편의 서술과 문제점』 역사 비평 3. 1988.
- 박준성. 『올바른 역사 이해와 ‘국정’ 국사 교과서의 문제점』 교과 교육 1. 1988.
- 안병우. 『한국사 교과서 발행 제도에 관한 검토-검정제를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 연구 6. 2004.
- 역사교육연구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 근·현대사 고등 학교 검정 교과서 편향성 시비를 따진다. - 집필에서 교육 현장까지 -』. 역사학관련학술단체 연합 심포지엄 자료집. 2004. 10. 14.
- 역사교육연구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편향성 시비에 대한 역사 연구 단체들의 의견서』. 2004. 10. 20.
- 역사 교육을 위한 교사 모임. 『살아 있는 삶을 위한 역사 교육』. 푸른나무, 1989.
- 이병희. 『국사 교과서 국정 제도의 검토』 역사교육 91. 2004.
-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등. 『한국사 교과서의 희망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 다양한 요구의 충족과 교과서 질 향상과의 함수 관계

■ 글 / 백경선 (서울도곡초등학교 교사)



## I. 시작하며

우리 나라의 경우 초등 학교 교과서는 줄곧 국정제를 채택하였다. 물론 제 6차 교육과정기에 영어과 교과용 도서에 한하여 검정제를 채택하였으나, 다시 제 7차 교육과정기에 국정제를 채택함으로써 초등 학교의 경우 국정제가 주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등 학교의 국사, 국어, 도덕(국민 윤리) 교과서와 초등 학교 교과서의 검인정화 추진을 발표하였다. 사실 초등 학교 교과서의 검정화 추진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1999년 제안된 「교육 발전 5개년 계획(시안)」에 초등 교육의 다양화와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초등 학교 교과서를 단계적으로 검정 도서로 전환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초등 학교 교과서의 국정화가 국민 공통 교육의 이념을 쉽게 실현할 수 있다는 점, 교육과 교과서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등은 초등 학교 교과서의 국정화를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반하여 국정 교과

서의 획일성 문제,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교과서의 질의 유지가

아닌 향상에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초등 학교 교과서의 검정화의 필요성과 검정화가 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책 등을 초등 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초등 학교 교과서의 검정화 필요성

### 가. 교육과정의 구현의 다양화

제 6차 교육과정은 ‘학교 중심 교육과정’으로, 제 7차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그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이는 제 6차 교육과정기부터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을 확대하여 교육과정의 지방화, 분권화 요구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다양하여 지역,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교과서를 가르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교사의 자율성을 발휘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가르치라고 하지만, 교사가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재구성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또,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여기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 말하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요소가 교과서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들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구현 도구인 교과서가 다양해져야 한다.

#### 나. 교과서 질의 향상

국정제의 강점으로 들고 있는 ‘교과서 질의 확보’는 역으로 보면 질의 향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그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개발되는 데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또, 교과서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여 양질의 교과서를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교과서가 개발되면 ○○ 교과의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진다고거나, 이전의 교과서에 비하여 내용이 허술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개정되기까지는 별로 수정되는 법이 없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계속적인 수정 작업을 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미미하며, 초등학교의 경우에 교과 전담 교사제가 아닌 학급 담임제이고, 매년 담당 학

년이 바뀌는 까닭에 교과서에 대한 수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수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검인정으로의 전환을 통해 출판사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러한 경쟁이 양질의 교과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판사들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통하여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다. 획일적 사고의 틀에서 탈피하는 계기

현행 국정 제도에서는 우리 나라 초등학교의 모든 학생이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학교마다 교사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지도하는 방식이 달라 모든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지도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지역적 특성과 학교의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학생이 같은 교과서로 같은 내용을 학습한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지역화, 분권화 시대에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정 교과서는 국가적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창의성을 개발하도록 돕는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초등 학생의 경우에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과 통설화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양한 가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정제로 결정될 경우 다양한 연구자와 집필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획일적 사고를 탈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국정 제도에서는 우리 나라 초등 학교의 모든 학생이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마다 교사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지도하는 방식이 달라 모든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지도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지역적 특성과 학교의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학생이 같은 교과서로 같은 내용을 학습한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지역화, 분권화 시대에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Ⅲ. 검정제의 추진시 우려와 대책

#### 가. 교과서 선정의 주체 문제

교과서 발행 제도가 검정제로 전환될 경우 교과서 선정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 단위 학교의 교사들이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학교 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교과서 선정 주체의 논란으로 인하여 단위 학교로 교과서 선정권이 이관될 경우에 교장과 교사 간 또는 교사와 교사 간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워 새로운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과연 단위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만약 10개 교과에 5종의 교과서만 개발된다고 가정해도 한 학년당 50권의 교과서가 개발되는 것이며, 학기별, 학년별 교과서의 수를 생각하면 그 수는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다. 그 많은 교과서를 단위 학교에서 검토하고 선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도시의 대규모 학교의 경우는 교사 수가 많지만 그렇지 않는 소규모 지방 학교의 경

우 교과서 선정을 단위 학교에 주면 그것은 엄청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교과서 선정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교육청별로 교과서선정위원회를 두고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과서선정위원회에는 지역 교육청에 조직되어 있는 교과연구회를 활용하고 학부모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교육청에서 복수로 선정하고 선정된 교과서 중에서 단위 학교가 최종 선택한다면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과정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혼란

##### 초래의 문제

초등 교육은 공교육 중 가장 어린 미성숙자를 교육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혹 교과서 검정제의 추진으로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내용이나 편향된 시각의 내용들이 교과서에 실릴 경우 다양성 충족과 다양한 시각의 확보라는 득(得)보다 학생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는 실(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중등 학교의 교과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초등 학교 교

과서는 각종 이데올로기의 경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검정 단계에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다원주의는 다양한 가치관의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으나, 인간 중심주의와 공동체주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원주의가 인간 중심주의와 공동체주의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사회 및 국가라는 커다란 공동체의 유지 근간인 공동체 의식을 와해시킬 수도 있으며, 다양한 집단 간의 대립이 부각될 우려도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 출판사들의 난립과 학부모들의 우려 문제  
검정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검정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예산(연간 약 560억 추정)을 들여 가면서 검정제로 전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검정제로의 전환시 각 출판사들이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참여하여 교과서의 질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검정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교과서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 한 가지는, 학부모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같은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지역 교육청별로 또는 단위 학교별로 다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생각할 경우에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지, 혹 다른 학교 또는 다른 지역 교육청 학생들에 비하여

수준이 떨어지는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의 학력 평가에 대한 우려로도 출될 수 있다. 따라서, 검정 단계에서 교육과정과의 합치 정도를 검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 Ⅳ. 맺으며

초등 학교 교과서의 검정화 추진은 시대적으로나 사회적 요구로나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모든 일의 시작이 그러하겠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교과서는 교사의 수업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교과서의 검정제 추진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어떤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어떤 학년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검정제로 갈 경우에 교과서를 학교에 비치하고 대여하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통합해야 할 교과서는 없는지, 학생들의 전학 등에 따르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서 검정화 문제는 교육과정 구현의 다양화 및 다양한 요구의 충족과 교과서의 질 향상과의 함수 관계가 반비례의 관계가 아닌 정비례의 관계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 두 축의 관계가 이러한 정비례 관계가 성립될 때만이 교과서 검정화의 타당성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연**

# 영국의 선생님과 대화



■ 글 / 함수곤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현재 영국 런던대학교 연구교수)

저는 런던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한국의 교육과정 행정’에 관하여 한 시간 정도의 특강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날 그 강의실에서 우연히 런던 시내의 공립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3년 경력의 Y라고 하는 한 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런던교육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받은 Y 선생님은 그 날 마침 시간 여유가 있어 몇 년만에 모처럼 모교를 방문하였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Y 선생님을 붙들고 그간 궁금하게 생각했던 영국 초등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사 업무 등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물어 보았습니다.

(1) 선생님은 몇 학년을 맡고 있습니까?

저는 3학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 지도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음……, 몇 명이더라. 27명입니다.

(3) 선생님의 학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학교는 센트럴 런던에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런던의 동쪽 변방에 있는 North Beckton Primary School이라고 하는 변두리 학교입니다. 학생들의 가정 형편도 일반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편이고요. 우리 학교는 6년제, 12학급이고 학생 수는 340명 정도입니다. 한 학년에 두 학급씩 있습니다.

(4) 선생님은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이 학교에서 신문에 게재한 교사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응모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서류 심사에 합격했으니 면접을 위해 학교로 나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인터뷰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채용을 결정했고, 지역 교육청(LEA)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답니다. 이 곳에서는 대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사가 채용되고 있습니다.

(5) 선생님의 학교는 사립 학교가 아니고 공립 학교인데 그렇게 교사를 채용하나요?

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틀림없는 공립 학교입니다. 한국에서는 공립 학교에서 그렇게 교사를 채용하지 않나요?

(6) 교장 선생님의 권한이 아주 대단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 교육과 경영, 인사 등 전반에 걸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7) 처음에 학교에 부임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네,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었죠. 이제 이 학교에서 3년이 넘어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고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지만 채용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채용된 후에 교장과 또 한 분의 경험 이 많은 주임 교사가 저의 담당 Supervisor(지도 주임)가 되어 교육과정 구성, 교재 준비, 수업, 평가, 학생 생활 지도 등의 실무를 일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채용이 되면 처음 1년간은 매주 1회씩 교육청이나 연구 센터에 가서 교사로서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공부해야 합니다.

(8) 교육과정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각 교사는 자신이 담당한 학생들에게 1년간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고민해서 교육과정을 전부 구성해야 합니다. 물론 National Curriculum이 있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참고하고 QCA(Qualification Curriculum Authority)에서 National Curriculum을 근거로 하여 작성, 제시한 보다 상세한 지침에 따르지만, 구체적으로 각 교육 목표별 내용과 방법, 소재, 교재 등의 구성과 조직, 배열, 준비 등은 모두 교사 자신이 연구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힘든 일이지요. 이 때, 필요한 자료나 도서 등은 교장에게 신청하면 학교에서 구입해 줍니다.

또, 영국에는 따로 학생용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교사가 교육과정을 잘 구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자신이 구성한 교육과정대로 수업하는 데 필요한 교재와 자료를 준비해서 제공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은 대개 교사가 교재를 직접 고안해서 만들거나, 여러 교재 전문 회사에서 보내 온 많은 카탈로그를 보고 선택하거나, 또는 인터넷 관련 사이트를 뒤



저서 찾거나, 교재 전문 솜 등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학생들에게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는 도서나 자료 등을 꼼꼼히 골라 내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렇게 선정한 교재나 자료, 도서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필요한 분량을 교장에게 신청하면 교장이 검토해서 구입해 줍니다.

(9) 그런 작업까지 하고 학생 지도를 하려면 많이 힘들겠지요?

그렇습니다. 매일 학습 평가를 해야 하고, 학생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업에서 사용할 학습지, 교재 등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일이 여간 힘들지 않아요.

(10) 그런 일을 선생님 혼자서 모두 해결합니까?

당연히 저 혼자로는 무척 벅차지요. 그래서 1~3학년에는 보조 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4~6학년은 학년당 1명씩 우리 학교에는 모두 9명의 보조 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assistant인 셈이지요. 주로 교재 준비, 복사, 채점, 배부, 학생 돌보기 등의 일을 맡아서 담임 교사를 돕고 있지요.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지닌 특수아가 학급에 정상아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아 1명에 특수 교육 전문 교사가 1명씩 따라붙어 1:1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교사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고 있지요. 우리 학교에는 현재 이런 특수 교사가 20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아가 20명 있는 셈이지요.

(11)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 평가 등의 본질적인 업무 이외에 선생님에게 부과되는 다른 업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사는 학생을 잘 가르치는 일 이외에 어떠한 업무도 맡지 않고 있습니다. 수업만 해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무슨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력도 없고요. 그리고 아이들 잘 가르치는 일에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의 교사는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재 연구와 교재 준비, 그리고 학생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전문적인 업무 외에 어떠한 업무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문서를 작성한다든가 학교의 어떤 사무 분장을 맡고 있는 일 등은 일체 없습니다. 학교에 공문서가 오는 일은 거의 없고 또 극소수의 공문이 시달된다고 해도 사무 직원이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자신이 담당한 수업 외의 일은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의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 이외에 무슨 다른 일들을 또 하는 것이 있나요?

(12)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어떤 점에 특히 유의하여 중점을 두고 있나요?

제가 맡고 있는 학생은 모두 27명인데 이들을 수준별로 Top group, Middle group, Low group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학습 성적과 교과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체 지도는 거의 하지 않고 이들 그룹을 번갈아 돌아가면서 그룹별 지도, 개별 지도를 주로 하지요. 이 때도 보조 교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3) 선생님의 하루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용 계약서에는 반드시 근무 시간이 명시됩니다. 저의 경우 08:45부터 15:3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업은 전학년이 09:10~15:30으로 되어 있고요.

(14) 그러니까 오후 3시 30분에 선생님은 퇴근할 수 있군요.

네, 그런 셈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교육과정 구성, 교재 준비, 학습 평가 등의 업무 때문에 오후 3시 30분에 퇴근하는 선생님은 볼 수 없습니다. 거의 늦게까지 그런 일들을 위해 학교에 남아 있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항상 시간이 모자라 퇴근할 때 집으로 학생의 과제물과 평가지 등을 가지고 갈 때도 많습니다.

(15) 선생님들 연수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 교육청(LEA)에서 학년 초에 1년간 운영할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모두 수록한 두꺼운 책자로 된 연수 계획을 각 학교에 안내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 중에서 자기에 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골라서 교장에게 신청합니다. 학기별로 2회 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장은 교사가 신청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출장 조치를 하고 교사가 학급을 비운 기간 동안 대체 강사를 투입합니다. 대체 강사는 'Supply Agent'라는 대체 강사 공급 회사가 있는데 교장이 이 곳에 요청하면 신속하게 대체 강사를 파견해 줍니다. 대체 강사의 1일 수당은 160 파운드(한화 약 35만 원 정도)로서 비싼 편입니다. 'Supply Agent'는 대체 강사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다가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공급해 주는 민간 회사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연수를 자주 가면 학교 재정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수의 회수를 학기당 2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영국은 3학기 제임.).

(16) 선생님 정년은 언제까지입니까?

교사는 65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교사 채용 공고를 보고 응모할 수 있는 연령이 65세까지라는 말입니다. 모든 교사의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한다는 말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채용되고 안 되는 것은 각각 학교의 교장한테 달려 있는데 응모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의 연령이 65세까지라는 말이지 채용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별도입니다.

(17) 교감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사가 잠깐 비운 학급의 수업에 들어가는 일도 있지만 주로 학교 교육과정의 조정, 점검, 평가, 지도 등의 일과 교육 내적인 일의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 교감은 32세의 교육 경력 8년 된 과학 전공의 선생님이십니다. 학교의 채용 공고를 보고 응모해서 채용패널의 평가 과정을 거쳐 적격자로 판정받고 채용된 분이지요. 채용패널은 교장이 중심이 되고 학교운영위원장, 지역 교육청 장학진, 외부 교육 전문가나 교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18) 선생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장이 매년 각 학급의 Top group, Middle group, Low group에서 각각 1 명의 학생을 선정해서 그들이 1 년간 공부한 포트폴리오의 제출을 교사에게 요구합니다. 교장은 이것을 분석, 검토해서 그것을 근거로 교사를 평가합니다. 그 밖에도 수시로 교사의 수업 지도를 관찰 평가하고, 매년 학년 말에는 교사와 개별 면담을 통해서 새 학년도의 희망학급을 듣고, 이번 학년도의 교육 성과와 반성 등을 통해 평가, 조언, 상담하기도 합니다.

또, 교장은 수업 관찰과 포트폴리오의 검토 등을 통해서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교사를 불러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지도한 후에 일정 기간 계속 관찰해서 개선 시정이 되지 않으면 다시 불러 다른 학교의 채용 공고를 알아보도록 권고합니다. 교장의 이런 권고를 받은 교사는 그 학교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19) 실례지만 현재 선생님의 연봉을 밝혀 줄 수 있습니까?

네, 저의 연봉은 34,000 파운드(한화 약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 1,500 파운드는 제가 지금 음악 주임 교사이기 때문에 주임 수당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런던 시내 학교 교사는 다른 지역 학교의 교사보다 연간 3,000 파운드, 런던 주변 학교의 교사는 연간 2,000 파운드를 더 받는데 이것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던은 집세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과 회사원 등도 모두 동일하게 이런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은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야 하고 집이 없는 경우에 비싼 집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연봉 34,000 파운드라고 해도 실제 생활은 항상 긴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National Curriculum의 공통 필수 교과인 국어, 수학, 과학과 주임은 주임 수당이 연간 3,000 파운드이고, 그 밖에 교과의 주임 수당은 1,500 파운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교장은 50 세의 여성이며, 연봉은 50,000 파운드입니다. 교장 역시 채용 공고를 보고 응모해서 채용 패널의 평가를 거쳐 채용된 분이십니다. 교장은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방대하지만 봉급도 많이 받습니다.

(20) 혹시 여 교사가 출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우를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네, 유급 출산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 교사가 출산을 하게 되면 처음 6 주 동안은 자신의 봉급액의 90%를 지급받고, 그 후 2 개월 간은 50%를 받으면서 학교를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유급 휴가 3 개월 반을 포함하여 6 개월까지는 해직되지 않고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나머지 2 개월 반은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합해서 6 개월이 넘게 휴가를 얻고 싶으면 사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한 여 교사가 6 개월이 되면 학교를 사직하고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고 학교 근무를 계속할 것인가를 놓고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21) 선생님 학교의 사무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무 책임자 1명, 부책임자 1명, 그리고 사무원 2명 모두 4명입니다.

(22)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모두 12명인데, 학부모 대표 5명, 지역 교육청(LEA) 4명, 교사 1명, 교내의 교사가 아닌 직원 1명, 교장 1명(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가는 자유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주로 학교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협의하는 일입니다. 교사를 채용하면 교장이 결정한 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알립니다.

(23) 오랜 시간 제 질문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의 학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 \* \* \* \*

Y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학교 선생님은 자신이 담당한 학생을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신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교육 행정이 맡은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런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권위와 권한을 교장에게 갖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통감했습니다.

기업이나 행정 기관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그 종사원과 직원들이 우수하고 성실하며 책임감 있고 사기가 높아야 하겠지만, 그 책임자인 사장이나 기관장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경영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런 기업과 행정 기관이 다루는 물건이나 문서 등과 다른 인간을 기르는 곳이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 교육에 등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교육 경영 책임자인 교장의 자질과 전문성, 그리고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교장의 권위와 권한이 학교 교육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은 지금 이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장 부재의 학교, 교장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 교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결국 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왜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 혁신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학교 책임자를 양성하고 각 단위 학교에서 그들이 교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다할 수 있게 만든다면 우리 학교 교육은 반드시 크게 개선될 것이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시각과 정책 방향

■ 글 / **한상진**(남서울대학 객원교수, 전 동작교육장)



## I. 서(이해의 관점)

어느 철학자는 우리 인간은 각자의 커리큘럼에 의거 자기의 페이스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예컨대, 대장장이가 농사 기구를 만들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윤곽과 모양을 잘 설계하여 작업을 하게 된다. 이 때, 대장장이는 오랜 세월 동안 몸담고 있는 생활 세계 (Lebenswelt) 속에서 익히고 터득한 넓고 깊은 장인 정신과 그 분야에 관련된 경험과 지식, 예지와 철학, 시야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라고 하는 공간(Raum)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행위(the educating act)도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이념과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기간 동안, 어떠한 스타일의 인간을 창출할 것인가를 구상하고 설계해 놓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교육의 기본 청사진이며 설계도인 교육과정이다.

21세기 한반도의 국가 발전 전략의 모델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지식 국가로서 세계 지식 질서의 첨

단을 주도하기 위해서 지식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야 하며 이 전쟁의 성패가 바로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는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며 증진하는 발전을 주장하며 너무 잘 살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은 중형 국가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민족의 생존과 번영은 앞으로도 계속 추구되어야 하며 부국강병의 발전 형태인 민주적 부민 번영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 통신 강국이 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추 것을 역설한다.

반면에 다른 시각에서는 경제 성장이나 국가의 위세 강화가 아니라, 평화, 분쟁 해결, 환경 보존, 이질적인 것과 공존 등을 발전의 핵심 내용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사회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최근 사회 흐름에 대한 평가에서도 개혁 문화를 만들어 가는 시민 사회의 활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사이버 민주주의(cyber populism)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의 과제들은 동원된 군중에 의한 물리적 해결이 아니라 영리한

군중에 의한 지식 국가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1세기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푸는 데에는 새로운 안목을 가진 세대들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이해의 관점과 시각도 다양하다.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22세기를 향한 이 시점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열띤 논의와 심층적인 토론을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과 역사 의식, 예술과 철학, 조상의 얼과 멋, 가치관과 사고의 흐름, 행동 양식이 교육과정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사회학적인 시각을 논의하여 우리가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관점과 시각을 넓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정책을 차원 높고 세련되게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와일드 아이디어’(wild idea)라고 할 수 있다.

## II. 교육과정 이해의 시각

교육과정은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동양에서의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3학과(문법, 수사학, 논리학) 4과(산술, 기하, 천문학, 음악)와 다른 것은 시대적인 사회성(sociality)을 갖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는 형식 교육과정(formal curriculum), 잠재적 교육과정(latent curriculum),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 등이 있다. 특히, 잠재적 교육과정과 아이즈너(Elliott W. Eisner)의 영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영(M. F. D. Young)은 교육적 지식이 일상 생활에서의 상식적 지식과 분리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가르쳐야 될 가치가 있는 지식으로 무엇이 선정되며, 그것과 학교 밖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전통적인 교육과정의 이해는 교육과정을 가치와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치중립(value-free)인 것으로 바라본다.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하느냐에 대한 물음을 무시한 채 교육과정을 이미 주어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특정한 지식 체계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기술적 질문이 아니라 “그것이 왜 교육적이며, 학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교육과정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주목한다. 학교에서 정당한 지식으로 간주되는 것은 그것이 ‘중립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 성, 종교, 지역 등의 복합적인 권력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것이다. 교육과정 사회학자들은 학교와 교육과정이 지난 수세기 동안 현존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특정한’ 가치와 태도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윌리엄스(R. Williams)는 “교육이란, 특정한 시기에 활용이 가능한 모든 사회 지식을 선택하고 조직한 ‘선택된 전통’(selective tradition)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모든 지식은 이해 관계를 내재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특정한 교육적 지식이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특정한 관점을 만들어

내는 방식을 밝히는 데 관심을 둔다. 따라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선택된 지식이 ‘누구의’ 지식인가, ‘누가’ 그 지식을 선택하였는가, 그리고 ‘어떻게’ 조직되어 가르치는가, 등에 관한 문제를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식 사회학(sociology of knowledge)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지식 사회학은 인간의 모든 의식이나 사고는 계급 이익, 즉 그 시대의 사회적, 역사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교육적 지식으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이고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교육적 지식은 학급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평가 방법에 의하여 정당화되는가, 교육적 지식은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가, 사회적 정치적 모순과 갈등은 교육적 지식을 통하여 어떻게 중재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누구의 지식이 교육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느냐에 관심을 가진 번스타인(B. Bernstein)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조직, 편성하는 원리에도 사회 질서와 통제의 원리가 스며들어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미시적인 교육적 과정과 계급 관계 등 거시적 권력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는 계급을 생산 관계의 객관적 위치를 의미하는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범주로 파악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결정론적 시각을 비판하며 교육의 상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 기능을 강조한다. 그의 주장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은 코드(code)이다. 코드는 ‘교과 지식의 선정, 조직, 전달, 평가 등 학교의 총체적인 경험을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학교 생활에서의 일상적인 경험, 활동 등을 실제적으로 규제하는 원리를 말한다.

코드는 사람을 사회화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코드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사회 구조와 개인의 인식 구조를 연결하는 ‘해석 수단’으로 내재화되어 있다. 문화의 전달과 변화가 이러한 코드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드가 거시적 상황을 미시적 상황으로 매개한다는 것이다.

번스타인은 교육적 상황을 규정하는 코드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과정(curriculum, 타당한 지식으로 간주되는 것의 조직), 교수법(pedagogy, 타당한 지식으로 간주되는 것의 전달), 그리고 평가(evaluation, 타당한 지식으로 간주되는 것의 실현)를 분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편성은 그 운영과 별도로 고려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과정이 조직되고 편성되는 것을 ‘분류’(classification)와 ‘구조’(framing)의 두 기준으로 분석한다. 분류는 지식의 조직(the organization of knowledge)이며,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육 내용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교과목 간, 전공 분야 간 등을 말한다. 체계 이론(systems theory)의 용어로 표현하면 경계 유지(boundary maintenance)의 정도가 높으나 낮으냐의 문제이다. 구조는 지식의 전달(the transmission of knowledge)이며 과목 또는 학과 내 조직의 문제로 가르칠 내용과 가르치지 않을 내용의 구분이 뚜렷한 정도, 계열성(sequence)의 엄격성, 시간 배정의 적절성을 뜻한다. 구조와 분류는 각각 강할 수도 약할 수도 있다. 강한 분류와 강한 구조, 강한 분류와 약한 구조를 집합형(collection type), 약한 분류와 강한 구조, 약한 분류와 약한 구조를 통합형(integrated type)으로 불렀다. 집합형 교육과정은 엄격히 구분

된 과목 및 전공 분야 또는 학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과목 간, 전공 분야 간, 학과 간의 상호 관련이나 교류는 찾아볼 수 없다. 상급 과정으로 올라감에 따라 점점 전문화되고 세분되어 학습 영역이 좁아진다. 통합형 교육과정은 과목 및 학과 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서 횡적 교류가 많아진다. 대체로 여러 개의 과목들이 어떤 상위 개념이나 원칙에 따라 큰 덩어리로 조직된다. 예컨대, 역사, 지리, 정치, 경제가 사회 생활로 통합된다. 집합형에서는 인간 관계는 횡적 관계보다 종적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 교육과정의 계획과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는 적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러나 통합형에서는 인간 관계는 횡적 관계가 강화되며, 교사와 학생들의 재량권이 늘어나고, 교사와 교육 행정가의 관계에서도 교사의 권한이 증대된다.

교육과정 사회학은 학교를 소비하는 곳으로, 교사와 학생을 이미 생산된 지식을 소비하는 수동적 객체로 가정하고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수동적 객체에 의한 냉담한 지식의 교환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해진 교육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이들은 문제아 또는 학습 지진아로 취급되기 쉽다. 교사와 학생에 의하여 교육적 지식의 의미가 새롭게 ‘재발견’되거나 ‘재해석’되는 창조적인 학습이 강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육적 지식의 생산자로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미흡하다. 후기 구조주의(post-structuralism)는 궁극적 진리를 찾고 모색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은 전통적인 서양 철학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푸코(M.

Foucault)는 지식이란, 권력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고서는 이해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서 권력과 지식은 분리된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그는 권력/지식(power/knowledge)의 식으로 표현한다. 그는 지식을 권력과 관련하여 정복한 지식과 정복당한 지식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 중에서도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복당한 지식’(subjugated knowledges)이었다. ‘정복당한’이란, 통제하고 짜맞추기 위하여 제도화된 권력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식은 기능주의(functionalism)에서 요구하는 일관성이나 이론이라면 으레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과학적 형식주의 때문에 감추어진 지식들로 지금까지 은폐되고 파묻혀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존재해 오면서도 기능주의나 형식주의 이론에 가리워진 지식으로 새로운 비판주의를 통하여 그 숨겨진 의미를 찾아 낼 수 있는 지식을 말한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보편적인 가치와 진리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지식관의 해체(disconstruction)를 주장한다. 로타르(J. F. Lyotard)는 지식이란,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며 관계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낸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따르면 교육적 지식은 모든 학습자들이 당연히 내면화하는 어떤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차이, 애매함, 불확실성, 갈등 등의 집합이다. 교육적으로 가치 있고 객관적으로 확실한 보편적 진리의 모음으로서의 교육과정(curriculum)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교육적 지식의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볼



때, 교육적으로 타당한 지식과 진리 그리고 가치를 다루는 활동으로서의 전통 교육은 그 존재 의미와 정체성이 혼돈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는 교육과 교과서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다양성과 차이 등이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새로운 공공 영역으로 교육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번스타인은 학교의 내적 논리와 규칙이 어떻게 교수·학습 방법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점에 관심을 두 개의 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하나는 교수·학습을 지배하는 원칙이 구체적이냐 또는 드러나지 않느냐에 따라 ‘가시적 교육 방법’과 ‘비가시적 방법’으로 구분한다. 다른 하나는 수업을 지배하는 원리에 따라 직업에 관련된 기술 교육을 강조하는 ‘시장 의존적’ 활동과 지식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시장 독립적’ 활동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교수 방법은 보수적 전통적 교수 방법과 진보적 아동 중심 교수 방법으로 구분한다. 가시적 교수법은 지식의 전달과 성취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보수적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시적 교수법은 학생들의 겉으로 드러난 ‘성취’를 중시한다. 따라서, 학생들 사이의 성취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고 어떤 교사와 학생이 지식의 전달을 잘 하였으며 성취도가 높은가를 비교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교사 위주의 교육이며 학교나 학급의 통제 원리로서 기능한다.

반면에 비가시적 교수법은 외적 잣대에 따라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내적인 변화를 중시한다. 학생들의 인지적, 언어적, 정의적, 그리고 동기 수준에서 변화를

강조한다. 따라서,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학습자 중심의 성격을 가진다. 가시적 방법이 지식의 전달과 성취를 중시한다면 비가시적 방법은 지식의 획득과 자질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사회 계급에 따라서도 교수 방법에 차이가 크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교육을 취업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계급일수록 가시적 교수 방법을 선호하는 반면에 취업보다는 상징적 통제를 중시하는 상층 계급은 비가시적 교수 방법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또, 가시적 교수 방법과 비가시적 교수 방법에 따라 평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가시적 교수법은 명확한 기준과 정교한 측정 방법에 의한 객관적 평가 방법을 중시하고, 특정한 기술과 지식, 아동의 동기와 태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비가시적 교수법은 객관적 기준이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아동의 내적인 상태와 과정을 고려한다.

### Ⅲ. 교과서 이해의 시각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회를 통하여 더욱 많은 것들을 배운다. 교과서라는 제한된 지면에 담긴 내용보다는 더욱 다양하게 채색되고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뉴스와 텔레비전의 쇼 프로그램, 인터넷 게임, 사이버 세계 등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배운다.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교육과정의 내용이 되는 교과서로서의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교과서에 실린 교훈적인 이야기보다 직설적인 은어와 자신들만의 담론을 더욱 중시한다. 이제 게임, 노래, 영화, 텔레비전은 학생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교육과정 사회학에서는 그 동안 학교의 교육적 지식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교과서로서의 사회를 분석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동안에도 그들은 짬짬이 게임을 한다. 게임은 삶의 중요한 일부이다. 뛰고, 달리고, 오르고, 찌르고, 죽이고, 살리는 등의 게임의 법칙은 현실세계(real world)와 가상의 세계(virtual world), 교육적인 것과 비교육적인 것의 구분과 경계를 설새없이 넘나든다. 과연 많은 학생들이 빠져 있는 게임의 내용과 형식은 누가 통제하고 결정하는가?

책으로 대표되는 활자 텍스트(text)에서 CD-Rom 등과 같은 디지털 텍스트로의 이행은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분석을 요청하고 있다. 이제 교육은 교사와 학교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 못지않게 새롭게 표준화되고 상품화된 학습서와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제작들의 손으로 옮겨가고 있다. 교육적 지식의 결정 권한이 정치적 집단에서 지구적 상업적 권력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 오락의 결합을 의미하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 education + entertainment)로 바뀌고 있으며, 교육적 의도나 목적보다는 기업체의 이윤 추구를 위한 의도에 따라 교육과정이 재편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노블(D. D. Noble)은 정보화가 교육적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기업 등의 산업체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된 결과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정보화가 교육적 이해보다는 엔터테인먼트나 텔레커뮤니케이션 업자들의 이해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기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고속 도로상의 소프트웨어로 전략하였으며 교육자 또한 계

임의 주변적인 플레이어에 불과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적 지식은 미디어 제작자들에 의하여 더욱 정교하게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의 거미줄 같은 배급망을 통하여 전세계로 유통되고 있다. 교육의 주체가 교사와 학생으로부터 기업에 고용된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자의 손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루는 교육적 지식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학생들은 교과서에 박제되어 정지된 지식에 매력은 물론이고 정보원으로서의 가치조차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 학생들은 텔레비전,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호기심과 흥미를 충족시키는 수많은 새로운 정보를 손쉽게 얻고 있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암기해야 하는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죽은 교과서’로부터 ‘살아 숨쉬는 교과서’로 바뀌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교사와 학생 등 교육의 주체가 교육적 지식을 다룸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국가가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생이 ‘국가적으로 정해진’ 지식을 소비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요청받게 된다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에게는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살아 있는 삶의 현실을 교육 공간으로 불러 올 수 있어야 한다. 교과서가 고여 있고 정지된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내용을 담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적 지식은 사람들이 삶의 구해

적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교과서는 도시의 삶을 표준적 모습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 간 차별은 농촌과 도시, 특정 지역과 다른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사례를 빚기도 한다. 직장이나 사회로 대표되는 공적 영역은 남성의 공간으로 가정으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은 여성의 공간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교과서에서 여성과 남성은 각각 소비자-생산자, 가정-사회, 봉사자-지도자, 비활동적-활동적, 하위 직종-상위 직종, 율동-힘, 감성-모험, 비직업인-직업인이라는 이분법적으로 표현되어 온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는 학교가 불평등한 성 의식을 내면화하는 결정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공립 학교의 경우, 특정한 종교에 관련된 교리나 입장을 교육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또 특정 종교의 신념에 위반되는 내용만을 교육시키는 것도 문제이다. 일방적으로 창조론을 교육시키는 것도 문제이나 진화론만을 교육시킴으로써 창조론에 입각한 종교적 신념을 훼손시키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교과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담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적 장애 여부가 교육적 지식의 선정 기준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신체적 장애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매우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세계화는 모든 나라의 독특하고 차별적인 교육적 지식을 해체하고 하나로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동질화시키고 있다. 우리의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가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창조적으로 재조명하고 발전시키려는 한국인의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게 하는 의지가 교과서에 담겨져야 한다.

#### Ⅳ. 결(정책 방향)

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생존과 운명을 좌우하는 백년대계이며 발전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교육의 비전과 전략은 큰 틀을 세워 놓고 거시적인(macro) 시각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국민 전체가 창의적이며 생산적인 지식 활동으로 활력과 생명력이 넘치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 세계의 주요 선진 국가들은 교육의 수월성(excellency in education)을 추구하기 위하여 교육 개혁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이웃 일본도 30년 만에 한국의 평준화와 같은 학구제를 폐지하였다. 그래서 공립 학교도 사립 학교처럼 학생이 학교의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다. 공립 학교도 골라서 가도록 경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만든 새 교육법(No Child Left Behind Act)의 핵심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21세기 학교’를 건설해야 한다. 학습자들의 창의력과 재능을 캐내는 ‘생각하는 학교’, 학습자들이 자기의 미래를 가꾸는 ‘꿈을 가꾸는 학교’ 그리고 교육 고객인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하는 ‘질 높고 효과적인 학교’가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학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성 함양과 수월성 교육으로 학습자의 특성과 잠재력, 재능을 최대한 계발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학교 운영 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대학을 자랑했던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와 미국의 하버드 대

학에 1등 자리를 내어 준 것은 ‘평등주의 교육’의 폐해 때문이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소개했다. 평등주의와 반 엘리트주의에 대한 신념은 누구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모든 대학은 똑같은 지위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낳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난한 집 자녀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주의적 꿈을 실현한 것은 하버드의 경쟁적인 시장 제도이지,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일본의 독도, 한국사 왜곡 문제 등 국가의 정통성 문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시점이다. 교육과정은 개인과 국가의 잠재력을 최대로 실현시키는 교육의 전략과 비전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에 대한 고도의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가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 산업 세계에서 리스트럭처링, 리엔지니어링, 컴퍼니제, 다운사이징, 슬림화, 벤치마킹, 임파우어먼트를 할 때에 생산성을 더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여 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리고 기타 분야는 과감하게 축소시키고 있다. 지식 기반의 정보화 사회, 인터넷, 디지털 사회에서 창의력과 독창성을 살리는 교수·학습의 방법을 연구하고 풍부한 인간성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서 특색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도와 주는 서비스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된 역할이 되어야 한다. 교수·학습 세계의 전문가인 교과별 편수관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 정책 결정의 큰 물살이 되어 항상 교실 세계의 물살과 친근하게 조화롭게 섞이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과 맥락에서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리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

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편수 조직이 부활되어야 한다.

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자아 실현이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리드해 나가야 할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바로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에 달려 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21세기 학교의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과정의 틀을 짜야 하며, 교육과정의 철학과 정신을 살리는 매력적이고 신선한 교과서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과정 정책도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7차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도 국정이든, 검정이든, 자유 발행 제도이든 한국의 역사성과 전통을 살리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교하게 검토하고 출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지혜와 묘수를 찾아야 한다. 교사의 교과에 대한 이해의 정도, 사고의 구조와 가치관, 해석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교육 경험의 생활 세계를 창출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교사는 교육과정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졸작의 작품 연출을 할 수도 있고 각본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발력 있고 창의적인 감상의 세계를 연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교과서는 사고와 사색을 돕는 하나의 중요한 자료로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물의 ‘새로운 해석’에 대한 탐구심을 촉진하는 원료가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

# 교과서 게재 사진 촬영의 문제점과 개선점

■ 글 / 손종진 (인천기능대학 강사)



## 1. 시작하는 말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 교과서는 그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 우선 외적인 면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판형의 확대와 색도의 자유스러운 사용은 다양한 편집과 시각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진·삽화와 같은 시각 자료는 예전에 비해 그 비중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미려성에 기여하는 바도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사진만 놓고 볼 때에도 이전에 비해 실사한 것이 많아졌으며, 전문 대여처에서 슬라이드 필름이나 테이터를 대여, 활용함으로써 교과서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질을 꼼꼼히 따져 볼 때 아쉬운 부분이 많다. 특히, 실사 촬영 사진에서 질 좋은 사진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미흡한 경우가 많이 눈에 띄인다. 무엇이 이 미흡함의 원인일까?

이 글에서는 비상근 포토그래퍼(Photographer)로서 약 3년 간 제 7차 교육과정에 따

른 교과서에 게재할 사진 스텝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느낀 점, 아쉬운 점 및 그 개선점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 2. 교과서 게재 사진 촬영시의 문제점과 개선의 모색

### 가. 촬영 시간 부족

포토그래퍼에게 교과서에 게재할 사진 촬영 리스트가 넘어 오는 시기는 저작자가 웬만큼 원고를 마감할 무렵이다. 그렇다면 촬영에 주어지는 시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면 4개월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 수백 컷이 넘는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달리는 차 안에서 식사를 빵으로 해결하며 뛰어다녀도 하루에 5컷도 찍기 힘든데, 교과서 편집 담당자는 언제 사진이 완성되냐며 재촉에 재촉을 거듭한다. 뛰어다니는 시간에 비례해서 그만큼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힘들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다.

사진 전문가로서는 촬영을 어렵게 하는 광

선 상태, 번덕스러운 날씨, 촬영 시간, 모델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편집 데스크에서는 늘 질과 양을 주문한다.

따라서, 해를 거듭하면서 촬영 리스트를 앞당겨 받기를 거듭 요청하지만, 편집자에게 거의 수용되지 않는다. 원고 마감 전에 리스트를 만들어 촬영할 수는 있으나, 마감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출판사에서 좀더 큰 안목으로, 또 더욱 질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 주기를 희망한다.

- ① 현대는 이미지의 시대이고, 촬영되어 당장은 그 과목 교과서에 채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판사 홈 페이지에 올려 다른 과목 교과서에 사용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뿐더러,
- ② 사진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유상 대여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자가 원고를 작성하는 일정 기간 후부터 리스트를 작성해 촬영을 시작하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보다 질 좋은 사진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나. 편집자의 촬영 리스트에 대한 설명 부족  
편집 담당자는 필요한 사진의 영상을 머릿속에 선명히 그린 후에 포토그래퍼에게 사진촬영을 주문할 것이다. 편집자가 생각하는 영상과 이를 수용하는 포토그래퍼가 생각하는 영상이 일치할 때 편집자가 요구하는 사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특정 사진 장면에 대해 편집자와 포토그래퍼가 서로의 영상을 일치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피사체의 배경을 따낼 것인지, 풍경을 밝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실루엣만 나타낼 것인지, 인쇄시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할 것인지 등에 설명이 있어야 촬영할 때 그것에 적합한 구도가 나오고 결과물이 나오며, 주 피사체를 강조할지 아니면 전체적인 화면에 녹아 들어가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편집자는 포토그래퍼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확한 이미지를 인식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대화를 통하여 이해시킴과 아울러 각 장면에 대해 광고 사진을 만들 때처럼 거칠게나마 스케치를 하거나 여기에 피사체의 사용 크기, 위치, 색감, 강조점 등을 메모(conti)하여 포토그래퍼에게 준다면 원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고, 재촬영을 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다. 촬영 환경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

때로는 촬영에 필요한 소품을 잔뜩 준비해 모델, 편집자와 함께 특정 장소에서 촬영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전에 촬영에 지장이 없게끔 이것저것 단단히 준비를 하지만, 때로는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을 현장에 가서야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편집자의 촬영 현장에 대한 사전 파악 부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교과서 편찬 일정상 촬영 일자를 다른 날로 연기하기 어려워 부득불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촬영을 진행한다. 그래도 결과물이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미흡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위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수용하지만, 포토그래퍼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넘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한다.

편집자는 포토그래퍼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확한 이미지를 인식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대화를 통하여 이해시킴과 아울러 각 장면에 대해 광고 사진을 만들 때처럼 거칠게나마 스케치를 하거나 여기에 피사체의 사용 크기, 위치, 색감, 강조점 등을 메모(conti)하여 포토그래퍼에게 준다면 원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고, 재촬영을 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사진을 얻으려면 사전에 촬영 장소에 대한 사전 답사를 통한 점검과 준비, 촬영 시간대의 촬영 환경 변화에 대한 치밀한 탐색, 모델의 신중한 선택과 이들의 역할에 대한 사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사진 내용에 따른 촬영 시간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사진은 기계적인 형틀로 찍어 내는 공산품이 아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사진의 효과가 아주 다르고, 때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편집자들이 꼭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라. 사진에 대한 고정 관념

‘큰 필름을 쓰는 중형 카메라로 촬영하면 품질이 더 좋지 않느냐, 이 카메라는 기능이 떨어지는데 저 회사의 카메라로 촬영할 수 없느냐, 한 쪽을 풀(full)로 커버하려면 중형 카메라가 필수 아니냐, 슬라이드로 촬영해야 인쇄 상태가 좋지 네거티브로 찍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직은 필름이 최고지 디지털 사진으로 어떻게 인쇄를 한다고 그러느냐.’ 하는 등등의 고정 관념을 가진 편집자들이 꽤 있다. 편집 업무를 통해서 얻은 노하우와 개인적인 취미 생활로 얻은 지식의 편린들, 그리고 사진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론으로 포토그래퍼를 설득하려 할 때가 가끔 있다.

이 때문에 어떤 이미지의 사진이 적합한지

를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편집자의 고정 관념 앞에서 이들을 설득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이 문제로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앞에서는 편집을 편집자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듯이 사진은 포토그래퍼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다큐 잡지인 내셔널지오그래피에 수록되는 대부분의 사진들이 소형 카메라로 촬영된다. 화질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만약, 최고 화질의 사진을 교과서에 게재하고자 한다면, 중형 카메라보다 더 큰 필름을 사용하는 대형 카메라로 촬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편집자는 사진의 내용, 촬영 시간, 게재 사진의 크기, 정해진 시간의 촬영 양, 촬영 환경 등을 고려해서 포토그래퍼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카메라의 크기와 이에 알맞은 필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마. 디지털 환경에 대한 우려

최근 신문사를 비롯해서 잡지, 광고 등 많은 매체 등에 사용되는 사진이 필름 사진에서 디지털 사진으로 급격히 옮겨 가는 추세에 있다. 관련 업체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오늘의 변화에 대비해 조금씩 장비들을 교체

하고 다양한 테스트를 해 왔다. 신문사들은 이미 100% 디지털로 전환하였으며, 잡지 분야에서도 디지털 사진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때 교과서 편찬, 발행사에서 이에 대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디지털 카메라는 몇 가지 큰 장점이 있다. 첫째는 필름을 현상하고 스캔하는 과정의 생략 및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둘째는 촬영 현장에서의 결과의 즉시 확인 등을 들 수 있다. 둘째의 경우, 현상을 마친 다음 어떤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 재촬영하기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 카메라의 이러한 기능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필름 카메라는大量的의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경우에 점차 그 효용성이 적어지고 있다. 셋째로 디지털 카메라는 대부분 저감도에서 고감도까지 필요시 매컷마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서 여러 종류의 필름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혹시 아직도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이 인쇄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진 교과서 편집자가 있다면 이 선입견에서 벗어나기를 권한다.

#### 바. 잘못된 색상 관리

촬영 환경이 필름에서 디지털로 변한 후, 신문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색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필름은 색상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지 못해 나타나는 색감 그대로 인쇄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에 독자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지만 기사에만 신경 쓸 뿐 색감에 대한 문제 의식을 좀처럼 갖지 않는다. 하지만 한두 번 보고 버리는 신문과 달리 반복적으로 보아야 하는 교과서

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색감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푸른 빛을 띠는 사진을 정상적인 색감으로 인식해 그대로 사용해 왔지만, 최근 보편화된 디지털 시스템으로 인해 이제는 필름 시절에 보아왔던 잘못된 필름 색감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인식해야 한다. 색감이 뭐가 그리 중요하느냐고 할 수 있겠으나, 오늘날과 같은 이미지 시대에서는 산뜻하고 힘 있는 색감이 주는 효과 또한 만만치 않음을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 3. 맺는말

오늘날의 영상 매체 시대에 맞게 교과서도 시각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사진은 더 이상 내용 표현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당당히 주요 수단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과 효과를 ‘혁명적’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카메라의 디지털화로 과거와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크게 유리해졌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 편집 관계자가 카메라 또는 포토그래퍼에 대해 과거와 같은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교과서 사진의 발전 곡선은 완만함에 머물고 말 것이다. 한 줄의 카피가 몇 장의 보고서보다 효과적일 수 있고, 한 컷의 사진이 전체 내용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교과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진과 그래픽 이미지들을 부수적인 내용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온 스태프들이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좀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 **연**



# 교과서 개발의 제 문제와 해결 방안

■ 글 / 정혜정 ((주)동화사 편집부 사회과 팀장)



## 1. 시작하는 글

필자는 제4차 교육과정의 시행 말기인 1987년 교과서 편찬 업계에 발을 들여 놓은 후, 근 20년 동안 사회 계통의 교과서 개발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제5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내용이나 체제면에서 종전의 것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텍스트 위주의 기술 형태가 유지되었고 당시 학문의 신조류나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이슈 등이 조금 더 가미된 정도였습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보충·심화 자료와 탐구 활동이 강화되었지만, 딱딱한 이론 중심의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학습자의 흥미 유발 및 실생활과의 연계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제7차 교육과정에 입각해 개발된 교과서는 얼핏 보아도 괄목할 만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현행 교과서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교과서가 맞는지 의심스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먼저, 선명한 컬러, 양질의 종이, 세련된 서체, 화려한 디자인 등 하드웨어의 변신에 탄성했고 만화, 사진, 삽화의 비중을 높인 과감한 내용 전개와 다

양하고 흥미로운 사례 및 보조 자료 제시 등 소프트웨어의 변모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를 만들어 내는 과정은 산고와 겨울 만큼 힘들고 고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의 교과서는 과거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혼신의 노력으로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투자를 아끼지 않은 가운데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든 작든 가슴 한켠에 애증어린 집착을 묻고 있을 것입니다. 필자 역시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로, 대한민국 교과서의 보다 큰 발전을 염원하고 향후 교과서 개발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간 교과서를 개발하면서 부딪쳤던 문제점들과 그 개선 방안을 다음의 일곱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2. 집필진의 구성과 조직에 있어서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집필진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급이 한정된 상태에서

무조건 최초 등록된 집필진만을 교과서에 명기할 수 있고  
 사망 또는 해외 이주가 아닌 이상 그 어떤 변경도 불가하다는 행정 처리는  
 관료주의의 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7차 교과서 개발 당시 여러 발행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애초에 저작자를 잘 선택해야 했다.’, ‘이제 와서  
 저작자를 변경하는 것은 공정 경쟁에 위배된다.’는 등의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많은 집필자를 확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또, 모든 집필자의 능력이 다 같은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집필 작업에 돌입하면 서로 간에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집필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일도 생기며, 새로운 인력을 보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현재 중학교 사회 교과처럼 연도별 검정을 통해 1~3학년 교과서를 개발하고 각 학년마다 영역 구분이 뚜렷한 상황에서는 교과서 개발이 시작된 후, 1~2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집필하는 저자도 많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이 이러한데 무조건 최초 등록된 집필진만을 교과서에 명기할 수 있고 사망 또는 해외 이주가 아닌 이상 그 어떤 변경도 불가하다는 행정 처리는 관료주의의 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7차 교과서 개발 당시 여러 발행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애초에 저작자를 잘 선택해야 했다.’, ‘이제 와서 저작자를 변경하는 것은 공정 경쟁에 위배된다.’는 등의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발행사들은 집필자의 지명도나 학계에서의 위치, 경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집필진을 선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했고 오랫동안 교육학 이론을 연구한 학자들이라도 수요자인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자율적으로 학습에 임하게 하는 교과서, 학생 각자의 수준에 맞추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교과서를 구현해 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 도중 다른 발행사의 집필자를 유인해 내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후, 해당 발행사와 집필진의 합의 아래 집필자를 충원하거나 집필진에서 탈퇴하는 것을 허용하는 열린 행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3. 발행사별로 교과서만을 전담하는 독립 부서가 상설, 운영되어야 한다

완성된 원고의 문맥이나 다듬고 적당한 공간에 관련 사진이나 배치하는 수준의 편집으로는 21 세기가 지향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즉,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소수의 집필자가 자신의 전공 분야에 해당하는 몇 개의 단원을 혼자 집필하고, 이를 편집진이 알아서 꾸미던 행태로는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를 표방하는 오늘날의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없으며, 결국 검정 심사 단계에서 탈락한다는 사실이 이미 제7차 교육과정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상태에서 포맷을 구축하는 기획 편집이 선행되어

야 하고, 학습 주제별로 각종 자료를 구성, 배치한 최적의 가상본이 먼저 제시된 후에 그 안에 부합되는 원고 집필이 이루어져야 완성도 높은 교과서가 탄생합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편집하는 사람은 집필자 못지않게 학습 내용을 꿰뚫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자료 수집과 선별에 예리한 감각을 발휘하는 동시에 이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아름답고 다채로운 그릇에 학습 내용을 담아 내는 탁월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필자는 언젠가 캐나다의 ASCP(atlantic science curriculum project)가 개발한 중학교 과학 교재(science plus technology and society)를 보고 심한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책은 이러한 편집인의 자질과 면모를 여실히 담은 결정체로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그대로 녹아들어 살아 숨쉬는 교과서였기 때문입니다. 중 1~3학년의 교재 3권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시간만 12년, 참여한 편집인도 총괄 편집장 1인, 집행 편집장 1인, 계획 설계 편집장 3인, 운영 편집장 1인 외 19명의 편집 스태프가 있었으며, 원고 교열을 위해서 별도로 3명의 인력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상은 집필진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높았습니다. 교육과정이 전면 개편될 때마다 편집진의 이합집산이 거듭되고, 아직도 집필진과 편집진이 주부의 관계로 해석되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교과서가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발행사들은 교과서 전담 부서를 따로 두어 전문 인력 육성과 정보 수집 및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뒤따르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요청됩니다.

#### 4. 5년 내지 수년 단위의 전면 개편보다는 1년 단위의 부분 개편이 합리적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은 1999년부터 본격화되어 2002년에 완료되었습니다. 현격히 향상된 교과서의 질과 획기적인 체제 변화로 인해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완전한 적용을 위한 탐구와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단위의 교육과정 전면 개정이라는 기존의 정책을 감안할 경우, 2001년부터 공급된 중학교 1학년 교과서는 오는 2005년이면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 5년 내지 수년 단위의 교육과정은 너무나 짧은 주기로 바뀐다는 느낌입니다. 더군다나 교육과정 개편에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현장 검증을 통해 발견되는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교과서를 1년 단위로 부분 개편하고, 부분 검정제를 실시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질 좋은 교과서 보급과 비용 절감이라는 이중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려는 발행사들을 위해 수시 검정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5. 교과서와 자료집을 구분하여 제작하고 전자 북 시스템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

현행 교과서는 학습 주제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자료가 총망라되어 있어 그야말로 백과

교과서를 편집하는 사람은 집필자 못지않게 학습 내용을 꿰뚫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자료 수집과 선별에 예리한 감각을 발휘하는 동시에 이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아름답고 다채로운 그릇에 학습 내용을 담아 내는 탁월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사전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의 면 구성 측면에서 본문 내용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움 자료들의 상당 부분은 시기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 작성하거나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일이 연례 행사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 단위의 빠른 변화 속에서 생활합니다. 교과서의 도움 자료에 현실성을 불어넣고 종이에 인쇄하여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동안 그것은 벌써 옛 자료가 되어 버립니다. 특히, 사회 교과 관련자들에게 이 부분은 난제 중의 난제가 아닐 수 없으며, 실속도 없는 수정 작업의 연속 과정에서 지치고 회의가 들 때가 많습니다. 한편, 수준별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에 맞추어 단계별로 적용이 가능한 더 많은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를 종이 매체를 통해 실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이원화하여 본질적인 내용은 종이 매체로 전달하고, 나머지 자료는 인터넷에 올려 자료의 신속한 대체와 보강 및 수요자의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과서에 이러한 전자 북 시스템을 적용하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맞춤형 교육, 실용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6. 가격을 현실화하여 양질의 교과서 개발에 대한 의지를 높여야 한다

수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현행 교과서의 판매 가격을 처음 접했을 때, 교과서 발행사들과 집필진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전에 비하여 교과서의 가격이 수배 올랐지만, 책의 질에 비해서는 형편 없이 낮은 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란 이윤 추구의 대상이 아니며, 어린 꿈나무들의 참교육 실현을 위한 사명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교과서를 직접 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교과서의 검인정제와 자유발행제로 나아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연차적 개발과 까다로운 검정 심사, 장기간의 집중 작업에 따른 피로 누적, 투자 비용 회수의 불투명성 등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 관련 발행사들과 집필자 및 편집자들이 끝까지 버텨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사명감과 긍지가 바탕 깊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발행사들은 정부나 정부 출연 기관처럼 운영될 수 없습니다. 수익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기업인 것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웬만한 책들의 가격이 1만 원을 훌쩍 넘는 것과 비교하면 현행 교과서의 가격은 너무도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사기 진작과 의욕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교과서 가격의 현실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 7. 첫 전시본 제작 이전에 공신력 있는 각 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입각해 개발된 현행 교과서들은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들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엄격한 심사를 받았으며, 비용도 만만치 않게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교수 자료로 사용되는 도중에 시도 때도 없이 여러 기관의 검토가 행해지고 오류 지적 및 수정 요구가 잇따르는 것은 줄속 행정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 각계 각층의 관심이 큰 사회 교과서의 경우에 국회, 법무부, 건설 교통부 등 수많은 기관과 부서가 각기 자신들의 시간에 맞춰 교과서를 검토하고 내용상의 이견을 제기하거나 오류를 지적합니다.

교과서를 집필하거나 심사하는 사람들이 모든 정책 변화와 세부 사항에 통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담당자나 전문가의 협조가 절실하며, 또 잘못된 내용은 바로 잡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절차는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과서의 당락이 확정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관련 기관들이 검토를 마치게 하고, 이를 발행사들에게 통보하여 일시에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교과서 채택을 위한 첫 전시본 제작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옳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실시되는 교과서의 수정 작업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계획이 필요합니다.

#### 8.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 담당 편수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수관 1인이 관리해야 할 책이 적게는 수십 종에서 많게는 몇 백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회만 해도 한 명의 편수관이 여러 발행사의 중학교 교과서와 부도, 교사용 지도서, 고등 학교 사회 계열 각종 교과서와 지리 부도 등 총 100여 권이 넘는 도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교과서는 사회 변동을 민감하게 반영해야 하는 까닭에 잦은 검토가 필요하며, 수정 내용 또한 개편에 가까울 만큼 방대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통합 교과라는 특수성 때문에 편수관 한 명이 전 분야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 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아 변경 사항이 미약한 교과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회 교과서의 경우에는 편수관의 적체된 업무 때문에 수정을 위한 대기 상태가 너무 길어 다른 일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한국검정 교과서협회도 교과서 개정 전시본 제작 과정에서 작업을 중단한 채 장시간 기다리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각 교과서의 성격에 맞게 적절한 편수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내용 검토 및 수정,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현행 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의 넘침과 모자람

■ 글 / 황충일 (학익여자고등학교 교사, 문학 평론가)



## I. 국어 교육,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이 명제는 다소 오만한 질문이다. 그러나 이는 현행 국어 교육에 대한 하나의 반성적 시각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 국어 교육은 교과목의 특성상 국가 이데올로기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통제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이는 국어 교육에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치중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즉, ‘무엇을’, ‘왜’ 교육해야 하는가라는 터부시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전제, 또는 미리 주어진 상태에서 현장은 단지 ‘어떻게’라는 방법적 측면에만 매달려 왔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모국어 화자라면 특별한 훈련이 없이도 일상적인 의사 소통에는 큰 장애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모국어 화자가 올바른 언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국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 하

면, 언어란 주체의 구성 요소(J. 라캉)로서, 사회의 실재를 창조하거나 구성하며(M. A. K. 할리데이), 각 민족마다 부여받은 내부 형식의 창조적 생성(H. J. 헤르터)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는 단순히 지시 또는 표현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정신성을 갖는 사변적 존재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전체적인 의미 연관을 개시하는 보편적 특성을 갖는다. 이처럼 국어에는 그 민족의 정신과 문화적 정체성이 고스란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언어 생활을 공식적인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교과목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을 전수함으로써,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 국어 교육이며, 이를 구체적인 교육 자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국어 교과서이다.

현재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편찬된 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는 9명의 연구진과 17명의 집필진, 15명의 심의진에 의해 개발되어 2002년 3월부터 현장에 보급,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10 학년 국어 교과서로 활용

현재 교단에서 사용되는 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크게는 교육과정의 이념과 국어과 교육의 목표, 영역별 단위 구성의 원칙과 평가 계획에 서부터 작게는 대단원 구성에서 학습 목표 - 준비 학습 - 알아두기 - 소단원 학습 활동 - 단원의 마무리 - 보충·심화 학습의 연관성과 위계적 배열, 그리고 세세하게는 부분적 진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의 문제점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제 1 차 자료인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한 자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교수·학습 과정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단에서 사용되는 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크게는 교육과정의 이념과 국어과 교육의 목표, 영역별 단위 구성의 원칙과 평가 계획에서부터 작게는 대단원 구성에서 학습 목표 - 준비 학습 - 알아두기 - 소단원 학습 활동 - 단원의 마무리 - 보충·심화 학습의 연관성과 위계적 배열, 그리고 세세하게는 부분적 진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의 문제점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우선 고등 학교 국어 교육의 관점을 보면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도모하며, 사회의 변화를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 교육’에 두고 있다. 이로부터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하며,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국어 교과서’를 그 편찬 방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과 방침은 편찬 과정에서 어느 정도 타당한 원칙으로 작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우리 앞에 그 결과물로 제시된 교과서에서는 애초의 의도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Ⅱ. 국어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

### 가. 교과서 열개의 문제

그 대략을 제 7 차 교육과정 고등 학교 국어(상), (하) 교과서의 대단원 구성 체계와 차례를 보면, 그 외형은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한, 활동 중심의, 통합적 교수·학습을 지향하는 교과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보다는 방법 중심의 국어 교육이 강조된 범교과적 도구 능력(15 개 대단원 중 10 단위 66.7%)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 소단원의 문예문 선정에서 상대적으로 고전 문학이 큰 비중을(18 개 작품 중 10 작품 55.6%) 차지하고 있으며, 언어 기능 중심의 지도 영역을 부각시킴으로써 사고 과정보다 활동 위주(소단원 활동 259 개 중 204 개 78.8%)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국어 교육이 안고 있는 두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된다.

체계적이며, 의도적이라는 측면에서 최근의 교육 일반과 언어 교육적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그 하나이며, 과거 국어 교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방법적 측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하나이다.

의구심은 비단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먼저 대단원의 성격과 목표가 제재 선정에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심하게 유리(遊離)된 경우도 적지 않다. 국어(상) '8. 언어와 세계'에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선정한 것이나, 국어(하) '5. 감동을 주는 언어'에 <관동별곡>을 선정한 것은 학습자에게 기본적으로 문자 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제재를 굳이 선정함으로써 학습 목표의 달성이라는 제재 선정의 원리를 손상시키고 있다. 국어(하) '6. 표현과 비평'에 <산정 무한>을 선정한 것 또한 문화적인 정체성을 무리하게 끌어 붙인 소치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 학습 과정과 활동의 배치에 유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어(하) '3. 함께하는 언어 생활'에 <역사 앞에서>를 선정한 것이 그렇다. 이는 언어 지식이나 문학적 요소를 중심에 배치하고 '알아두기'에서 이를 간략하게 이론적으로 정리한 다음, 본문을 읽으면서 교수·학습 과정 중간에 직접 연습하는 과정으로 진행함으로써 이론적인 배경 지식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필요한 기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본문 중간에 '알아두기'를 배치하여 학습 활동 수행에 요구되는 개념적·방법적 지식의 습득을 유도하고 단원의 구체적 국면에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일관된 학습 목표 도달을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학습 활동을 일률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다양한 교수·학습 장면에서 학습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의도가 과도하게 앞서기 때문이다. 물론, 교수·학습 과정이란 근본적으로 단계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과정에서

학습자는 부단한 상호 작용을 통해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경험을 축적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과정과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면 과정과 활동이 중복될 뿐더러 본문 학습에 방해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농후하다.

이처럼 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지나치게 의도에 집착함으로써 교수·학습의 각 장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과제들을 간과하고 있다.

#### 나. 국어 교과서 문제의 구체적 사례

다음은 국어 교육의 본령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사례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어떻게 읽고, 설명하며,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문학은 주지하다시피 자유로운 인간에 대한 독자적인 이해를 목표로 개인의 내면적인 정서를 다루는 특별한 영역이다. 따라서, 인간 행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개개인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감성의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총체적인 인간의 내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 국어와 교사용 지도서에는 이와 같은 문학의 목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이 느껴진다.

고등 국어(상) '6. 노래의 아름다움' 단원을 살펴보자. 문제의 부분은 “문학은 예술적 가치로서 아름다움(美)을 지닌다.”(p. 234, 알아두기)라는 설명과 “문학은 언어로 빛은 예술로서 아름다움을 지닌다.”(p. 246, 단원의 마무리)라는 문장이다. 이 두 문장은 문학의 특



국어 교과서에 실리는 글만큼은 다양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되  
 실용문의 경우, 글의 완성도와 문장의 우수성이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문예문의 경우에는 문학성에 입각한 작품 선정은 물론 원문주의가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 감동을 고스란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성에 대한 일반적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인하여 그 해석에 개연성이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왜냐 하면, 첫 번째 설명은 문학이면 모두 다 아름다움을 지니는 것처럼, 두 번째 문장은 언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지닌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무엇보다도 명시적이어야 할 학습 내용을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두 문장을 각각 “문학은 예술적 가치로서 문학적 형상화를 통하여 아름다움을 지닌다.”와 “문학은 언어로 빛은 예술로서 문학적 형상화를 통하여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일상 언어와는 달리 이미지, 비유, 상징, 역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장황하고 추상적인 의미를 명료한 이미지로 제시할 때 시의 아름다움이 실현된다.”(p. 246, 단원의 마무리)는 내용은 함축성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형상화에 대한 설명에 가깝다. 따라서, 이미지를 비유, 상징, 역설과 종속 변인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독립 변인으로 처리함이 온당할 것이다.

이제 개별 작품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작가는 소단원 ‘(4) 유리창(琉璃窓)’의 제재 활용 방안에서 “이 시에 대한 전기적 비평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아이의 죽음’ 모티프는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화자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게 된 시점에서 정보로 제공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교사용 지도서 p. 300)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로부터 학습 활동 1. 2의 예시 답안 ‘산문으로 바꿔 쓰기’와 ‘죽은 아이를 형상화한 비유적 표현 찾기’(교사용 지도서 pp. 301~302)는 일견 타당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I. A. 리처즈의 우려대로 ‘부적절한 연상’이나 ‘상투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소설에서 스토리를 요약하듯 ‘산문적 의역’을 통해 내용 이해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학습자의 다양한 상상력을 차단함으로써 시적 묘미를 그만큼 반감시키게 된다.

문학적 상상력은 작가 못지않게 독자에게도 중요한 요소이다. A. N.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공통 언어에 힘입어, 낱말들 속에 보존되어 있던 청자의 과거의 단편적인 기억들은 화자의 정합적인 문장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의 새로운 상상적 경험으로 재조직된다.”고 한다. 또, 상상적 공감력은 사고의 과정을 동반하게 된다. J. P. 사르트르의 지적처럼 “문학적 예술 작품은 자유에 호소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걸머지게 한다. 그것은 독자의 교화(敎化)를 통해서가 아니다. 작품을 재구성하는 미학적 노력을 요청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때, 진정한 ‘비판적 의식’이 형성된다. 따라서, 이 작품의 이해에서 작품 외적 정보에 해당하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전기적 사실은 가급적 작품 해석에 유의미한 범위 내로 엄격히 최소화되어야 할 터인데, '학습 활동' 전반으로 확장시키고 있으며, 학생들의 과거 경험을 인출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시행의 병치나 행간 도약, 또는 그 분절 배열 등으로 우리 현대 시문학사에서 자유시의 한 개성을 운율적 특징으로 집약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작품을 전기적 사실 하나만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훌륭한 '비평적 독자'로 우뚝 서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디 이뿐이겠는가?

### Ⅲ. 국어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예로부터 우리는 문사적(文士的) 전통이 강한 민족이었다. 아흔의 나이에 도적을 감화시킨 신라의 영재(永才)가 그러했고, 황소의 난을 평정한 최고운(崔孤雲)이 그러했으며, 고려 시대 강동 6주를 복속시킨 서희와 몽골군의 침입을 진정표(陳情表)로써 격퇴한 이규보의 문장이 그러했다. 그리고 조선 시대 근대사회를 예감한 연암(阮巖) 박지원과 구한말 일제 강점을 비분강개한 황매천(黃梅泉)이나 항일 구국의 필봉을 휘둘렀던 위암(韋庵) 장지연의 문장 또한 그러했다. 어찌 이들의 문장이 주는 감동과 비판 의식이 '관동별곡'과 '산정 무한'에 뒤진단 말인가? 김유정에 비해 이효석의 운문적 표현 또한 이에서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원으로 성장시키고 한국인의 삶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국어 활동 능력의 향상을 지향한다는 함의(含意)에도 불구하고 '구운몽'과 '춘향전'만으

로는 가치관의 다양성 확보를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국어 교과서에 실리는 글만큼은 다양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되 실용문의 경우, 글의 완성도와 문장의 우수성이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요, 문예문의 경우에는 문학성에 입각한 작품 선정은 물론 원문주의가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 감동을 고스란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영상 매체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문학의 급속한 왜소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는 '영상 시대'에 삶의 원초적 형상을 언어 문화적으로 재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평가가 교육의 전 국면에 영향을 끼치는 교육 현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

이제 국어 교육의 패러다임은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바뀌는 교육과정과 그 구체적 실현태(實現態)로서의 교과서가 체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경색된 교과서관이나, 교과서를 통해 국어 교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박 관념, 나아가 교과서 만능주의 또한 하루속히 떨쳐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평가의 다양화는 물론, 구술 심층 면접과 논술 고사 등 대입 선발 평가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다문화 다매체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개성적 인간을 양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그나마 좁아진 국어 교육의 설자리마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연**

# 오스트리아의 학교 제도와 교과서 제도

## — 교과서 제도(II) —

■ 글 / 발터 덴서(Dr. Walter Denscher 오스트리아 교육과학문화부)

### 1. 역사적 배경

오스트리아의 교과서 시대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1772년 일반적인 의무 교육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연방 출판사의 선구자격인 ‘독일 교육 기관 출판사’를 설립하였으며, 군주국(제국) 내의 모든 언어를 사용하여 유리한 가격으로 교과서를 만들어 확실하게 배포하는 데 기여했다. 또, 그녀는 교과서의 10%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1850년에는 사설 출판사가 (중등)인문 학교를 위한 교과서를 간행했으며, 1869년에는 제국초등교육법을 만들어 초등 학교용 교과서를 간행하였다.

### 2. ‘신교과서 활동’과 교과서 개혁

‘1 학년부터 13 학년까지의 모든 남녀 학생들은 필요한 교과서를 무상으로 받아야 한다.’는 가정자녀수당법(아이가 많은 가정에 대한 지원법으로 출발)의 개정 법률안이 1972년에 확정되었다. 1975년에는 학생당 교과서 대금의 한계(상한 금액)를 규정하였으며, 또 1998년에는 개정 법률안에 의해 가정자녀수당법과 학교교육법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데, 그 개정 법률이 ‘(신)교과서 활동’이다. 여기서 각국의 검인정 제도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교과서의 검인정은 때로는 계몽주의적 입장에서 설명이 되고, 검열의 수단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비해 품질 보장이라는 조치로 보는 측면도 있다. 덴마크나 스웨덴처럼 검인정 과정이 없는 자유 발행제를 택하는 나라도 있지만, 노르웨이나 핀란드처럼 검정제와 국정제가 각기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도 있다. 미국에서는 22 개 주가 인정 과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는 각 주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출판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국정과 자유 발행제를 병행하고 있다. 독일의 16 개 주(분데스란트)는 모두가 검정 과정을 갖고 있으나, 검정의 법적인 토대는 서로 현저하게 다르다. 오스트리아의 교과서 검정 제도를 닮은 매우 잘 발달된 교과서 검정 제도가 일본에 있다.

‘신교과서 활동’은 1998년 1월 가정자녀수당법의 개정 법률안에 의해 생겨났으며, 1998년 봄에는 연방 환경-청소년-가정부(현재는 연방 교육과학문화부)와 출판업자 및 서적상 사이에서 향후 5 년간의 계약으로 확립되었다.

#### 가. 총비용과 기본 부담금

‘신교과서 활동’의 총비용은 연간 110만 명의 남녀 학생에 대해 약 9억 3000만 유로가 투입되며, 상한 금액은 해마다 연방 교육과학 문화부의 규정으로 결정한다. 또, 대부분의 교과서가 형태별로 해마다 상한 가격을 새로 정한다. 장애 등의 이유로 특별 교육 대상의 학생을 제외, 모든 학생들은 새 교과서에 대하여 각급 학교별로 정해진 금액의 10%를 기본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오스트리아의 학교는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으며, 특히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체계가 그러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학교 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과서의 분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즉, 다양한 학교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고유한 교과목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적으로 상응하는 다른 계열의 교과서를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주문할 수가 있다.

#### 나. 보조 목록의 작성

1972년도에 가정자녀수당법의 개정 법률안이 확정되었을 때, 검정받은 교과서가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약 1050여 종의 많은 교과목이 있었다. 그리고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기술·경영 전문 학교 중 200개 이상의 실습 학교에서는 검정을 받은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학생 수가 너무 적은 이유로 인해 실제로 이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전문 서적의 목록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목록에는 검정을 받지 않은 교재들이 포함되었으며,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을 채택하고 신청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1998년도 이래로 직업

학교의 보통 교과목과 일반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목록 이외에 보조 목록이 만들어졌는데, 이 보조 목록에는 인쇄물인 교재 이외에 CD와 CD-Rom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다. 강의 교재의 범위

전공별로 분류한 교과서가 모든 상황에서 현대 강의를 충실하게 실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지난 해에 수많은 논의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제 31조 a항 1절 법률안 개정 때에 예방책이 생겨났다. 즉, 학교에서도 고유한 선택 강의 교재를 주문할 수 있게 하였다. 강의 교재에 대한 새로운 법조항에 의하면, 공적인 목록에는 없으나 강의에 필요한 교재로서 학교에서 확정한 것으로는 ‘인쇄된 교재’, ‘시청각 교재’, ‘자동 전산 자료’, ‘학습 놀이 기구’ 등이다.

#### 라. 교사용 도서와 견본책

출판사가 교사에게 교과서 선정(채택)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책을 보고 교과서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다. 흔히 출판사가 자신의 경험에 의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선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출판사가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사용 도서는 교과서 목록에 있는 것들이다. 보통 5명이나 그 이상의 학생용 교과서를 주문하는 경우에 교사용 도서가 무료로 제공된다. 또, 교과서 목록의 보조 목록에 있는 교재는 (교사용으로 제공될 경우) 출판사가 할인 가격으로 공급한다.

### 3. 검정 제도

#### 가. 학교 강의법

학교 강의법 제 14조와 제 15조에 의해서 1974년 9월 1일부터 학습 교재의 적합성을

규명하기 위한 교과서검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출판사와 저작자들은 학교 강의법을 토대로 상호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회의에 초대받기도 한다. 이 회의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특히 저작자와 검정심의 위원회 간에 근본적인 견해차(見解差)가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협의, 해결을 하고 있다.

#### 나. 검정 업무 활동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동안 활동할 교과서검정심의위원회의 수는 31개에 달한다. 이 위원회는 그 때마다 해당 교과목의 전문가들을 소집하여 교과서를 검정하는 일을 행하며, 여기에는 여러 유형의 포괄적인 교과서심의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1974년부터 시작된 일의 경험에 따라 2만 건이 넘는 사안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검정 업무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즉, 수년 간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전념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능력이 신장되었고, 그 밖에도 위원장의 조직적인 수완과 기록 담당자의 효과적인 일처리로 최선의 업무 처리 능력이 향상되었다.

교과서별로 보고자의 수는 평균적으로 약 1.9명에 달한다. 보고자가 소견을 제시하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람직하며, 상이한 교육과정을 수정하거나 학교에서의 유사한 강의 경험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도 아주 중요하다. 한편, 각 위원들이 특별한 전문 영역에 필요한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이 분야에 전문가에게 심의 계획을 위촉하는 경우에, 전문가들과의 업무 유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의 평가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초본 심사본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4개월, 수정 심사본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약 2개월의 기

한이 주어진다. 그리고 제9조에 언급된 ‘원고의 판단 기준’은 1974년 이래로 본질적인 면에서 바뀌지가 않았다. 최근의 개정 법률안인 교과서 분석의 기본에 대해 ‘학생의 이해력에 따른 난이도의 조절(학생의 수용 능력, 흥미, 필요성, 가능성과 관련한 강의 교재의 적합성)’이라는 구절이 삽입되었다.

지난 해 발행된 교과서 개정판을 보면 문장의 길이, 어려운 낱말의 수, 사실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한 점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으며, 텍스트는 짧은데 판형이 큰 책, 본문은 적고 비교적 삽화가 큰 책을 학교에서 점차 선호하고 있었으며, 출판사도 그런 쪽으로 편찬을 지향하고 있다.

#### 다. 교과서의 검정 항목

##### ① 교육과정의 적합성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및 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적합하여야 한다. 하우프트슐레(초등 학교 4년을 마치고 가는 직업 중등학교, 단순 직업 교육을 뜻함.)와 AHS(일반인문 중고등학교)를 위해 1985년도에 개정한 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 목표가 교육 내용에 비해 상위 개념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학습 내용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여하며, 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성이 부여받을 수 있으며,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며, 나머지 다른 과제는 다른 교재에 의해서, 교사 자신들을 통해서, 수업 종결부의 도움으로 성취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심의평가위원회는 교육과정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시해야 한다.

##### ② 자발성

15~16년 전에 (자발성이라는) 이러한 요구는 종종 교과서를 ‘(학생들이 스스로 풀어나가는) (스스로 푸는) 활동 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과서에 빈 칸을 두거나 빈 줄을 만들어 텍스트를 삽입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실제로 교과서의 이러한 형태는 초등 학교에서 그리고 직업 학교의 경영학 교과목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우프트슐레(직업 중등 학교)에서 그리고 AHS의 저학년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로 본문 부분과 연습 부분을 분리하는 형태의 교과서가 널리 사용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교과서는 외국어 교과서인 경우에 적용되며, 다른 교과목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외적 체제는 중요하지가 않다. 저작자가 본문을 쓰거나 삽화를 그릴 때 그들이 종종 학생들이 자신의 책으로부터 어떤 인식을 받을 것인가, 어떤 능력과 어떤 솜씨를 습득할 것인가, 지식의 어떤 것을 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사실이 본질적이라 할 것이다.

### ③ 난이도

본문의 난이도를 고려한 교과서 심사는 지난 10년간 심의 대상의 주요 항목이었다. 특히 ‘학습 연구 및 학습 과제’와 관련하여 난이도 심사는 중요하다.

### ④ 정확성

정확성의 심사는 당연한 것으로서 그것에 접근하고 도달하기까지의 심사 과정은 힘든 일이다. 평가의 본질적인 부분은 객관적인 결함을 드러내 보이려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새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 원고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달리 정확성에 대한 이의(異義)가 명백히 많다.

### ⑤ 유럽의 관계

오스트리아 출판사의 원고에는 이론(異論)

이 적다. 1998년도의 개정 법률안에서는 ‘유럽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확대된 바 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생활 세계, 노동계 등의 내용도 정당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⑥ 국민의 교육, 법규

국민이 받아야 할 의무 교육이나 법률적 지식에 대하여 위반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 ⑦ 언어적 구성

언어의 정확성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타나는 문장의 길이, 전문 용어, 사실성 및 그 밖의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각 연령대별로 학생들의 언어 이해도를 파악한다.

### ⑧ 합목적성

심의위원회는 교과서의 부피와 판형, 서체의 크기, 제본, 삽화의 개수와 종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교과서로서의 합목적성을 판단한다.

### ⑨ 남녀 동등

1998년에 이 규정(법령)이 새롭게 수용되었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몇 번의 전체 회의가 있었다.

### 라. 검정 심의 위원회의 적합성

#### ① 제출된 심사본의 적합 판정

이것은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 ② 수정본의 적합 판정

수정본 중 아주 소수가 적합 판정을 받는데, 이 교과서는 인쇄할 때나 다음 번 개정판을 찍을 때 수정 지시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출판사에 송부된다. 그리고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출판사의 심사본은 그 사실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입장 표명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런데 여러 군데의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검정 심의 위원

회로부터 종종 (새로 고쳐 써서) 다시 제출할 것을 권고받는다. 이러한 일은 BMUK(교육부)에 의해 일어나며, 수정된 원고는 짧은 기간 동안(약 두 달 동안)에 김정 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③ 부적합 판정

부적합 판정은, 모든 유형의 학교를 대상으로 편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토대로 볼 때 몇 학교에 유효하다거나, 난이도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아주 극소수에 적합한 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교재로 제출된 경우에 흔히 일어난다.

## 4. 2004~2005년의 교과서 편찬, 발행

교과서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2002년 11월 1일까지 제출한 것과 보조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2002년 12월 1일까지 제출된 모든 심사본(교과서나 원고)은 2003년 3월 31일 안에 김정 업무가 완료된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토대로 하는 특례의 교과목 중에는 2003년 6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심사본도 있다. 교과서 내용의 심사, 교과서 목록의 작성, 학교에서의 선정(채택), 교과서의 생산·공급을 학기 초에 맞추어 확실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심사 기간을 넉넉하게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2003년 11월 후반기에 19,000여 심사본을 토대로 교과서 목록을 작성하고, 2004년 3~4월에 교과서 선정을 준비하며, 2004년 1월에 교육부를 통해 2004학년도분과 2005학년도분 교과서 목록을 각 학교에 발송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새 학기를 맞는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제때에 공급받게 된다.


## 5. 앞으로의 교과서 전망

교과서의 발행·공급 과정은 2008년까지 연

방 교육과학문화부에 의해서 출판업자 및 도서 판매업자 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지속된다. 한편, 학교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교과과정을 재구성하는 경우와 직업 학교에서의 전공 부문으로 보조 목록에 추가되는 교재가 증가될 때에는 교과서 목록에 있는 교과서의 주문량은 감소하게 된다.

교과서 선정 후에 강의 교재를 주문한 상황을 보면, 그 규모가 3년 동안에 5%에서 10%, 10%에서 15%로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시청각 교재 및 전자 교재의 주문이 강화되고, 학교 소장 도서에 수업 중 읽을거리를 보충하였기 때문이다.

교과서와 관련된 최근의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으며, 국제적 분야에서 폭넓게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 활동 중 많은 부분이 교육 목표 설정과 교육 내용 전개로 인해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교과서가 지녀야 할 학습 내용을 어느 것으로 선정할 것인가와 그 게재 분량에 대해 교육 당국과 저작자 및 출판사는 국가 사회적, 교육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그런 의미에서 각 출판사는 늘 학교에 설문 조사를 하여 교육적으로 교과서의 위치를 찾아야 하고, 왜 우리 출판사의 교과서 주문이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 그 이유를 보다 정확하게 알고 개선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10년간에 교과서가 발달한 과정을 보면, 먼저 교육학자의 창조적이고 조직적인 교과서의 편찬 체제를 들 수 있다. 즉,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무엇보다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였으며, 현장 수업에 적용되는 좋은 제재를 선정하였다는 사실이다. 

## 제 5 차 교육과정기의 국사 교과서 파동

**제** 5 차 교육과정기에 일어난 국사 교과서 파동은 필자뿐 아니라, 문교부 편수 진영이 가장 곤욕을 치렀던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에 국사 교과서 문제는 학계는 물론 세인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연일 언론에 주요 화제로 등장하였고, 정치권에서까지 개입하여 필자를 어렵게 하고는 하였다. 이러한 국사 교과서 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제 5 차 교육과정기에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필자가 편수관으로 부임한 1980년 이전인 1970년대(1976년)에 이미 안호상 씨를 중심으로 한 재야 학자들이 대학 강단에 몸담고 있는 기존학계의 학자들을 식민주의사관론자들과라 공격하면서 비롯되었다. 그 뒤에도 이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기존 학계의 연구 산물인 국사 교과서를 표적 삼아 정부에 건의서 제출, 법정 제소, 국회 청원 등 그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 파상적인 공격을 계속하였다. 이로 인해 국사 교과서 개편시에는 정상적인 편수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담당 편수관이 곤욕을 치르고는 하였다. 필자도 편수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교과서 소송 건으로 법정, 국회 청원 건으로 국회 문공위원회로, 또 이런 문제들로 청와대로, 정당으로 수도 없이 불려 다니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더욱이 제 5 차 교육과정기에는 재야 학자들은 전직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민족사 바로잡기 국민 회의’라는 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인 국사 교과서 개정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필자에게 엄청난 시련을 안겨 주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국사 교과서 파동과 관련된 것 중 제 5 차 교육과정기에 국사 교과서 편찬 업무와 가장 관련이 컸던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 제정에 관한 전후의 전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조선 일보가 국사 교과서 파동 촉발하다

1986년 8월은 제 5 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 최종적인 작업으로 필자를 비롯하여 편수 진영이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시기였다. 이런 와중에 조선 일보의 광복 특집 기획인 ‘국사 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는 연재 기사가 등장, 그 동안 소강 상태에 있던 국사 교과서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세인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조선 일보는 연재 기획 첫 기사를 8월 15일자에 일면 톱 기사로 ‘국사 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는 표제 밑에 부제로 ‘일본의 역사 왜곡 이길 고대사 교

■ 편수관 / 박재홍 (전 노예문제연구소장, 노예문제연구소장)





육 시급’, ‘삼국 건국 연대, 시조(始祖) 등 증발’ 등의 자극적인 표제를 달고 있었다.

이 기획 기사 시리즈는 11 회까지 연재하고 총정리로 ‘한국사의 새 지평을 열자’라는 제목으로 고고학, 역사학, 인류학, 언어학, 사회학 등 관련 학계의 견해를 시리즈로 묶어 몇 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이 시리즈의 주요 내용은 우리 나라의 기존 역사학계가 식민주의 사관에 물들어 일본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우리 역사를 그대로 국사 교과서에 쓰고 있으며, 이것이 국민 교육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니, 이를 시정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국사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재물이 나오자 문교부의 장·차관은 물론 청와대, 민정당(당시 집권당)에서도 깊은 관심을 표하였고, 재야 학자는 물론 정관계의 많은 인사들이 이 기사와 관련된 교과서 내용 문제에 대해 진위 여부와 앞으로 이에 대한 문교부의 대책에 대한 힐난성 질의가 계속되어 필자를 무척 피곤하게 하였다.

필자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 동안의 학계 연구 업적을 총정리하여 새 교과서에 수록할 내용과 체계표를 담은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국사 교과서 개편 작업을 하도록 하는 기본 구상을 하였다. 그 때까지 국사 교과서 편찬의 준거가 되었던 것은 1963년에 만든 ‘국사 교육 내용 통일안’으로, 이는 당시 문교부가 학계의 중지를 모아 만들어 ‘편수 자료’에 수록한 준법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다.

## 2. 국사교육심의위원회 구성하다

필자는 새로운 준거안을 만들기 위해 국사학계의 각 분야 전공자 및 현장 교사로서 가칭 ‘국사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이 내용을 심의 확정하게 하는 구상을 하고 시대별, 영역별 전공자를 중심으로 후보를 선정, 오랜 고심 끝에 30 명의 위원을 확정하였다.

이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에 변태섭(서울대학교) 교수를, 부위원장에 김정배(고려대학교) 교수를 선임하고 회의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체 회의와 5 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 **고고미술분과** : 손보기(연세대학교), 윤무병(충남대학교), 김원룡(서울대학교), 김정배(고려대학교 겸임), 정영호(한국교원대학교), 안휘준(서울대학교), 박용진(해화여자고등학교 교장)
- **고대사분과** : 문경현(경북대학교), 이기동(동국대학교), 신형식(이화여자대학교), 윤내현(단국대학교), 김정배, 박성수(정신문화연구원 겸임), 변태섭(서울대학교 겸임)
- **중·근세사분과** : 변태섭, 하현강(연세대학교), 박용운(고려대학교), 한영우(서울대학교), 원유한(동국대학교), 송준호(전북대학교), 이원순(서울대학교 겸임)
- **근·현대사분과** : 이광린(서강대학교), 유영익(한림대학교), 이현희(성신여자대학교), 박영석(국사편찬위원회), 조동걸(국민대학교), 박성수
- **역사교육분과** : 강우철(이화여자대학교), 이원순, 윤세철(서울대학교), 김흥수(춘천교육대학교), 박용진(겸임), 김광남(국사편찬위원회), 김정익(한양여

자대학), 최병도(서울고등학교), 문경현(겸임)

또, 이와는 별도로 위원 중에서 연구안을 만들어 낼 연구 실무 팀으로 변태섭 교수를 대표로, 고대사에 이기동·신형식 교수, 중세사에 박용운 교수, 근세사에 한영우 교수, 근·현대사에 조동걸 교수, 역사 교육에 김흥수 교수를 선정하였다.

국사 교육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에 부응하여 모든 언론 기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를 기사화하였다. 특히, 조선 일보에서는 사실과 변태섭 위원장 인터뷰 기사를 한 면에 걸쳐 싣고, 이를 뒤에는 ‘문교부 교과서 개편 착수 30인 위원 위촉’, ‘고대사 대폭 강화 국사 교육 혁신’이라는 주제 밑에 위원들의 사진과 함께 해설 기사를 수록하였다. 심의 위원 명단이 발표되자 재야 학자들은 국회 의원 및 각종 단체를 동원하여 각종 방법으로 필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왔다. 이들 압력의 주된 내용은 심의 위원에 재야 학자들이 배제되었고, 일부 위원이 식민주의 사관에 물든 학자들이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정치인들을 앞세워 직접 문교부를 찾아와 장관을 만나고 필자를 장관실로 호출하여 항의도 하고 집회도 열고, 언론 기관을 동원, 자기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필자의 퇴진까지 요구하고는 하였다. 이들의 주장이나 행태에 대해 필자는 위원 선출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였기에 일관되게 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해 나갔다.

이 연구 팀에서는 연구 팀 전원이 3일 동안 합숙 작업을 하면서 각 시대별로 전공자가 제시한 항목을 놓고 하나하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며 문장까지 수정·보완하며 최종적으로 고대사 부분 10 항목, 중·근세사 부분 4 항목, 근·현대사 부분 5 항목 도합 19 항목의 준거안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시안을 가지고 각 분과 위원회별로 열띤 토론과 심의 과정을 거쳐 각 분야별 안을 확정하였다. 분과 협의회가 열린 곳은 중앙교육연구소의 협의 회의실로, 위원들은 교대로 앞으로 나와 칠판에 필요한 인용문을 써 가면서, 또 지도에 위치를 짚어 가며 자기 주장을 하였다. 주장 중간중간에 날카로운 질문이 계속되어 회의장 분위기는 열기로 가득 찼다. 특히, 고대사 분과회의는 4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재야 측에 가까운 학설을 주장한 윤내현 교수와 이기동·김정배 교수 간에 열띤 논쟁으로 합의점을 얻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큰 흐름은 실무 연구 팀 안으로 확정되었다.

### 3.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 시안 발표하다

각 분과 위원회에서 나온 수정 의견 등을 종합·정리하여 이를 다시 실무 팀에 넘겨 집중 작업을 통해 편찬 준거안 시안을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전체 회의 회부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총 24개 항의 최종 시안을 확정, 이를 1987년 3월 25일 발표하였다. 다음 날, 중앙지의 모든 신문 1면에 주먹만한 활자로 제목을 뽑아 톱 기사로 보도되었다. 기사 제목으로 조선 일보는 ‘고조선 중심지를 만주로’, ‘국사 교과서 개편 시안 단군 삼국 건국 사실(史實)로’, 경향신문은 ‘단군 사실(史實)로, 고조선은 만주까지’, 중앙 일보는 ‘단군 신화를 사실로 반영’, 한국일보는 ‘민족사관의 확립’ 등으로 붙이고 모든 신문이 해설 기사로 한 지면을 할애하고 각 신문이 사실로 다루었다.

또, 다음 날부터는 대부분의 신문들이 학계의 중진 학자를 동원, 특별 기고라는 이름으로 이 시안에 대한 논평을 수록하였다. 한국 일보는 이기백 교수, 박성수 교수, 천관우 고문의 글을, 조선 일보는 변태섭 교수의 글을, 동아 일보는 이회덕 교수의 글을, 새한 신문은 윤내현 교수의 글 등을 실었다. 이 중에서 박성수 교수의 글만 부정적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다뤄 주어 필자를 한시름 놓게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재야 측의 관심과 이에 대한 파상적인 공세가 더욱 심해져 정말 자리를 지키기가 힘들 지경이었다. 더욱이 1986년 10월에 '민족사 바로잡기 국민회의'가 조직되면서 옛날과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그 이전까지는 안호상 박사, 박창암 장군이 주도하는 '자유지', 서울대학교 박시인 교수 등 거의 개인적인 활동에 의존하였다. '민족사 바로잡기 국민회의'는 윤보선 전 대통령을 의장으로 부의장에 이종찬 국회 의원(민정당 민족사관 정립 추진 위원장), 정성태, 윤태림, 구상, 김은호 등, 고문에는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최규하, 김동리, 윤치영, 이회승 등, 당시에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지도급 인사들, 위원으로 저명한 교수, 국회 의원을 참여시켜 조직하였다. 이들은 윤보선 전 대통령 댁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정부 청사 옆에 사무실을 두고 상근 직원까지 채용,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 단체는 여러 곳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하게 받고 있는 것 같았고, 현실적으로 두 분의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여야 모든 정당이 참여하고 있어 그 영향력은 막강하였다. 이들은 수시로 문교부를 찾아와 장관을 만나고 뒤에는 필자의 방으로 몰려와 요구 사항을 내놓고는 하였다.

이들은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대통령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진정서는 이 회의의 의장인 윤보선 전 대통령 명의로 변태섭 위원장을 비롯하여 반수 이상의 의원을 거명하며, 이들은 식민주의사관에 물든 매국노이니 교체하라고 하였고, 여기에는 이 회의의 고문, 의장, 부의장 모두가 서명한 것을 첨부하였다. 이 진정서는 전직 대통령 모두와 여야 정당 대표 모두가 서명하였기에 문교부 장관이나 청와대나 집권당인 민정당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는 하였다. 어쨌든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 제정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갔다.

국민회의 측에서는 자기들의 주장이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자 문교부의 실무자, 국사교육심의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을 요청해 왔다. 필자는 이들과 몇 차례에 걸친 대화 경험을 통해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대화를 회피해 보려고 하였으나, 국정자문회의 의장인 윤보선 전 대통령의 국사편찬위원회(국편) 방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식으로 요청해 온 데다가 민정당의 민족사관 정립추진위원회에서도 이를 적극 추진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간담회 장소는 국편으로 하고, 문교부에서는 예우상 장·차관이 나와야 한다고 하였지만 곤혹스러운 자리라 장학편수실장과 필자가, 국사교육심의회 위원들은 아무도 참여하려 하지 않아 이들과 비교적 사이가 괜찮은 김정배 부위원장과 국편위원장이 참여하였다.

간담회 의장에는 중앙에 윤보선 전 대통령이 앉고, 좌우 의자에 양쪽 진영 사람들이 앉았다. 문교부 측은 장학편수실장, 국편위원장, 김정배 부위원장, 필자 네 사람인 데 비해 상대방은 30여 명이 포진하여 마치 항복 조인식장에 나온 승전군같이 기세등등한 자세였다.

어쨌든 이들의 과장적인 질문 공세를 고대사에 관한 것은 김정배 교수가, 역사학계에 관한 것은 박영석 국편위원장이, 국사 교과서와 국사교육심의회에 관한 것은 필자가 맡아 차분하게 대답하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 시간에 걸쳐 많은 사람이 종전에 재야 측이 주장하였던 내용을 반복해서 격렬하게 주장하고 공격하니 자리에 앉아 있기가 곤욕스러웠다.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팔을 걷어붙이고 폭력이라도 행사할 것 같은 자세로 소리를 높이곤 하였다. 1987년에는 이러한 유사한 행사를 몇 번씩 거치는 흥역을 치러 가며 편찬 준거안 작업을 진행하였다.

#### 4.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 확정하다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 시안 발표 후, 이 시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제기되었다. 주로 재야 학자와 현장의 역사 교사들이 중심이었는데 대부분 고대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필자는 제기된 의견을 정리하여 회의 자료를 만들고 이를 전체 회의에 부의하였다. 이 수정안을 놓고 한 조항씩 심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고 문장까지 다듬어 나갔다. 많은 의견들이 나왔지만, 대체로 수정 원안의 자구 수정 정도로 정리되었다.

필자는 전체 회의에서 논의 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준거안을 정리하여 이를 국사편찬위원회에 이송하였다. 국편에서는 이를 놓고 두 차례나 국편 회의를 소집,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검토 의견서를 보내 왔다. 필자도 두 차례의 국편 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회의 과정을 지켜 보았지만 국편 위원 과반수가 국사교육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그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의견이 오고 갔지만 큰 문제 없이 의견이 정리되었다. 국편에서 보내 온 의견서는 기존의 통설에 상당히 변화를 주었다. 즉, 고조선의 개국 기원은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 가능하다는 세계 학계의 통설에 바탕을 두도록 하였고, 기자의 실존을 부정하고 한군현에 대하여 한국사의 주류는 아니지만 이를 삼국의 발전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필자는 국편에서 보내 준 검토 의견서를 중심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이를 전체 회의에 부의하였다. 회의는 큰 격론 없이 국편 의견을 대체로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회의가 끝나자 근 1년여 동안의 고뇌에 찼던 모든 일이 마감되는 홀가분한 기분에 취했다. 이 최종안을 정리하여 6월 4일 장·차관 결재를 맡았다. 이로써 지난 해 8월부터 시작되었던 국사 교과서 파동의 한 매듭을 맺게 되었다.

1987년 6월 5일, 최종안 35 개 항을 발표하였다. 이튿날, 모든 일간지가 1면 톱 기사로 싣고 해설 기사와 사실로 다루었다. 이 중 조선일보는 ‘고조선이 최초 국가 명시’, ‘기자 조선의 변혁설 삭제’, ‘백제 중국 진출 부각’, ‘주체 사관 입각 기술’ 등의 제목을 달았고, 대부분의 신문도 비슷한 제목에다 비슷한 내용으로 기술하였다. 이 중 중앙 일보의 사설을 보면 ‘한국사의 주체성 회복’이라는 제목 밑에 ‘이 같은 새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의 내용은 한국사의 주체성 회복과 국사학계의 학문적 심화의 양면을 수렴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라고 썼고, 조선 일보는 ‘금지’, ‘주체성’, ‘과학성’ 등으로, 그 밖의 대부분의 신문 사설도 공통적으로 긍정적으로 다루었다.

이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은 제 5 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개편되는 국사 교과서에 준법제적 성격을 갖는 준거안으로 국사 교과서 편찬에 내용 준거가 되었다. 이 준거안에 의해 국편에서 개발된 국사 교과서가 중학교는 1989년에, 고등학교는 1990년에 편찬, 발행, 공급되었다.


## 5. 에필로그

여기서 다룬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 문제는 단순히 교과서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나라 역사학계 전반에 관한 문제들이다. 그 간 우리 학계의 쟁점이 되었던 것은 주로 고대사 분야로 단군의 실존 문제, 고조선의 실존 문제, 기자 조선의 실체 문제, 한사군의 위치 문제, 삼국의 건국 문제, 백제의 중국 지배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들이기에 이를 교육용으로 어떻게 정리하여 교과서에 수록할 것인가는 어려운 일이었다. 다행이었던 것은 심의회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이 국사 교과서에 많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자기들의 학문적인 소신을 고집하지 않고 타협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던 점이다. 또, 문교부 장관을 비롯한 모든 인사들이 행정적, 재정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후원을 하였기에 좋은 결실을 얻어 낼 수 있었다.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 내용에 대해 뒤에 국사학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뒤에 나온 국사 개설서들이 대부분 이 준거안 내용을 따랐던 것으로 보아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단순한 교과서 준거안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국사학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 선도적인 업적을 남기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을 전후해서 일어났던 교과서 파동은 준거안 확정 발표로 일단 잠잠해졌지만 영뚱하게 기독교(주로 개신교)계의 시비로 새로운 어려움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편찬 준거안에 “단군 신화를 역사적 사실의 반영으로 파악하고……”라는 대목을 가지고 이들은 “단군 신화의 사실화는 우상 숭배이고, 우리 민족은 꿈의 자손이 된다. 어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꿈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철회를 요청해 왔다.

그리고 이들은 범교단적으로 ‘단군 실존화 국정 교과서 편입에 대한 대책 협의회’라는 기구를 발족시키고 전국적으로 반대 운동을 전개, 필자를 어렵게 하였다. 이들은 정·관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배경으로 필자에게 유형, 무형의 압력을 가하여 왔지만 준거안 철회 불가 이유를 내세워 가며 예정대로 교과서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기독교계의 반대 운동은 대종교를 비롯한 증산교, 한민족회 등 민족종교와 불교계의 성토로 ‘신화’나 ‘사실’이냐는 단순 논리에서 벗어나 각 교파의 신앙적 차원에서 논의되면서 이것이 교계의 새로운 싸움으로 확대되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일부 시민들의 비판 여론 등이 높아지자 개신교 측의 기세가 차츰 수그러들면서 이듬해(1988년)에는 잠잠해졌다. 

〈1980~1992 역사과 편수관〉



**제** 5 차 교육과정 시기, 국어과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은, 초등 학교에서의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교과서의 탄생과 고등 학교에서의 「고전 문학」, 「현대 문학」 교과서(제 4 차 교육과정 시기)를 「문학」 교과서로 통합하여 명실공히 ‘한국 문학’의 위상을 수립하고, 전통 단절론을 극복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가 1 교과 3 책으로 편찬된 배경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바른 생활」 이야기

제 5 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확정된 제 4 차 교육과정은 그 교과서의 편찬에서 학자들의 이상(통합 교육과정에 대한)과 현실(교과서 통합을 위한 실험 연구 등이론이 없었음)의 괴리, 그리고 집권 세력의 체제 유지를 지향한 가치 교육의 강조로 인하여 초등 학교 1, 2 학년에서 파행을 면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국어」 교과서가 없어지고, 「바른 생활」 교과서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바른 생활」 교과서에 대한 당시의 국어 편수관 최현섭 교수(경인교육대학교)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이 「바른 생활」 교과서는 교육과정 개정 방침에 따라서 국민 정신 교육을 주목표로 할 수밖에 없었다. 1 학년 학생들에게 국민 정신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정 선생님(정진권 선생님)은 몇 날 며칠을 연구하다가 언어에 의한 설명보다 이미지로 접근하기로 하고 1-1의 첫 단원에 우리 나라 자연 환경의 특징인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휘날리는 태극기를 배치하게 되었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서 일하는데, 일하다가 쉴 때에 문득 푸른 하늘을 보면서 태극기를 자연스레 연상하게 함으로써 조국을 생각하게 하려면, 말보다 이런 이미지 접근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낱말은 ‘파란 하늘에 우리 태극기’가 된 것이다. 문자 지도의 이론에서 보면 부적절한 게 틀림없다. 글자도 복잡하고, 1 학년 학생들에게는 뜻도 추상적이다. 문장도 완결문이 아니다. 그러나 국어 교과서가 없어지고 국민 정신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어찌 할 수 있을 것인가. (「편수의 뒷안길」 제 4 집. p. 39, 2003.)

그러면 뒤늦게 「바른 생활」 편찬에 합류하여 엄청난

고생을 한 정진권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자.

초등 학교 1, 2학년의 도덕, 국어, 사회를 통합해서 새로 교과서를 만든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교과서를 3등분 해서 도덕, 국어, 사회를 나란히 싣는다는 그런 물리적인 뜻은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세 교과와 내용을 흔적 없이 녹여서 한 교과서를 만든다는 뜻인데 그것이 가능할까? 이론상으로는 혹 모르지만 실현 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았다. 당시 국어과 담당이었던 최현섭 교수도 교과서 통합에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문교부에 다시 갔을 때에는, 일은 이미 결정되어 편찬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과서 원고도 집필이 끝난 뒤였다. 또, 그 전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일에 왈가왈부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 교과서 원고를 보니 여러 사람이 집필한 것이어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새로 다듬지 않으면 책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문교부에서 나를 부른 것은, 말하자면 그 원고를 다듬어 통합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나는 참 겁도 없이 그 일을 맡았다.

그런데 일을 맡고 보니, 이 세 교과와 통합 교과서를 위한 기초 연구가 없었다(이 일을 처음 맡아 했던 한국교육개발원에는 혹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구해 보지 못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교과서 통합을 어떻게 이처럼 이렇다 할 기초 연구 없이 할 수 있을까? 나는 적이 의아스러웠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교육과정이었다. 통합 교과서를 만들 생각이 있다면 먼저 교육과정부터 통합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교과별로 편성되어 있었다. 물론 교육과정이 교과별로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통합 교과서를 못 만들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세 교과에 통달한, 그리고 그 세 교과와 내용을 좋은 쌀과 좋은 누룩을 섞어 알맞은 온도로 발효시켜 향기로운 술을 빚어 내듯이, 그렇게 통합할 수 있는 노련한 편수관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 그런 편수관이 있겠는가? («편수의 뒀안길」 제 5 집, pp. 67~68, 2004.)

당시 한국교육개발원 국어교육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한철우 교수(한국교원대학교)의 말도 들어 보자.

통합 교육과정은 우선 저학년에서 시도되었는데, 교과서로 나타난 것은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었다. 바른 생활은 국어, 도덕, 사회가 통합된 교과서이고, 슬기로운 생활은 산수와 자연, 즐거운 생활은 음악, 미술, 체육이 통합된 교과서였다. 당시 통합 교육과정은 교육학 전공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주창하였고, 교과 분야 연구자들은 불만스러운 입장이었지만 그저 따라가는 형국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안타깝고 슬프기까지 한 일이지만, 당시만 해도 교과에는 소위 교과 내용 학자는 있었지만 교과 교육학자는 거의 없었다. 그만큼 교과 교육학 연구가 기초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국어 교육만 해도 당시에는 국어학과 국문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국어 교육은 국어 국문학으로부터뿐만 아니라, 교육학으로부터도 한 수 아래로 치부되는 터였다. 그만큼 학문적 토대가 약했던 것이다(«국어교육사랑」 상권, 대한교과서, pp. 8~9, 2000.).

원래 이 「바른 생활」 교과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일차적으로 개발을 하였는데, 문교부의 편수국장이 청와대 교육 비서관에게 국민 정신 교육용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고 재집필할 것을 편수관들에게 지시하면서, 문교부 담당자가 위원

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최현섭, 「편수의 뒀안길」 제 4 집, pp. 34~35, 2000.).

## 2. 국어 교육의 입장에서 본 「바른 생활」 교과서

첫째로, 고 김형규 교수님(당시 국어연구소 소장, 학술원 간행 「국어 교육의 이념과 방향」, pp. 237~238, 1984.)의 지적이다.

초등 학교 1, 2학년은 종합 교육이라고 하여 국어, 도덕, 사회 생활을 하나로 묶어 ‘바른 생활’이란 이름으로 하나의 교과서로 편찬되어 있다. 과연 이런 방식의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이 간다. 외국에서는 초등 학교에서 국어, 산수, 기타 이렇게 세 분야로 크게 나누어 교육하는 나라가 많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다. 내가 이 방면에 비판할 자격이 없기에 더 많은 말은 피하고, 여기서는 다만 국어 교육의 문제만을 가지고 말하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종합 교육을 목표로 교재를 편찬해 가지고는 국어 교육만 희생이 된다. 사실 초등 학교 저학년에서 도의 또는 사회 생활에서는 교과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부모와 선생님의 말을 잘 지키고, 동무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공중 도덕을 지키고, 길을 걸을 때 질서를 따르는 일은 실제 생활을 통해 지도하면 된다고 본다. 또, 국어 교재 자체도 이런 내용의 글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 교육을 하는 가운데서도 자연 이런 교육도 다루어지는 대목이 많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의 또는 사회 생활을 위해 국어 교육 자체를 희생시키지 말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다. ‘바른 생활’ 1-1 첫머리에 “하늘, 파란 하늘, 파란 하늘에 우리 태극기” 이런 문장이 나온다. 그리고 이 항목 끝에 가서 ㄱ, ㄴ, ㄷ, ㄹ과 ㅏ, ㅑ, ㅓ, ㅕ의 글자 익히기, 그들이 결합된 ‘나, 너’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국어 교육에서 목표하는 것과 거기 나오는 글과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 우리 글자를 익혀 주려면 단음 문자와 이들이 일차적으로 결합한 받침 없는 글자부터 익히고, 다음에 받침이 붙은 글자를 익히도록 해야 된다. 언어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지시, 편찬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나오는 글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전에는 “나, 너, 우리 나라, 대한 민국” 이런 문장부터 시작되었다고 들었다. 물론, 여기서도 대한 민국이란 표기에서는 받침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서는 국어 과목이 독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자유롭게 편찬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 필자는 국가관부터 먼저 앞서서 주입해야 된다는 교육관에 의심을 가진다. 더구나, 국어 교육에서는 그러하다. 개인이 모여서 가정이 되고, 또 가정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것이다. 각 개인이 튼튼하고 또 각 가정이 튼튼할 때 그 국가도 튼튼한 것이다. 아동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가까운 존재로 집(가정)을 생각하고, 다음에 학교 생활을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아직 먼 존재다. 다만, 성인들의 고정 관념에 의해 국가관부터 고취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못 된다고 본다. 뒤에 가서 얼마든지 그를 강조하고 가르칠 기회는 있는 것이다.

더구나, 아동의 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그들이 어떤 어휘부터 습득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런 낱말부터 먼저 읽고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무시해 가지고는 국어 교육의 효과가 적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



서 볼 때, 어린이에게는 어머니, 아버지 같은 낱말이 가장 먼저 배우고, 또 친근성을 느끼는 말ियो, 또 이런 낱말에 표기된 글자부터 읽고 쓰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초등 학교의 국어 교육에서는 아동들이 먼저 배우는 낱말, 그리고 가장 많이 쓰고 애정을 느끼는 낱말부터 선택하고, 여기다 우리 글자가 가지는 난이성을 생각해서 배정, 편찬해야 된다고 본다. 이것을 무시한 국어 교육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니, 그런 관점에서 초등 학교 1, 2 학년에서 교과서 ‘바른 생활’을 통한 국어 교육은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믿는다. 이것은 다만 국어 교육에서만 말할 것이 아니라, 도의 또는 사회 생활에서도 통한다고 본다. 왜냐 하면, 언어의 발달은 그들의 생활의 발달과 보조를 같이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식에 없든가 알기도 어려운 낱말, 그리고 어려운 글자의 표기는 피해야 되고, 또 이런 개념을 그들에게 억지로 강요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은 교육받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교육하는 사람의 뜻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로, 정우상(서울교육대학교 명예 교수)님의 지적(『어문 연구』, 제 14 권 제 1 호, pp. 20~21, 1986.)이다.

통합 교과란 ‘국어, 도덕, 사회’가 통합되어 있는 ‘바른 생활’을 의미한다.

이 교과는 국어과 교육을 기저로 하여 도덕이나 사회과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교과서 편찬 자체부터 단원에 따라 국어, 도덕, 사회과 각각의 특색을 강조하여 편찬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를 물리적으로 합해 놓아 국어, 도덕, 사회 교과서를 섞어 놓은 결과가 되어, 각 교과와 종합성이나 유기성이 결여되어 있는 교과 내용이어서 통합의 원리에서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 지도하는 교사의 기호에 따라 어느 한 교과에 치우치는 지도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도는 통합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평가는 국어, 도덕, 사회로 분리하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도 어렵거니와, 이렇게 분리해서 평가하게 되어 통합의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그리고 통합의 결과, 교과서의 내용이 어려워져 아동들의 이해도가 낮으며, 어느 교사는 겨우 단어 지도에서 머무르는 실정이다. 교사들이 통합 교과로 만든 의의나 통합 교과와 지도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과 지도인지 사회과 지도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혼란을 빚고 있어 갈팡질팡하는 실정이며, 더구나 1 학년 지도는 나이 많고 경험이 많은 교사가 지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국어 지도 방법으로 무리한 ‘받아쓰기’ 지도를 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른 생활’ 하나를 가지고 주당 11 시간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 시간씩 반복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무리한 통합을 하다 보니 교과서의 내용이 처음부터 너무 어렵고,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 지도면에서 단계성이나 체계성이 없고, 난이도도 배려되지 않고 있어서 국어과 학습에 많은 혼란을 빚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합 교과인 ‘바른 생활’에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점이 많기 때문에, 국어과만은 독립 교과로 편찬되어야 함을 많은 일선 교사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1985년도 문교부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바른 생활’에 대

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정준섭, 「국어교육사람」 상권, pp. 139. 대한교과서, 2000.).

#### <문제점>

- (1) 바른 생활에서 효과적인 문자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적인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시간 배당에 대한 문제 등이 깊이 있게 연구·검토되어야 한다.
- (2) 모든 학력의 기초가 되는 언어 기능 신장을 강조하다 보면 도덕·사회의 교과 내용을 소홀히 다루게 되는 때가 많다.
- (3) 교육과정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개선 방향>

- (1) 차기 교육과정의 개정은 초등 학교 저학년의 경우 모든 교수·학습 활동이 언어 기능 신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언어 기능 신장을 위한 새로운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 (2) 초기 독서 지도 및 문자 지도를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연구 활동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3.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1교과 다 교과서 체제 도입

당시 교육과정 담당관실에서는 김철연 담당관의 후임으로 온 김상대 담당관이 개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초등 학교 담당은 이경환 님이었다. 필자는 이분들과 여러 차례 ‘기초 기능 교육의 강화’ 문제를 논의하였고, 교육과정의 개정과 더불어 교과서의 개발에서는 1교과 다 교과서 체제의 도입을 철차를 밟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적절한 철차를 밟아 우리는 뜻을 이룰 수가 있었다. 이 때, 1교과 다 교과서가 된 교과들은 다음과 같다.

국어(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산수(산수, 산수 익힘책), 바른 생활(바른 생활, 바른 생활 이야기), 슬기로운 생활(슬기로운 생활, 관찰), 즐거운 생활(즐거운 생활), 도덕(도덕, 생활의 길잡이), 사회(사회, 사회과 탐구), 자연(자연, 실험 관찰), 실과(실과, 실습의 길잡이).

그리고 국어 교과서의 이름을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로 지은 연유는, 국어 교과 교육의 이상이 ‘유창한 국어 사용 능력을 갖춘 한국인다운 한국인’을 기르는 데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초등 학교에서는 문학 교재를 중심으로 한 언어 기능 신장 교육에 중점을 두고, 고등 학교에서는 언어 기능 신장을 중심으로 한 문학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유창한 국어 사용 능력을 갖춘 한국인다운 한국인’을 기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

〈1982~1994년 국어과 편수관〉

제 5 차 「교육과정」의 과학과 「과학」 교과서 편찬 개요

■ 이근복 (서울과학교과연구개발원장)



1. 제 5 차 과학과 교육과정의 특징

제 5 차 교육과정은 1985년 3월부터 기초 연구를 시작하여 1986년 4월에는 총론 시안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총론을 기초로 하여 1986년 8월부터는 각론 개발이 시작되었다. 총론과 각론의 심의를 거쳐 1987년 3월 31일 당시, 문교부 고시 제 87-7 호로 중학교 제 5 차 교육과정, 1987년 6월 30일 문교부 고시 제 87-9 호로 초등 학교 제 5 차 교육과정, 1988년 3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88-7 호로 고등 학교 교육과정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이 때, 초등 학교의 ‘자연과’라는 교과목명을 ‘과학’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교과목명을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많아 그렇게 하였다.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 이유는 1950년 이후, ‘자연’으로 불려왔고 자연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실생활과 관련짓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초등 과학의 교과명으로는 ‘자연’이 적합하기 때문이었다. 또다른 이유는, 과학이란 이름은 너무 학문적인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 7 차 교육과정 제정시에 ‘자연과’는 ‘과학과’로 교과명이 바뀌게 되었다.

초등 학교의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의 변천이 이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슬기로운 생활’은 제 4 차 교육과정 제정시에 통합 교과로 논의되었으나 교육과정상에는 그대로 두기로 하였고, 교과서 개발 때에 논의하기로 한 것이었다. 교과서 개발시에는 경험 과학에 속하는 사회과학과 과학과를 통합하여 통합 교과를 만들자는 안도 나왔으나 인접 학문이면서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 특히 과학의 도구 학문인 수학과 과학과가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제 4 차 교육과정의 구현 자료의 하나인 교과서의 경우 산수과와 자연과의 교과를 통합하여 통합 교과서를 만들기로 하였다. 이름은 ‘슬기로운 생활’로 하기로 하여 1981년 실험 학교를 거쳐 1982년 전국 초등 학교에서 산수과와 자연과를 모태로 통합 교과서인 ‘슬기로운 생활’이 가르쳐지게 되었다.

이 때,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는 1 학년에게 제공되었다. 그러니까 통합은 1 학년까지만 된 셈이다. 제 5 차 교육과정기에는 통합 교과가 초등 학교 1, 2 학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제 4 차 교육과정기에는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도덕, 국어, 사회를 통합하여 바른 생활 교과서를 만들었고, 산수, 자연을 통합하여 슬기로

은 생활 교과서를, 체육, 음악, 미술을 통합하여 즐거운 생활 교과서를 만들었다. 제 5 차 교육과정기에는 언어, 수리 기능을 체계적,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국어’와 ‘산수’는 통합 교과서에서 분리, 독립하였다. 나머지 교과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생활 경험을 고려하여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통합 교과를 신설하여 통합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특히, 초등 학교 1 학년 입학생에게는 ‘우리들은 1 학년’이라는 통합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슬기로운 생활’은 계획, 수업, 평가, 생활 기록부까지 일관성 있는 체제 통일이 이루어진 셈이며 1 학년에만 적용하던 것이 제 5 차 교육과정에서는 1, 2 학년에까지 적용하게 되었다. ‘슬기로운 생활’ 교과는 제 6 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름은 그대로 둔 채로 내용은 사회과와 과학과의 통합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중학교 과학과는 제 5 차 교육과정에서 3 학년의 시간 배당 기준이 1 시간 늘어났다. 중학교 1 학년은 전과 같이 주당 4 시간, 2 학년은 3~4 시간으로 같으나, 3 학년은 3~4 시간에서 4~5 시간으로 1 시간 늘어난 것이다. 이는 기초 과학 교육의 강화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 학교 과학과의 경우는 제 4 차 교육과정에서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 과학 I,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 과학 II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너무 과목이 많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목 수를 축소 조정하였다.

즉, 인문·사회 과정 학생이 종래에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 과학 I 의 4 과목을 모두 이수하였던 것을 과학 I, 과학 II 의 두 과목만 이수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자연 과정 학생들은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 과학 I,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 과학 II 의 8 과목을 모두 이수하던 것을 과학 I 과 과학 II 중에서 한 과목과 물리, 화학 그리고 생물, 지구 과학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여 4 과목만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과학 I 은 교과서를 과학 I (상) 과 과학 I (하), 과학 II 는 과학 II (상) 과 과학 II (하)로 분권하여 인문·사회 과정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 2. 교과용 도서의 편찬

### 가. 초등 학교 교과용 도서

초등 학교 교과용 도서는 1 종 도서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의 집필 지침은 문교부가 제시한 공통 사항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개발 기관은 공모제에 의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기관을 문교부 입장에서 조사한 후, 개발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결정하였다.

그 결과, 제 5 차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학교 자연과 교과용 도서를 개발할 기관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와 한국교육개발원을 지정하였다. 이 결정에 의하면, 초등 학교 1, 2 학년 ‘슬기로운 생활’과 3, 4 학년 ‘자연’ 교과용 도서 개발은 한국교원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가, 초등 학교 3, 4 학년 ‘자연’ 교과의 개발은 한국교육개발원이 각각 나누어 맡게 되었다. 이 때, 문교부가 제시한 자연과의 교과서 개편 방향 및 새 교과서의 내용상의 특성 등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 개편 방향

- ㉔ 탐구 활동과 기본 개념의 조화
- ㉕ 관찰, 실험 활동을 통한 흥미 유발
- ㉖ 과학적 사고와 태도 배양
- ㉗ 실험 관찰 교과서 내용 배려
- ㉘ 슬기로운 생활과의 연계성 배려
- ㉙ 학생의 흥미와 수준 배려
- ㉚ 교과서의 학습의 양 조절

(2) 새 교과서의 내용상의 특성

(가) 내용 구성

내용과 상호 계통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국민 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슬기로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여러 가지 곤충 자람 물체와 물질 자석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들 빛과 그림자 소리 공기 낮과 밤	연못의 생활 동물의 한살이 식물의 한살이 여러 가지 물질 전지와 전구 수평잡기 날씨 돌과 흙	생물과 환경  혼합물이 분리  전기 회로  빛의 나아감 열과 물체의 변화  강과 바다 지층과 화석	생태계 식물의 구조와 기능 용해 산과 염기의 성 질 힘과 연모 물체의 위치와 운동 날씨의 변화 우주 속의 지구	환경 오염과 자 연 보존 우리의 몸 분자 산소와 이산화탄 소 전류와 자기장 에너지 계절의 변화  움직이는 땅	주변의 생물  물질의 형성  힘과 운동  대기와 물의 순 환

(나) 내용상의 주요 특성

- ① 저학년 자연과 내용은 ‘슬기로운 생활’에 반영
- ② 실험 관찰 결과의 기록표는 보조 교과서에 게재
- ③ 차시별 활동 주제 명시
- ④ 도입 및 설명문 보완

(다) 교과용 도서의 구성 및 교과서의 활용

① 교과용 도서의 구성

교과용 도서는 1, 2학년의 경우 학생용으로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 및 보조 교과서인 ‘관찰’이 있고, 교사용으로 교사용 지도서가 있다. 3~6학년의 경우는 학생용으로 자연 교과서 및 보조 교과서인 ‘실험 관찰’이 있으며, 교사용으로 자연 교사용 지도서가 있다.

자연 교과서는 각 학년의 학기마다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원이나 소단원 첫 부분에는 학습 활동의 도입 및 안내와 정보 제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의 전개 형태를 보면 단원명과 삽화 및 소단원 도입문(1 쪽), 소단원명과 삽화 및 소단원 도입문(1 쪽), 차시별 활동 주제(1~2 줄), 구체적인 활동 안

내문, 활동 차시별 정리 활동 안내문, 단원의 종합 및 발전 활동(1~2 쪽)으로 되어 있다.

실험 관찰은 교과서 단원 및 소단원 순서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관찰 실험 결과의 기록란, 장기 관찰 기록표, 간접 경험 자료 등을 학습 활동의 성격에 맞추어 제시하였다. 교사용 지도서는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론은 자연과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론은 단원 개관부터 차시별까지 교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② 교과서의 활용

교과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유일무이한 자료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 자료 중의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연과 수업은 학생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과서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경우에 따라 적절한 학습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교재를 연구해야 한다.

-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도록 지도
- 학습 소재나 학습 활동은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지도
- 관찰 및 기록이 필요한 학습의 지도 시기 및 재구성
- 교과서는 학습 활동의 안내서로 활용
- 다양한 학습 보조 자료의 활용
-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

‘실험 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별도의 학습 기록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자연 교과서와 실험 관찰 교과서를 함께 활용하도록 한다.
- ‘실험 관찰’의 여백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수업을 운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각종 시청각 자료, 과학 잡지, 도감 등의 활용
- 장기간의 실험 및 관찰을 요하는 내용은 해석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라) 초등 학교 교과용 도서 개발 낙수

‘슬기로운 생활’과 ‘자연’ 교과서의 교과용 도서 개발 책임을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두 기관에 위탁한 것은 상호 인력의 교환 활용, 선의의 경쟁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잘 된 일이었다. 예상한 것 이상으로 두 기관의 협조도 잘 되었고 아이디어도 서로 간에 많이 제시되었다.


다만, 학생용 교과서 편집과 인쇄를 주 교과서는 국정교과서(주), 보조 교과서는 대한교과서(주)와 계약하여 개발하는 바람에 두 출판사와 담당자는 물론이거니와 교육부 담당자도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고, 때로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도 수반되었다. 예를 들면, 같은 삽화나 사진이 교과서와 보조 교과서에 다 필요한 경우 한 장뿐인 것을 한 출판사가 사용 중이면 다른 출판사는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고, 대방동(국정교과서)과 성남(대한교과서) 사이를 사진이나 삽화 한 두장을 가지고 뛰어다녀야 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중이므로, 학년

별로 출판사와 계약해 주도록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과 삽화의 단가가 너무 낮아 좋은 자료를 구하는 데 애로가 많았고, 사진과 삽화를 담당한 사람의 희생이 없었으면 교과서 개발에 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었다. 지금도 사진과 삽화 담당자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

#### 나. 중등 학교 교과용 도서

중학교 과학 교과용 도서는 제 4 차 교육과정에 따른 개발시에는 국정 교과서였으나 제 5 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될 때는 2 종 도서가 되었다. 따라서 당시 문교부는 교과용 도서 개발 의지가 있는 출판사를 모아 놓고서 개발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다음 출판사가 개발해 온 것을 심사하여 합격본에 한하여 출판권을 허용하였다. 심사 때에는 문교부 담당자의 참석 여부와 수당 지급 여부를 놓고 고심을 하였으나 참석하여 수당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불합격된 저작자와 출판사의 이익 제기는 담당 편수관에게는 힘든 일거리가 제공되는 셈이었다. 필자가 담당한 교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나 다행히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끝날 수 있었다.

제 7 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과용 도서에서는 불합격한 곳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끝으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교과서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나, 교과서값이 너무 싸서 출판사는 별 이익이 없으므로 자습서, 참고서 등을 통해서 이익이 생기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자습서나 참고서는 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생각이며, 교과서는 교과서 자체로 출판사와 저작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과학과와 같은 교과목의 특성상 많은 인원이 저작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너무 적은 인세를 받아 교과용 도서 개발에 들인 많은 노력에 비해 허탈한 정도여서 다음 교과용 도서 개발 때에는 인세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1984~1994년 과학과 편수관〉

19

86년 9월 1일 발령으로 그 당시 문교부 근무를 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교감으로 있다가 교육 연구사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장학사, 연구사 등 전문직 근무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입장인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천으로 교육부에 근무하게 된 나는 무척 긴장하였다. 그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대학원 초등 교육과를 졸업한 것과 교감이 되기 위한 준비로 「병설 유치원 교육과 초등 학교 저학년 교육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실적이 교육부에 들어갈 수 있는 추천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 Ⅰ.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부 ‘교육과정 담당관실’에서의 담당 업무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이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 교육과정으로 2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큰 부담이 없었는데, 유치원 교육과정은 발달 영역에 따른 교육과정이라 이해가 부족하여 연구를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이기숙 교수, 이은화 교수, 중앙대학교 이원영 교수, 성균관대학교 이영식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김광웅 교수 등을 방문하여 많은 지도를 받아 이해를 넓히면서 교육과정은 정리되어 갔다. 고시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발달 영역별 목표 수준의 교육과정의 문제

유치원 교육과정은 발달 영역별로 진술되어 있다. 발달 영역별 유치원 교육과정은 우리 나라 유치원 교육 현장의 교수 방법을 유아 중심 교육으로 전환시키는데 공헌한 바가 크다.

그러나 유치원 현장에서는 전인 발달을 목표로 유아의 생활 경험을 근거로 활동들을 선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유치원 교사들은 목표 수준에서 간단히 진술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거의 또는 전혀 참고하지 않고 주로 교육부에서 발행한 유아 교육 지도 자료집을 참고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각론의 내용을 영역별로 구체화하여 유치원에서 프로그램 작성에 직접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각론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야 하며, 유아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전인 발달과 생활 경험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실제 프로그램과 이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 김 / 소정자(전 교육부 편수관)





## 2. 3세 유아를 위한 교육 문제

영·유아의 발달은 발달 영역별로 독특하게 이루어지는 동시에 발달 영역 간에도 긴밀한 연관성을 맺으며 이루어진다. 신체 발달과 정서 발달이 서로 영향을 주고 사회, 정서 발달과 유아의 인지 발달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발달 영역 간 상호 연관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3세 유아를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균형 있는 전인 발달에 근거를 두고 이를 유아의 생활 경험과 연결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3세 유아 교육 활동 지도 자료가 필요하다. 교육 활동 지도 자료를 다양하게 개발, 보급해 주기를 희망한다.

## 3. 미숙한 사회성의 문제

타인과 인간 관계를 맺는 능력을 충칭하여 사회성이라고 한다면, 이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획득되어지는 발달적 측면이다.

유아의 사회성 발달이 잘 이루어지려면 유아들은 어려서부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역할은 일차적으로는 가정의 부모가, 이차적으로는 교육 기관의 교사들이 담당하게 된다. 가정이나 유치원에서 일상 생활을 하는 동안 유아들은 생활 습관을 바르게 형성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인간 관계를 맺는 방법, 즉 사회성 발달을 위한 기본 생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본 생활 교육이란, 관습과 전통의 형태로 이어져 내려온 사회적 규범과 원리에 따라 행동하도록 돕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인격을 관리하는 안목과 능력을 갖도록 돕는 일이다. 지적으로는 똑똑하나 사회적으로 미숙한 유아들을 교육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어 유아 기본 생활 습관 교육을 위한 활동 자료를 개발, 보급해 주었으면 한다.

## 4. 문자 교육에 대한 문제

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취학한 후 국어 능력에 의해 학업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믿고 1학년에 ‘받아쓰기’ 시험은 부모들의 관심 대상이며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문자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글과 글자의 기초 기능을 기르기 위해 모양의 변별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의 발달 특징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자 교육을 하고 있다. 유아기 언어 교육을 돕기 위한 언어 교육 활동 자료도 개발, 보급해 주기 바란다.

## 5. 유치원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문제

유치원은 유아의 발달 특성 때문에, 교수 방법이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융통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 내용을 교과서가 아닌 활동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활동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배우는 유아들의 발달 특징으로 교과서에 의한 교육이나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는 불가능하다.

유치원에서의 ‘교재’는 유아의 감각 활동을 자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물이나 놀이감을 의미하며, 유치원 현장에서 놀이와 놀이감의 역할은 교육 목표를 도달하는 교수 매체로 교과서가 없는 유치원은 교수·학습 방법과 교수 매체에 대한 지침을 자세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개발·보급되는 유아 교육 자료는 책자와 CD-Rom을 함께 개발하여 교수 자료 및 유아용 활동 자료로 제작,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한다.

## 6. 취업모의 증가에 따른 종일반 운영의 문제

현대 사회는 취업 여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취업모 중에서 5세 이하의 유아를 가진 여성을 위하여 유치원에서 종일반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유아들에게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자연 체험, 문화 체험 등의 활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유치원 종일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 Ⅱ. 특수 학교 교육과정

초등 학교, 유치원 교육과정이 고시된 후 쉴 사이 없이 특수 학교(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부자유, 정신 지체) 교육과정 업무에 매달렸다. 종로구 신교동에 위치한 서울맹학교와 농학교를 내 집 드나들듯 하면서 지도와 정보를 받아 교육과정 이해에 총 집중했다. 그리고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삼육재활학교(三育再活學校),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연세재활학교(延世再活學校) 교장 선생님들께 많은 지도와 정보를 받았다. 참 고마운 분들이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특히 시각 장애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과 학교의 실정, 학생들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특수 학교의 교육과정은 장애 학생들이 지닌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교육과정에서 보다 더 세분화되고 개별화된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시각 장애 학교의 교육과정은 다른 특수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과 구별되며,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닌다.

### 1. 교육과정 편성의 이원화 문제

시각 장애 학교 학생들 중에는 단순한 시각 장애만을 지닌 학생이 있는가 하면, 시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 지체, 자폐 등 이중, 삼중의 장애를 지닌 중복 장애 학생들도 있으며, 이들 중복 장애 학생의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단순 시각 장애 학생들은 일반 학교 학생들과 학습 능력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시각으로 인해 습득하기 어려운 교육 활동 내용을 고려하여 일반 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중복 장애 학생들은 시각 장애와 함께 다른 장애 부분까지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므로, 학생 개인별로 다양하고 개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각 장애 학교 교육과정은 단순 시각 장애 학생을 위한 수정·보완된 일반 교육과정과 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과정의 이원화된 교육과정이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 2.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 문제

한 학급 안에 단순 시각 장애 학생과 중복 장애 학생이 함께 구성되어 있고, 또 그 비율이 서로에게 큰 영향을 줄 정도라면, 두 종류의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 교사는 어느 쪽도 기울지 않는 운영을 하기란 여간 힘겹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학부모가 거의 그러하듯이 특수 학교 학부모의 교육열도 매우 높은 편


이며, 학교에 대한 교육적 요구 또한 높다. 단순 시각 장애 학생들의 학부모는 자녀가 대학 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중복 장애 학생들의 학부모는 민감한 시선으로 자기 자녀들이 학급에서 소외되지 않고 생활 적응과 사회 적응 능력과 자립심을 길러 부모의 손으로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 교사는 어느 한쪽 교육과정도 소홀히 운영할 수 없는 입장에 있게 된다.

단순 시각 장애 학생과 중복 장애 학생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학급 형태는 학급 인원 수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반 학교의 한 학급에 여러 명의 다양한 장애 학생이 함께 아무런 특수 교육의 조치나 보조 교사의 도움 없이 학습해야 하는 교육 환경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여건은 아무리 특수 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사라 하더라도 다원적 학습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로 혼자서 가르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 시각 장애 학교에서는 중복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하여 시간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이 방법 또한 학부모의 반대 또는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실효를 거두기가 힘든 실정이다.

### 3. 통합 교육 실현의 문제

통합 교육은 장애 학생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 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몇몇 시각 장애 학교에서 일반 학교와의 통합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점자와 묵자의 문자 언어 사용 차이, 시청각 교재와 자료 사용의 차이, 공간 활용 능력과 활동의 민첩성 차이 등으로 큰 실효를 얻지 못하고 일반 학생들의 장애 체험 활동과 같은 형식적인 통합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요약하면, 시각 장애 학생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과정의 이원적 편성 및 운영상의 문제, 통합 교육 실현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는 보조 교사의 교실 지원, 중복 장애 학생 무학년제 운영, 특수 학급 운영의 현실화, 일반 학교의 통합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특수 학교 교육과정은 장애 영역에 따라 문제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서는 시각 장애만 기술하였다. 시각 장애에서 나타나는 중복 장애가 다른 장애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일반 학교에서도 자폐아가 꽤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정 고시 준비 때 꼭 자폐아에 대한 교육이 준비되어야 하고, 또한 유치원 교육과 함께 어린이집(영·유아 대상) 교육과정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1986~1993년 교육과정 담당 편수관〉

#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난제와 해결의 길

■ 글 / 현영호(한림성심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



## 1. 들어가는 말

교과서는 일반 도서와 달리 학생들이 학습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서이다. 따라서, 교과서란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 내용을 순차적, 단계적으로 기술해 놓은 학습용 도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학습 내용을 언어적인 요소(글자)와 비언어적인 요소(그림)로 보기 좋고 읽기 쉽게 가시화하는 행위를 편집 디자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완성을 위해서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진행할 교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시각적 운용 계획과 시선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유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교과서, 즉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외형은 과거에 비하여 매우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편집 디자이너가 교육 내용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디자인을 전개한 흔적을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느 특정한 누구의 책임도 아니며, 누군가가 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사안도 아니다. 단지 교과서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내 문제로 인식하고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에 대한 작은 실마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안들을 나름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으로 나누어 몇 가지 적어 보고자 한다.

## 2.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난제와 해결의 길

일반적으로 편집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지만, 교과서에서 편집 디자인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제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이다. 즉, 교육부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집필상의 유의점’을 제시하면서 ‘교과용 도서 외형 체제’ 부문에 처음으로 편집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디자인 설계 및 레이아웃’ 항목에 첫째, ‘시각성, 창작성, 적합성을 충실히 살리고 사용자의 연령, 교과목, 단

일반적으로 편집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지만, 교과서에서 편집 디자인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제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이다. 즉, 교육부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집필상의 유의점’을  
제시하면서 ‘교과용 도서 외형 체제’ 부문에 처음으로  
편집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원 등에 맞는 디자인 설계로 이해력과 흥미를 높인다.’라고 적고 있으며, 둘째, ‘시각적인 일관성과 다양한 변화를 통해 책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구성한다.’ 셋째, ‘특히, 교과 내용과 사진·삽화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간을 구성 배치한다.’라고 적고 있다.

이는 내용상 모두 적절하고 교과서의 편집 디자인에 꼭 반영되어야 할 필요한 내용들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 가. 제도적 측면

제 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많은 교과서 관련 출판사들이 ‘집필상의 유의점’에 명시된 근거에 준하여 피동적이기는 하지만 편집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과거부터 편집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개발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출판사들이 출판사의 내부 인력으로 편집 디자인을 소화해 내는 데 한계를 느끼고, 외부의 전문 디자인 업체에 아웃소싱으로 의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교과서 편집 디자인에 대한 전문적인 개념 정의가 없는 디자인 업체에 프로젝트를 의뢰하게 되고, 아웃소싱 업체는 교과서의 특성이 일반 도서와 다른 연속성과 체계성의 속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보기 좋은 책’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사실이다. 왜냐 하면, 교과서가 일반 도서와 구별되는 명확한 가지 특성은, 일반 도서나 잡지가 독자의 개성이나 취향에 의하여 내용이 선별적으로 읽혀질 수 있는 점에 비하여, 교과서는 특정한 과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목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의하여 단계적, 순차적 정보 전달의 프로세스를 가진다는 점이다. 즉, 교육 내용의 전이성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과서의 편집 디자인이 일반 도서의 편집 디자인과 달라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과서 편집 디자인이 여전히 여타 출판물의 편집 디자인보다 낙후되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출판사의 의지이다.

앞에서 열거했듯이 교과서는 일반 도서와 달리 사용 목적이 명확한 도서이므로 교과서를 편집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편집진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누구보다도 교과 내용을 잘 알

최근 들어, 출판사들이 자체적으로  
교과서디자인 연구소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으나, 교과서의 질적 발전을  
위한 순수한 동기가 아닌 발행권을 의식한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고 있는 주체는 출판사 내부의 편집진일 것이며, 편집 디자이너는 편집진과 상호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일관된 편집 디자인의 시선 흐름을 유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과서 관련 출판사는 편집실 내부에 교과서 편집 디자인 팀을 전문화하여 그 영역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최근 들어, 출판사들이 자체적으로 교과서 디자인 연구소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으나, 교과서의 질적 발전을 위한 순수한 동기가 아닌 발행권을 의식한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동기가 어쨌든 그러한 인프라가 음으로 양으로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둘째는, 교과서 편집자들의 변화이다.

어쨌든 편집 디자인의 실체는 편집자에 의해서 규정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물론 공조 체제로 진행되지만-편집자들의 합리적 성향과 시각적 판단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즉, 좋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뛰어난 감각(sense),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의 냉정한 판단 속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디자인을 선택하고 비판할 수 있는 혜안이 요구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교과서 편집 디자인은 유능한 디자이너에 의해서만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편집자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며, 교과서는 어느 도서보다도 내용이 중시되는 도서라는 사실과 교과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 편집자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자는 필히 디자인의 기능성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과서 편집 디자이너가 최선의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협력자와 주도자의 역할을 양립해야 하는 중요한 매개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외적 체제(외형)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와 내적 체제(내용)를 디자인하는 편집자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셋째는, 전문 교과서 편집 디자인 회사의 육성이다.

국내에는 교과서만을 전담하는 교과서 전문 디자인 회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교과서의 평가 항목에 편집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어 이에 대한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향후 의식 있는 누군가에 의하여 교과서 전문 편집 디자인 회사가 설립되어 교과서 편집 디자인 기능성과 이론에 의한 실체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와 관련된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출판사 부설 교과서연구소, 대학 디자인 교수 및 디자이너들이 힘과 관심을 모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중요한 사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조형적 측면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조형적 측면을 전반적으로 기술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 하면, 교과서라는 대상이 연령, 지역, 문화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만족시키려다 보면 자칫 평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서 편집 디자인이란 학습자인 학생(독자)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쉽고, 보기 좋게 꾸며야 하는 기능성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몇 가지 필요한 조형적 요인을 지적해 본다.

첫째로 컨셉트의 부재라는 측면이다.

컨셉트(concept)란 개념, 구상, 철학, 이미지의 방향이라는 뜻으로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로부터 ‘무엇을 느끼고 연상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부터 접근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악에서 어떤 악보가 있을 때, 같은 내용의 악보라도 어떤 연주자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그 음악에 대한 느낌은 매우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좋은 연주자는 작곡자가 악보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했던 음률(컨셉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연습을 통하여 그 음악을 연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연주자가 좋은 연주자인 것이다. 따라서, 좋은 컨셉트란 다른 학과목과의 차별성을 말하는데, 현재의 교과서는 각 교과목에 대한 뚜렷한 컨셉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거의 모든 교과서가 차별화되지 못한 비슷한 유형의 교과서 편집 디자인을 양산해 내고 있다. 이는 김인정 교과서보다 국정 교과서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다.

이러한 현상은 편집 디자이너가 교과목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용의 전이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단순히 ‘보기 좋은 디자인’만을 양산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스토리라도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듯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여 준다는 관점에서 교과서 편집 디자인이 개발되어야 하며, 편집자와 함께 컨셉트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여백(餘白)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지면에 형태를 인쇄하게 되면 인쇄되지 않은 여백이 생기게 된다. 이를 조형의 세계에서 “형태는 여백을 낳는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백의 의미를 단어상의 의미인 ‘남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내용이 인쇄되는 판면을 제외한 외곽(margin)만을 여백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반대로 여백이라는 지면(흰색 공간)에 형태가 인쇄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여백을 ‘남는 공간’이 아닌 ‘백색 공간(white space)’이라는 의미로 새롭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교과서 편집 디자인에는 백색 공간에 매우 인색하다. 인색하다 못해 백색 공간을 용납하지 못한다. 또, 여백은 불필요하게 남는 공간이며, 특히 교과 내용을 담아 내는 교과서에 남는 공간을 만들어

교과서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더욱 어렵다. 그러나 교과서 편집 디자인에 대한 문제는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특성 때문에,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여기에 다소의 딜레마가 있다. 다양한 견해를 따르다 보면  
 디자인 컨셉트의 일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규범이 있는 것같이 느껴진다. 이는 편집자와 편집 디자이너 모두에게 여백이라는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여백이라는 백색 공간이 남는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조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과서 관련 편집 디자이너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장식을 위한 디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과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교과용 학습 도서이다. 즉, 교육과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학습 내용을 담아 놓은 도서인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다른 도서에 비하여 학습 내용에 필요한 다양한 참고 자료가 요구되어 결국 그 자체로 복잡성을 띠게 되어 있다.

편집의 사전적 의미가 ‘자료를 모아 수집해 놓은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편집 디자인은 모아 수집된 내용을 ‘묶고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묶고 분류하는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은 복잡하지 않으면서 학습 내용의 분류와 시각적 유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과서는 교과서 자체의 복잡성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필요 이상의 장식을 첨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따라서, 내용의 전달을 위하

여 꼭 필요한 그래픽 요소와 장식은 권장할 필요가 있겠지만, 필요 이상의 장식을 위한 장식은 절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끝을 맺으며

교과서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더욱 어렵다. 그러나 교과서 편집 디자인에 대한 문제는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특성 때문에,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여기에 다소의 딜레마가 있다. 다양한 견해를 따르다 보면 디자인 컨셉트의 일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편집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면의 또 한 가지 현상은 현실적으로 교과서 편집 디자인에서 컨셉트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시화해 나갈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먼저 교과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교과서 출판사 및 편집자, 디자이너 모두가 교과서 편집 디자인에 대한 목표 의식과 현실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간다면 그 시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다시 생각해 보는 교과용 도서 검정

■ 글 / 김광민 (충북대학교 교수)



교과용 도서 검정을 주제로 한 원고 청탁은 기억에서 서서히 멀어져 가는 검정에 대한 추억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였다. 대학에 부임한 지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이러저러한 원고 청탁은 다소 냉정하다고 할 정도로 거절해 왔기에, 금번 원고 청탁에 응한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원고를 청탁한 분이 오랜 기간 검정에 함께 참여하였기에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지만, 이후에 생각해 보니 검정에 관하여 할 말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하에서는 검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를 회고하고, 향후 이루어질 검정의 방향 한 가지를 제시해 보겠다.

검정에 참여했을 때의 첫 느낌은, ‘검정에 관여하는 사람들 모두 말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마음 한 구석에는 ‘일을 서로 쪼개 맡다 보니 놓치는 것도 많구나.’ 하는 느낌도 지울 수 없었다. 예컨대, 도서 집필자들이 자료의 출처나 내용을 확실히 점검하면, 이후에 작업에서 검정 위원들이 그 확인을 위해 필요 이상의 애를 먹지 않아도 될 것이고, 표현·표기 부문

역시 관계자 간에 사전에 세부적인 사항이 정비되어 있었다면, 혼동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모든 과정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자신이 맡은 일뿐만 아니라, 전체가 나의 일이라는 마음가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엇인가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자세가 아쉬웠다. 그러한 자세가 확고하면 차후 연결되는 일은 훨씬 간결해질 것이고, 검토자의 노력은 보다 중요한 곳에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검정에서 그러한 면의 모범을 내국인이 아닌, 어느 한 외국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자그마한 체구에 동양인의 검손을 몸에 익힌 미국인이었다. 필자는 그와 각별한 친분도 없고 깊은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 내가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은 주위 사람들로 부터 들은 이야기와 그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이 전부이다. 그는 보통 때 해맑은 소년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9·11 테러와 같은 끔찍한 사건을 접해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침통한 표정과 우울한 기색을 보이기도 하였다.

우선 그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지적해 내는 오류의 양이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

제출한 보고서에 약간의 분량을 추가하면 책 한 권이 될 정도이다.  
 어떤 때에는 작업한 양이 내국인 검정 위원 전체가 작업한 분량과  
 엇비슷할 경우도 있었다. 물론 외국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내국인 검정 위원이  
 아무리 영어 교육에 능통해도 원어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할 수 있지만,  
 원어민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그 정도의 작업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면, 그가 제출한 보고서에 약간의 분량을 추가하면 책 한 권이 될 정도이다. 어떤 때에는 그가 작업한 양이 내국인 검정 위원 전체가 작업한 분량과 엇비슷할 경우도 있었다. 물론 외국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내국인 검정 위원이 아무리 영어 교육에 능통해도 원어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할 수 있지만, 원어민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그 정도의 작업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그와 같이 엄청난 양의 결과물을 제시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실력(어학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에 관한 식견)이 갖추어져야 하고, 사명감 또한 투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서양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대우에 걸맞은 일을 하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어서,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무한정 발휘하지 않는다. 당시 검정에 참여한 원어민에 대한 대우는 그다지 후한 편은 아니었다.

그가 제출하는 오류 보고서를 접할 때마다 필자는 우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원어민의 입장에서 자국어 교육의 현장에서 그가 느끼는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이 정도의 책을 과연 영어 교육을 위한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가?’, ‘영어 교육에 참여하는 한국인의 영어 실력이 이 정도인가?’ 등등 그가 제기했을 법한 의문은 필자 자신에게 곧바로 메아리치는 듯했고, 그 때마다 필자는 화끈거

리는 얼굴을 주체할 수 없었다. 물론 모든 출판 도서가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출판사가 이른바 교과용 도서를 제출하면서 수준 이하의 책을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설령 원어민이 대충대충 작업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오류를 그 정도밖에 잡아 내지 못했냐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잡아 주는 오류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그 미국인은 검정 기간 동안 그야말로 혼신의 힘으로 오류를 잡아 내었다. 검정 위원들이 대체로 겪는 일이지만, 일정에 쫓겨 쉬는 시간을 반납하고 잠을 줄여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나 그 미국인은 그러한 과로를 일상의 일로 여겼고, 한 번은 몸에 무리가 가서 거동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가 열정을 다하여 교과용 도서의 오류를 잡아 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로, 원어민으로서 영어라는 자신의 언어가 올바르게 표기되고 소통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발동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른바 민족적 자긍심이 발동하는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다. 그러나 그의 신분이 미국 문화원 관리도 아니고, 영어를 올바르게 전파하는 길이 오직 한국의 영어 교과서를 바로 잡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

현재 교육 현장에서 지도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필자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달리, 검정 과정에서 지도서 심사를 폐지하고  
교과서 심사만을 존속시키자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면, 그것이 유일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로, 그는 영어 교육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교과용 도서에는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신념을 투철하게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적어도 이 해석에서는 ‘영어가 내 것이다, 네 것이다.’와 같은 편가르기가 없다. 영어는 공용어로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올바른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여기서 사실상 분리 불가능한 두 이유를 굳이 구분한 것은, 그가 지적한 오류를 읽으면 그 지적이 일방적 지시로서가 아니라 따뜻한 설득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모든 항목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때로는 문화적 시각의 차이임을 설명하면서 수정의 이유를 자세히 제시하는 것이다.

앞에서 필자는 그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보여 준 삶의 자세는 크게 감탄할 만한 것이었고, 모두에게 귀감이 되어야 마땅하다. 사실 그가 검정에서 보여 준 삶의 태도는 현대의 전형적인 생활 방식인 분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는 그가 검정의 모든 과정을 해냈다는 뜻이 아니라, 주어진 몫 이상을 자임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임은 물질적 보상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소명으로 알고 자신의 능력을 그 한계까지 밀고 나아가게 하였

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도서 검정의 과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필자의 삶의 방식 자체를 돌아보게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값진 것이었다.

검정의 세부 과정을 체험하면서, 검정에서 교과서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 점은 그다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금번 검정과 무관하게 통념으로 지지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하여 오랜 기간 그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좋은 교과서 만들기에 집착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저작자들이 물질적 이익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는 좋은 교과서를 만들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열망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도를 달리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지도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 생각이 미치게 되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지도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필자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달리, 검정 과정에서 지도서 심사를 폐지하고 교과서 심사만을 존속시키자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짐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지도서는 언제나 교과서와의 관련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교과서를 위주로 하

지도서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고 교과서에 관심의 초점을 맞출 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모든 관심을 교과서에 집중하는 것은  
 자칫 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경직된 것으로 파악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른바 문제점을 지닌 교육의 대명사로 회자되는 ‘암기 위주의 교육’,  
 ‘교과서 중심의 교육’으로 몰아 갈 가능성이 있다.

여 심사하면 그만이지 지도서까지 심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한편으로 타당성을 가진 듯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이 주장은 현실의 교사 수준을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교사는 교과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과에 대한 안목을 지니고 있으며, 그가 가진 안목을 학생이 가질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교사는 교과를 이미 배운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그것을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사람이라는 주장 역시 타당하다. 교사로서 교과서에 표현되어 있는 요소 지식을 안다는 것은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 요건이 되겠지만, 그가 가르치는 교과의 의의, 교과 교육의 궁극적 지향처,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 방법의 강구는 그다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점을 중시하면, 교사 역시 학생과 상이한 수준에 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교과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며, 그것의 한 방편은 지도서 제작에 내실을 기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둘째로, 이상의 문제점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지도서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고 교과서에 관심의 초점을 맞출 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모든 관심을 교과서에 집중하는 것은 자칫 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경직된 것으로 파악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른바 문제점을 지닌 교육의 대명사로 회자되는 ‘암기 위주의 교육’, ‘교과서 중심의 교육’으로 몰아 갈 가능성이 있다. 오직 교과서 제작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교재 연구가 교사의 자유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태에서, 해당 교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교수 방법에 대한 고심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교과서 집필에 아무리 심혈을 기울이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내용을 정제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정제된 내용에 모든 교과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합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관점의 위험성을 아무리 완화하더라도, 교사 없이 교과서만으로 교육 내용이 쉽게 전수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어렵다. 교과서만으로 수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은 곧 지도서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이는 곧바로 학생 혼자의 힘으로 교육 내용을 체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추론은 결코 지나친 상상이 아니다. 비록 단기적인 조치로 끝나기는 했지만, 제 6차 교육과정기에 부교재와 지도서가 필요 없는 이른바 ‘자율 학습형 교과서’를 제작하게 된 것은 이상의 견해

가 단지 생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로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검정제에서 지도서 개발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면 그것의 질 관리가 어려워지지만, 마찬가지로 현재의 검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도서 검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의 질 제고에 한계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지도서 심사 강화는 부실한 지도서 제작을 억제하는 면에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하여 교사의 수준 향상까지 기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다. 현재의 지도서가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도서의 원형이 어떠한가에 관하여 뚜렷한 관점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이 점은 현재 외형 체제의 규제를 푸는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지도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교과서 제도 전반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한, 저자와 출판사가 이상적인 지도서를 제시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도서의 핵심 기능은 교육 내용 간의 종적 관련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내용의 종적 관련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모호하다. 이제까지 교육과정에서 계열성이 중요하다는 데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과정 구성과 교과용 도서 제작에서 이 점이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언제나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지도서의 구성에서 ‘해당 학년의 교육 내용은 위 학년의 내용과 종적 관련을 뚜렷이 맺어야 한다.’는 식의 당위적 진술 형태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의미가 없다. 계열성 확립

이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지려면, 지도서를 통해 상위 수준의 내용 판도를 실제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지도서가 이러한 점을 완전히 도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지도서가 여기에 크게 미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예컨대, 일선 교사에게 지도서가 크게 참고된다는 것은, 지도서가 교사로 하여금 교육 내용의 심도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지도서가 교사를 상위 수준의 내용으로 안내한다는 말로 고쳐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면, 상위 수준의 내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것, 그리고 현재의 내용과 위 수준의 내용을 관통하는 이론을 소개하는 것, 나아가 상위 수준에서의 이론적 쟁점을 드러내는 것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다소 거칠게 말하면, 현재의 지도서와 같이 해당 학년의 내용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고, 상위 수준에서 활용되고 소통되는 내용을 상당 정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지도서의 부피가 현재보다 훨씬 커진다는 것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도서가 이와 같은 체제를 갖추게 될 때, 비로소 지도서는 해당 학년의 내용을 거점으로 상위 수준의 내용을 안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아마도 교과용 도서 검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교사의 수업을 안내하는 지도서가 얼마나 충실한가를 문제삼을 수 있어야 한다. 

# 항태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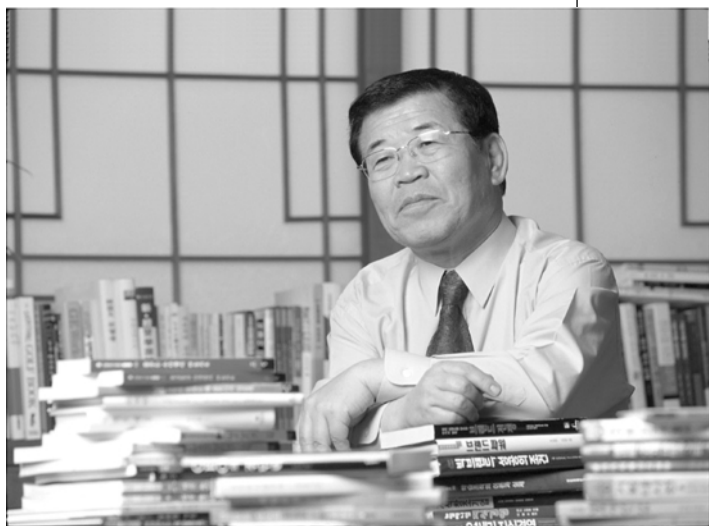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한교과서(주)는 1948년 9월 24일 창립한 이래 반세기의 역사를 이어 오면서, ‘교육 입국(教育立國)’, ‘실업 교육(實業教育)’, ‘출판 보국(出版報國)’의 창립 이념을 올곧게 실천하며, 국민 교육에 이바지하고 우리 나라 교육 문화 산업 발전을 선도해 온 교육 출판 전문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❶ 설립 목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교과서의 창립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말 교과서를 통한 주권 교육이 시급하던 시절, 정부는 초등 교육 정상화에 우선을 두고 초등 교과서 수급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의 상황을 보면, 광복 이후 줄곧 임시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 일선에 공급하였고, 그마저도 수익이 좋은 인문계 교재들만 다투어 펴내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는 실업계 전문 교과서를 비롯한 중등 교과서 편찬과 관련하여 긴급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그 중에는 ‘시중의



출판업자들에게 교과서 발행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민간 업자 측에서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교과서 생산 전담 회사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적은 실업계 교과서를 생산하고자 섰 나서는 출판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문화당(文化堂)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조선 교육」 등의 교육 관련 출판물을 발행하던 우석 김기오 선생이 우리의 2

세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과서를 생산해야 한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뜻 있는 출판인, 지인들을 모아 대한교과서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즉, 대한교과서는 당시의 어려운 교과서 공급 사정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설립자 그룹, 교육계 인사들이 동일한 명분을 공감한 데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설립 목적은 ‘창립 발기문’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등 교과서, 특히 실업 전문 교과서 발행 현안을 실현한다. 둘째, 새 국정 교과서 공급을 통해 식민 잔재를 추방한다. 셋째, 회사의 발전적인 방향 제시로 공평정대한 경영을 꾀한다. 넷째, 품질이 우수하고 경제성 있는 교과서를 생산한다. 이러한 창립 발기문을 바탕으로 대한교과서는 ‘교육 입국’, ‘실업 교육’, ‘출판 보국’이라는 창립 이념을 실현하며 교과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❶ 교과서 출판업은 교육 진흥과 기업 이윤 추구라는 양면성을 지닌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등의 출판업이 다른 사업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은 무엇이고,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립 발기문에서 창립자이신 우석 김기오 선생은 ‘이유를 불문하고 교과서를 편찬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에 앞서 교과서 편찬을 통한 2세 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교육 출판, 특히 교과서 출판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모든 산업이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출판업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미래를 위해서는 출판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기업의 이윤 추구와 동시에 올바른 시대 정신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출판 정신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교과서는 일반 출판물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과서에는 한 시대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책임입니다. 표현이나 철자법 하나, 띄어쓰기 하나 등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교과서 편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력이 20, 30 년이 넘는 것도 그만큼 교과서는 다른 책과는 다르다는 사명감과 어려움 때문입니다. 교과서 출판 회사는 ‘기업’이라는 현실과 ‘출판’이라는 정신의 절묘한 결합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❷ 위 질문과 관련해서, 귀사의 기업 비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교육 출판 반세기가 대한교과서의 자화상입니다. 대한교과서 임직원 모두는 우리 나라 교과서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자부심에만 머물지 않고 56년의 출판 노하우와 시설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최고의 교육 출판 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교과서는 고객의 ‘평생 친구’로 남고자

### 대한교과서의 사업은

크게 교과서 사업, 학습 교재 사업, 출판 사업, 인쇄 사업,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과서 사업을 살펴보면, 대한교과서는 1949년 10종 18책의 교과서 발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일관되게 초·중·고등 학교 국정 교과서 및 검인정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영·유아들을 위한 출판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동 및 성인 단행본 사업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책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은 단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는 말처럼 대한교과서의 출판 정신은 우리 나라 출판 산업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것이라 감히 확신합니다.

● 귀사의 사업 영역(사업군)은 광범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대한교과서의 사업은 크게 교과서 사업, 학습 교재 사업, 출판 사업, 인쇄 사업,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교과서 사업을 살펴보면, 대한교과서는 1949년 10종 18책의 교과서 발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일관되게 초·중·고등 학교 국정 교과서 및 검인정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과서 발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1990년대 초부터 학습 교재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초, 중, 고등 학교에 이르기까지 뿌끄, 감지, 파사쥬 등 다양한 브랜드와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출판 사업은 크게 영·유아 출판 브랜드인 아이즐 북스, 아동 출판 브랜드인 아이세움, 성인 종합 단행본 브랜드인 북폴리오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각각의 브랜드에 따라 전문적이고 특색 있는 책을 개발,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세움은 아동 출판계의 성공 신화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인쇄 사업은 대한교과서의 대규모 인쇄 시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상업 인쇄물을 비롯하여 각종 시험지를 수주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는 수주물의 범위를 해외로까지 확대하여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인쇄 선진국에까지 진출하여 우리 인쇄의 우수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 2003년에는 ‘제3교실’이라는 브랜드로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초등 학교 수학 전문 아카데미인 ‘제3교실’은 맞춤형 교육이라는 차별화된 커리큘럼에 힘입어 날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새롭게 시작한 ‘아이즐 북스’는 아이세움의 성공 신화에 이어 아동 출판계에 또다시 커다란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넓은 사업 영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역사 깊은 교과서 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끊임없이 사업 다각화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새로운 사업들 역시 모두 교육·출판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대한교과서의 ‘한우물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더 합리적인 교과서 개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과서 전문 출판사는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인력과 기술, 생산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선도하는 위치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과서의 내용과 질 또한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❶ 황 사장님께서서는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 주창자이신데, 이 기회에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개념과 전문 출판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교과서 전문 출판사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출판사라고 해서 모두 성향이 비슷하거나 하는 일이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책을 출판하느냐에 따라 직원들의 능력, 기업 문화, 업무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수많은 책 중에서도 교과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출판사는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출판사와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에 대한 사명감, 두 번째로 선진 시스템 도입, 세 번째로 전문 인력 양성을 들 수 있습니다. 교과서 출판이란, 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일반 출판물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항상 교과서 발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한 나라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과서 출판에 대한 사명감과 엄청난 무게를 늘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더 합리적인 교과서 개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과서 전문 출판사는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인력과 기술, 생산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선도하는 위치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과서의 내용과 질 또한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전문 출판사에서는 그 어느 출판사보다도 더욱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인재라고 하는 것은 편집자 및 기획 편집자 등 출판·인쇄 업무에 관련된 모든 인력을 말합니다. 조·제관 등 교과서 생산 시설 역시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교과서는 한순간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오랜 경험과 합리적인 시스템, 최고의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이 없으면 결코 좋은 교과서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교과서 발행에 대한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과서 발행 사업은 단순 수익 사업이 아닌 공적인 사업이며, 더욱이 그 결과물이 가져올 효과가 나라의 미래 모습을 좌우하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또, 경영자의 투명한 경영 마인드와 철학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교과서 출판사를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❷ 귀사가 설립한 ‘교과서 박물관’ 운영에 있어 앞으로는 그 사업을 ‘연구 기능’ 쪽으로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책에 관한 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평생 교육, 평생 친구로 자람매김할 때까지 쉬지 않고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종합 교육 출판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날 대한교과서를  
무한한 사랑과 성원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박물관을 설립한 것은 교과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과서 박물관 내에 교과서 연구소를 개설했습니다. 학계의 전문 인력으로 연구 팀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서는 교과서의 체제나 편집 내용, 색도, 지질, 글꼴은 물론이고, 교과서 제도, 교과서 정책, 통일 시대를 대비한 교과서, 미래 교과서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또, 교과서 관련 세미나를 주최해 많은 석학들과 함께 우리 나라 교과서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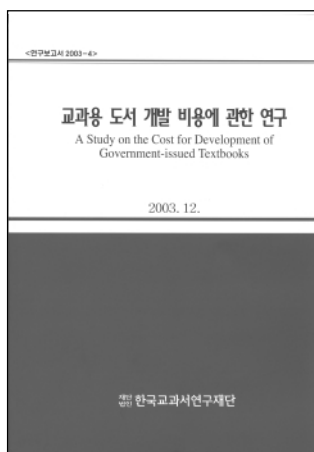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교과서 및 교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전시할 것입니다. 또, 미래 교과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과서 및 교육 관련 주제의 학술 세미나를 주최하고, 논문집을 발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장 교육이 중시되는 요즘, 전국 초·중·고등 학교 학생들의 살아 있는 교육 현장으로서 교과서 박물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박물관은 풍부한 자료와 현장을 겸비한 교육 박물관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❶ 귀사의 ‘내일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크게 교육 사업과 출판 사업, 인쇄 사업으로 나누어서 전망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습니다. 매순간순간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다음 백년을 내다보는 일인 것입니다. 교과서를 발행하는 일은 그래서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여 우리 2 세들에게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 정보 사회가 도래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종이의 힘을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종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좋은 예입니다. 그러므로 출판 사업, 인쇄 사업 또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이 출범한 브랜드들이 시장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까지 최고의 책만을 고집해 나갈 것입니다. 또, 책에 관한 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평생 교육, 평생 친구로 자람매김할 때까지 쉬지 않고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종합 교육 출판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날 대한교과서를 무한한 사랑과 성원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담 / 허 강(한국교과서연구재단 초빙연구위원)

## 교과용 도서 개발 비용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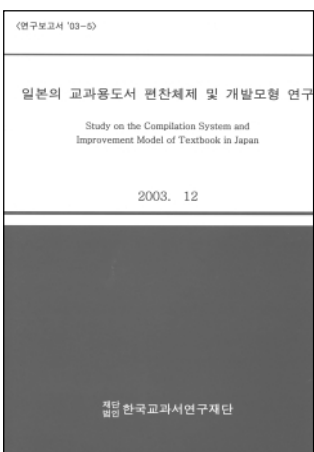
### 〈연구 보고서 2003-4〉

이 연구는 교과용 도서 개발 과정과 개발 비용 구조의 바람직한 모형을 실증 자료에 의거하여 제시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교과용 도서 개발 비용과 일반 도서 제작에 따른 항목별 단가를 조사하여 각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제7차 교육과정의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 개발 사례를 참조하여 교과용 도서의 개발 비용 산출 기준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국정과 검정 및 일반 도서의 항목별 개발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실제의 괴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차 적정 수준의 교과용 도서 개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근님 님(연구 책임자), 김정호 님, 이춘식 님, 박소영 님, 교육인적자원부 정민택 님, (사)한국검정교과서협회 박상돈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일본의 교과용 도서 편찬 체제 및 개발 모형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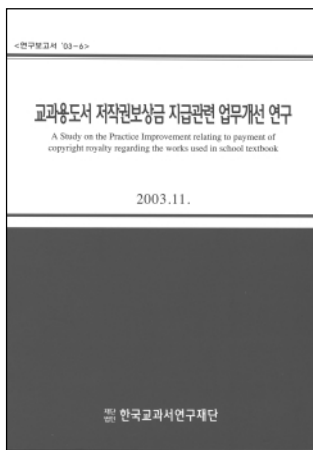
### 〈연구 보고서 2003-5〉

이 연구는 질 높은 교과용 도서의 편찬 모형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우리 나라의 학제와 교육 행정,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등의 면에서 유사점이 가장 많은 일본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어떻게 편찬하고 있으며 그 특징과 장점이 무엇인지 조사,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일본의 교과용 도서 제도의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일본의 각종 교과용 도서의 편찬 절차와 과정을 밝힘으로써 일본 교과용 도서의 기획에서부터 편찬, 발행, 공급, 사용에 이르는 일련의 전 과정에서 발견된 특징과 시사점을 우리 나라 교과용 도서 제도 및 정책과 편찬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교원대학교 함수곤 님이 단독으로 수행한 것임.

# 교과용 도서 저작권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 개선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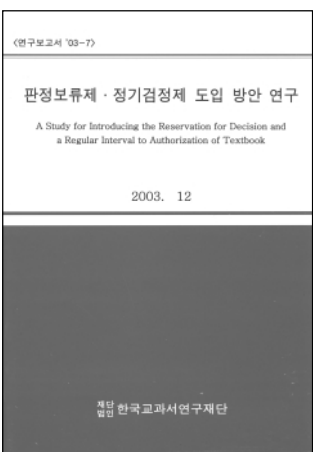
## 〈연구 보고서 2003-6〉

이 연구는 현재 각 저작권 단체를 통한 교과용 도서의 저작권 보상금 지급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과 적지 않은 행정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시효가 소멸하여 남은 미지급 보상금이 국고에 환수되지 않고 교과용 도서 제작자에게 반환되어 일차적으로 교과용 도서 이용자의 부담 감소로 이어지거나 교과서 연구에 투입되어 자라나는 2세가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경희대학교 이상정 님(연구 책임자), 홍익대학교 권대우 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이호흥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판정 보류제·정기 검정제 도입 방안 연구



## 〈연구 보고서 2003-7〉

이 연구는 우리 나라 교과용 도서 검정 제도의 ‘선 판정제’ 및 ‘부정기적 검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으로서 ‘판정 보류제’ 및 ‘정기 검정제’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일본의 교과용 도서 검정 제도 분석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우리 나라 교과용 도서 검정이 지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모색에 좋은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교과용 도서의 질 개선 및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 이 분야의 계속적인 연구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이 연구는 동경한국학교 김용만 님(연구 책임자), 한국교원대학교 함수곤 님,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허 강 님, 동경한국학교 이훈우 님, 일본 상지대학교 홍미리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값진 선물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주최 - 제2회 교과서 관련 수필 작품 공모 초등부 금상 수상

■ 글 / 김나영 (부산 해강초등학교 5학년)

윙 윙 소리만으로도 사람들을 파랗게 떨게 할 정도로 매서운 늦겨울 바람이 불던 여덟 살 되던 해, 나는 유치원 생활을 마쳤다.

그리고 무심한 표정으로 오고가는 나를 맞곤 하던 마른 나뭇가지에 젖니가 빠진 후, 새 이가 올라오는 꼭 그 모습으로 싹들이 빼죽빼죽 고개를 내밀던 2000년 3월 4일의 역사적인 날은 내 계로 찾아왔다.

설레는 마음에 밤 사이 몇 번이나 깨곤 해서 잠을 설쳤지만 웬지 초롱초롱 더 맑아지는 눈을 말뚱말뚱 거리면서, 꿈을 꿀 때마다 항상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세일러 문의 그림이 그려진 분홍색 가방을 메고 초등 학교의 교문을 들어섰고, 나의 초등 학교 생활은 시작되었다.

아마도 이를 정도가 지났을까? 선생님께서 나누어 주신 교과서를 받아 든 나는 교과서의 겉표지 그림들이 유아 시절부터 즐겨 읽던 동화책들과 너무도 닮아,

“와, 귀엽다! 동화책이랑 똑같애. 정말 똑같다.”

다소 민망스러울 정도로 호들갑을 떨어 댔다.

또, 내 버릇 중의 하나인 새 책을 갖게 되면 행복에 겨워 책갈피들을 또르르 넘기며 냄새를 맡는 행동을 그 날도 어김없이 하게 되었다.

눈을 감고 코를 벌름거리며 하얀 종이 방석 위에 우아하게 앉아 제 각각 뿜어 내는 아릿한 향기에 취해 있을 때,

“이게, 뭐꼬? 초등 학교 책이 와 이래 씨씨하노? 나 이딴 거 다 할 줄 안데이…….”

여기서 수근, 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들에 나는 눈을 뜨고 말았다.

귀를 쫓긋 세우고, 까만 눈동자를 깜빡깜빡 거리면서 친구들이 하는 행동, 말을 안 보는 듯, 듣지 않는 듯 하면서 듣고 본 결과 친구들은 나를 단숨에 기죽게 만들었다.

정말 맞는 말이였다.

친구들은 개신 장군과 같은 표정을 지으며, 수학 익힘책 문제들을 단숨에 해낼 뿐 아니라 아예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꿰뚫고 있는 듯한 여유로움을 부렸다.

그것은 순식간에 앞으로 있을 나의 초등 학교 생활, 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걷어 가 버렸다.

어머니께서 읽어 주시는 책을 듣거나 동화책을 읽기만 하고, 간단한 셈 정도만 한 후, 입학 했던 나는 그 날부터 1학기 내내 온몸의 털을 곤두 세우고, 땀을 쫄쫄 흘리는 긴장하는 버릇

과 싸워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학 시간에 평가 시험을 쳤다.

내가 고개를 아예 시험지에 파묻다시피 한 채로 끄끅거리면서 종이 칠 때까지 해매고서야 겨우 풀 후 뿌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 때였다.

“재, 바보 아니야?, 재 바보일까?, 뭐 저런 걸 가지고 끄끅거리려?”

하는 표정으로 친구들은 나를 뵈히,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왼쪽에서 셋째에 있는 것은 무엇이며, 오른쪽에서 여섯째의 것은 무엇일까?’

하는 바나나를 비롯한 과일들을 일렬로 주욱 늘어 놓은 문제였던 것 같다.

내가 쉽게 답을 적을 수 없었던 까닭은 첫째, 나는 그 때까지만 해도 좌우 구분을 잘 하지 못했고, 둘째는 여섯째의 과일이 배인지 망고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셋째는 100 점을 맞아 야겠다라는 생각에 너무 긴장해서 숫자와 ‘번째’ 부분에서 같을까?, 다를까?를 놓고 갈등을 느낀 탓이다.

결국, 그 문제를 비롯한 몇 문제를 더 틀렸으며 친구들이 날아갈 듯이 가볍게 웃어 대는 웃음은 나를 공중으로 붕붕 뜨게 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친구들은 어느 사이인가 달걀귀신으로 변해서 ‘히히히히’거리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내 눈에는 이슬들이 방울방울 맺히기 시작했다.

‘울면 안 돼, 울면 더 부끄러워져.’라고 생각하면서 꼭 참으려고 입술을 꼬옥 깨물었지만 온몸에 있는 물이란 물은 죄다 눈으로 몰려 왔는지 눈에서는 눈물이 여름날 장맛비처럼 주룩주룩 흘렀다.

조금이라도 창피함을 줄여 볼 마음에서 엎드렸지만 한 번 쏟아진 눈물은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흘러 펼쳐져 있던 수학 익힘책을 적셨다.

웬만해선 잘 울지 않는 나는 어쩌면 그 날, 내 소녀 시절 동안 흘릴 수도 있는 눈물 모두를 흘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이튿날부터 수학 익힘책은 물론이고 국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모든 과목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데 참 이상했다. 열심히 공부했건만 시간이 한참 지난 후면 까맣게 잊어 버리고, 다시 공부해도 틀리는 문제는 한두 개씩 나오곤 했다.

겨우 초등 학교에 갓 입학한 소녀가 만만하지 않은 그 까닭을 찾아 내기란 모래밭에서 동전 찾는 것보다 어려웠다.

그래서 늘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꽤 많은 날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동안 내가 로봇처럼 열심히 외우고 풀었을 뿐, 각각의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력을 위한 탐구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면 치료가 쉽다고 했던가? 아무튼 까닭을 안 후부터는 주변에 놓여 있는 모든 물체를 원리 탐구를 위한 도구로 삼아 각 교과목의 원리를 탐구하기로 작정했다.

그렇지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원리를 탐구할 것인가?라는 것조차도 너무나 막연했었다.

---

그런데 교과서는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즉, ‘왜 그럴까요?, 까  
답을 말해 봅시다. 생활 속에서 알아보기, …….’

그랬다. 나는 교과목이든 생활 속에서든 ‘왜 그럴까?’란 물음을 거의 하루 종일 달고 다  
녔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되고 활용될 수 있을 때까지 어머니, 선생님은 물론이고 사촌  
언니, 사촌 오빠, 인터넷, 책을 동원해서 탐구하며 이러한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열심히 노력  
했다.

그래서인지 2학년이 지나고, 3학년이 되면서부터 어떤 과목, 어떠한 응용 문제들에 부딪  
혀도 머릿속에 자리잡은 생각의 문이 도르르 열려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되돌아보면, 교과서 학습 방법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해 주었다고 조목조목 말할  
순 없지만 적어도 고기를 잡아서 오븐에 넣고 노릇노릇 구워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길러 준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어쩌면 입력된 프로그램 외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컴퓨터나 기계를 닮은 학생이 될  
뻔도 했을 텐데…….

그런 것 같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먹고 소화를 못 시킨다면 아무 소용이 없  
듯이 좋은 교재가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학생의 자세, 방법이 어떤가에 따라서 보물을 선물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나 다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보물보다 몇 배 더 값진 생각하는 힘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연

# 배추의 마음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주최 - 제2회 교과서 관련 수필 작품 공모 중등부 금상 수상

■ 글 / 류승경 (용인 문정중학교 3학년)

3학년 국어 교과서 1 단원은 ‘시의 표현’이다. 나는 교과서의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시를 읽을 때가 가장 즐겁다. 그 짧은 몇 마디의 시어 속에 묻어 나오는 빠있는 말, 삶의 희로애락,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몸소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인의 정서와 생각을 알고, 나아가 나의 생각은 어떤지, 또 시인과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1 단원 ‘시의 표현’에서는 남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깨끗한 이별 또는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을 노래한 ‘낙화’, 생명의 소중함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강조한 ‘배추의 마음’, 그리고 비 온 뒤 독방길의 아름다운 정경을 그린 현대 시조 ‘독방길’ 등 총 8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나에게 가장 마음에 와 닿고 좋아하게 된 시는 이형기의 ‘낙화’이다. 이별의 슬픔과 영혼의 성숙으로 승화된 사랑을 역설적인 표현 방법으로 아름답게 노래하여 더욱 애절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인용하고자 하는 시는 ‘배추의 마음’이다.

늦가을 배추 포기 묶어 주며 보니  
그래도 튼실하게 자라 속이 꽤 찼다.  
-혹시 배추벌레 한 마리  
이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꼭 동여매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이나  
배추벌레에게 반 넘서 먹히고도  
속은 점점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는  
배추의 마음이 뭐가 다를까?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 보다.

<배추의 마음> 부분


이 시는 배추와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마음의 교류를 얘기한다. 생명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배추를 기르는 농부가 자연에 동화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농약 없이, 욕심 없이 배추를 기르는 농부의 마음, 욕심을 버리고 성장하는 배추의 희생이 정말로 예쁘게 표현된 시 같다. 배추를 키우는 사람은 배추 포기를 묶어 주며 ‘혹시 배추벌레 한 마리 이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며 꼭 동여매지 못한다. 또, 시 속의 배추는 농부의 그런 배려심을



알기라도 한 듯이 ‘배추벌레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 속은 점점 순결한 것으로 차오르는’ 생명력을 보인다. 생명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숭고한 자기 희생을 느낄 수 있어 이 시를 다 읽고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사색에 잠겼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남을 배려하고 돕는 사람이 많다. 평생 동안 김밥 장사로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할머니, 빈민국에서 자원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소리 소문 없이 몇 년 기간 달동네에 쌀을 날라다 준 아저씨, 부모 없는 아이들을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젊은 선생님들, 그리고 자신도 장애가 있으면서 다른 장애우들을 돕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작게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ARS 번호를 눌러 작은 정성을 보내는 사람들도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모습만 볼 수 있지는 않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퇴근 시간이 되면 터질 듯 사람으로 미어지는 지하철 안에서 바로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지하철 문이 열리면 모두 제 각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요즘 세상. 나도 내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된다. 길가에 점힌 상자를 빼곡이 쌓은 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을 선뜻 도와 드리지 않은 내 모습을 반성한다. 백화점 앞에서 불구의 몸으로 힘겹게 찬송가를 부르며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나? 그리고 땀별이나 빗속에서 채소와 과일을 파는 할머니들을 그냥 지나치는 내 모습, 피곤한 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자는 척을 한 내 모습이 계속 떠올라 너무나 부끄러웠다.

하루 24시간 동안 나는 과연 몇 시간, 몇 분 동안 남을 위해 시간을 투자할까? 너무 앞만 보고 빠르게 달려온 것은 아닐까? 내가 남에게 배려하거나 도운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니 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배추의 마음’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나 자신을 반성해보게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1학년 때 학교 봉사 시간 때문에 친구들과 노인정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걸레를 빨아서 방방마다 닦고, 쓸고,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런데 청소가 다 끝나고 나니 할머니들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시며 참외랑 배를 깎아 주셨다. 진심이 담긴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봉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분은 괜찮다고 말씀드려도 기어이 천 원짜리 지폐 몇 장과 있는 동전을 모두 털어서 우리 손에 직접 쥐어 주셨다.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인사를 드린 후에 나오면서 조용히 부엌 정수기 위에 돈을 놔 두고 나오며 작은 배려가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 감동을 받았었다. 남을 잠시 잠깐 배려하면 마음의 풍요가 다가온다는 진리를 깨달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노인정과 고아원을 찾기로 다짐했다. 남을 돕고 배려하며 또 거기서 얻는 진정한 행복과 보람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기 위해서 난 사랑을 실천할 것이다. ‘순결한 것으로 차오르는 배추의 마음’처럼 난 그렇게 순수하고 맑게 세상을 살 것이다. 이 세상은 아직도 가치 있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준 ‘배추의 마음’. 이 시를 가슴 속에 깊게 새기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 

# 교과서만 봤어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주최 - 제2회 교과서 관련 수필 작품 공모 고등부 금상 수상

■ 글 / 이은경 (울산 함월고등학교 1학년)

초 등 학교에 입학할 무렵, 나는 내 두 손에 꼭 쥐어진 교과서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이제 나도 어엿한 학생이 되었다는 뿌듯함에, 나를 항상 바보라고 놀리는 언니에게 뭔가를 보여 줄 수 있을 거란 자신감에, 뱃속의 동생에게만 온 신경을 쓰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그래서 나는 교과서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나와 교과서와의 인연, 어찌 보면 우리의 인연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기막힌 운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나는 그 운명에 감사한다. 교과서, 그건 내게 있어 삶의 튼튼한 디딤돌이자,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내가 교과서의 고마움을 깨닫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였다. 처음으로 치는 중간 고사를 앞둔 어느 날, 나는 문득 초조함을 느꼈다. 주위 친구들의 공부하는 모습 때문이었다. 밤 12시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건 기본이고, 밤을 새워서 자습을 하는 것도 불사한다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며, 난 충격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초등 학교 때부터 입시 학원이다, 과외다 하면서 바쁘게 쫓아다닐 때에도 나는 집에만 종일 머물러 있었으니까…….

나는 여태껏 중간 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내가 해 왔던 공부 방법을 잠시 돌아보았다. 어라? 생각해 보니 내가 한 거라고는 딱 하나뿐이었다. 교과서 읽기, 고작 그거 하나였다. 순간 나는 창피함에 몸둘 바를 몰랐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학원이라곤 단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고, 과외라곤 전혀 받아 보지 못한 나에게 공부하는 방법은 따로 없었다. 누가 알려 주지도 않았고, 달리 알아볼 길도 없었으니까. 그리하여 나는 결심했다. 오직 교과서에만 충실하자고! 다른 친구들이 깔보고 얹잡아봐도 신경쓰지 말자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해 오던 대로 밀고 나가자고!

드디어 시험 날이 밝았다. 모두들 학원에서 나누어 준 족집게 인쇄물을 보느라, 기출 문제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곳곳하게 교과서만 읽고 또 읽었다. 읽으면서 요약도 하고, 이해도 하고, 필요한 건 외우기도 해 가면서……。 그리고는 속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외쳤다.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학원도 안 다닌다고 무시했던 걸 후회하게 해 주마! 반드시 이기고 말겠노라!’

그리고 며칠 뒤 결과가 나왔다. 내 굳은 의지와 결심이 하늘에 닿기라도 한 걸까? 내가 아

등바등 안간힘을 다 하는 게 안쓰러워 보이더라도 한 걸까? 나는 정말 뜻밖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나조차도 믿지 못할 성적, 친구들도 모두 의아해 하던 성적, 선생님들까지도 나를 주목하게 만든 성적……. 내가, 이 평범한 내가 해낸 것이었다. 반에서 1등, 전교에서 2등을 차지하게 되다니! 떨 듯이 기뻐고, 눈물이 날만큼 감격스러웠다. 그 동안의 불안함이 한 방에 날아갔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난 정말 교과서에만 목숨을 걸었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강조하시던 ‘교과서가 기본이다.’

를 되새기면서, 그렇게 공부했다. 우리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망한다.’

를 되뇌이면서, 큰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다. 단지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고, 최선을 다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 지가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는 이런 엄청난 결과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다. 기대도 하지 않고 얻은 결과였기에 그 기쁨은 배가 되어 돌아왔다.

그 즉시, 소식을 들은 많은 친구들이 달려와서 내게 물었다.

“어떻게 공부했어?”

“대체 어느 학원 다니는데?”

“무슨 과외 받은 거야?”

등등 설세없이 쏟아지는 질문들에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나는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일일이 대답을 해 주었다.

“그냥 교과서만 봤어.”

라는 한결같은 대답을. 그러면 친구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에이, 거짓말하지 말고 같이 좀 알아.”

하면서, 다시 방법을 물어 왔다. 그래 봤자 내가 해 줄 말은 한 가지뿐인데, 진실이 그러하니까 그 말밖에 못해 줄 뿐인데……。 내가 아무리 진실임을 강조해도 소용없었다.

그 때, 갑자기, 매년 수능 시험이 끝나면 만점을 받은 언니, 오빠들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떠올랐다. 공부 잘하는 언니, 오빠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들 하지 않는가!

“저는 교과서만 봤어요.”

“교과서에서 다 나오던 걸요.”

나는 그걸 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어쩔 그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잘 할 수 있는 건지! 양심이 찢리지도 않는 건지! 나는 항상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곤 했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을 하고 보니, 전적으로 공감이가게 되었다. 모든 공부의 기본은 교과서라는 걸, 그래서 교과서만 열심히 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걸 몸소 깨달았으니까. 그 후로도 나는 중학교 3학년 내내, 교과서하고만 공부를 같이 했다. 그 덕분에 내 성적은 꾸준히 유지될 수 있었다. 첫 시험 결과가 단 한 번의 기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한 셈이다. 나는 내 성적의 밑바탕을 깔아준 교과서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교과서! 그 속에는 오랜 역사가 담겨 있고, 그 역사 속에서 숨쉬며 살았던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담겨 있고, 그 방법을 터득해서

---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꿈과 희망이 담겨 있다.

교과서! 그것은 나에게 지식을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다 주었고, 내가 힘들거나 지칠 때에도 변함 없이 내 곁에 있어 주었으며, 내가 소홀히 대하거나 관심 갖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그 자리에 있어 준 유일한 친구이자 스승이었다.

한 마디로 교과서는 내 삶의 버팀목이었다. 앞으로도 나는 교과서를 벗삼아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상관 없이, 계속 교과서를 아끼고 사랑해 줄 것이다. 나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 아직도 갈 길은 많이 남았고, 할 일은 산더미만큼 쌓여 있다. 그러나 나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내 곁에 항상 교과서가 있어 줄 테니까, 교과서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없을 테니까. 나는 굳게 믿는다. 내 결정에 후회할 리 없을 것을, 교과서와 함께 공부한 시간을 헛되이 생각할 리 없을 것을. 그리고 나는 상상한다. 내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을…….

“이은경 학생, 어떻게 수능에서 이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뭘니까?”

그러면 나는 생긋 웃으며 말하겠지.

“다른 건 없고, 그냥 교과서만 봤어요. 특별한 게 또 있나요?” 

# 정제(精製)된 알맹이를 먹으며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주최 - 제2회 교과서 관련 수필 작품 공모 일반부 금상 수상

■ 글 / 조남선 (대구 성광고등학교 교사)

내가 초등 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머니는 나랑 똑같이 초등 학교 3학년이셨다. 아니, 동생과 같은 1학년이기도 하셨고 언니랑 같은 5학년이기도 하셨다. 어머니는 늘 우리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셨다.

학교에서 돌아온 우리 팔 남매는 어머니가 뿔어 주시는 펌프 물에 하루의 때를 씻고 다리 부러진 들마루[평상]에 앉아 그 날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를 꺼내 줄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누구도 뭐라 군소리를 붙일 필요도 없는 우리의 日常(일상)이었다.

초등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어머니는 그 날 내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집에 있는 엄마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언니들도 늘 하던 일이었기에 내게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들마루에 배를 깔고 두 발을 휘저으며 국어책도, 도덕책도, 장단 맞춰 읽어 내렸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과 아우는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침내 가을이 왔습니다. 형과 아우는 거둬들인 벼단을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형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우는 새로 살림을 차렸으니 아무래도 양식이 많이 들 거야.’

형은 자기의 벼단을 가져다가 아우의 벼단 위에 몰래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 밤 아우도 형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형님은 식구가 많으니까 양식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벼단을 형의 벼단 위에 쌓아 두었습니다.

신나게 국어책을 읽다가 팔꿈치가 아파오면 하늘을 향해 벌떡 누워, 하얀 박이 조롱조롱 열린 박입사귀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햇살에 눈을 찡그리며 음악 시간에 배운 노래를 불러 보기도 했다.

내 고향 가고 싶다야. ~그리운 언덕.

그럴 때면 어머니는 우물가에서 푸성귀를 다듬으며, 곳간에 가서 밀반찬거리를 꺼내 오시면서, 우물가에서 우리가 꺼내 놓은 그 많은 도시락을 부시면서도 귀는 우리의 교과서 읽는 소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이따금 한 마디씩 말을 건네 주셨다.

“형님은 동생 낚가리에, 동생은 형님 낚가리에 벼단을 몰래 옮겨뒀단 말이지? 참 사이좋은 형제구나!”

혼잣말처럼 하시지만 사실은 두 살 터울의 언니, 동생이랑 늘 다투길 잘 하는 내게 새겨 들으라는 말씀이 분명했다. 그럴 때면 의좋은 형제를 부러워하는 어머니의 그 한 말씀이 내 어린 마음을 한없이 부끄럽게 했었다.

초등 학교도 못 나온 어머니는 참 지혜로우셨다. 어쩌면 우리 팔 남매가 집에 와서 읊어 대는 그 교과서를, 가마솥 뚜껑 너머로 뽀얀 저녁밥물이 흘러 넘칠 때까지 차례대로 들으셨으니 우리와 함께 그 많은 교과서 내용을 여러 해 공부해 오신 셈이다.

신기하게도 어머니는 우리가 배우는 책에 나오는 동요를 다 따라 불러 내셨고 전래 동화와 위인 전기의 내용도 다 알고 계셨다. 모기 향 연기가 솔솔 나는 마루에 엎드려 엄마가 불러 주시는 받아쓰기 문제는 우리 선생님이 불러 주시는 문제와 똑같았다. 외나무다리를 마주 건너 오다 마주친 염소가 뿔을 맞대고 서로 먼저 건너겠다고 싸우다 물에 빠지는 이야기를 읽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선생님 말씀과 똑같은 ‘양보하는 마음’에 관한 것이었다.

산수 시간에 내가 덧셈을 배우는지, 곱셈을 배우는지 훤히 알고 계신 어머니는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사탕 한 줌에서도 그 모든 걸 녹여 가르치셨다.

“요렇게 세 개씩 두 줌이면…….”

교과서가 생활 속에서 어머니를 통해 살아났다. 어려운 시골 살림에 변변한 책 한 권 사 주기 어려운 시절, 교과서는 어린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값진 삶의 지침을 제시해 주기에 충분했다.

어쩌면 그 시절 우리는 교과서 속에서,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인간의 기본 도리와 생활의 규범을 배웠던 것 같다. ‘은혜 갠 까치’를 읽으면서 ‘報恩(보은)’을, ‘이순신 전기’를 읽으면서 ‘진정한 용기와 나라 사랑’을, ‘의좋은 형제’를 읽으면서 ‘우애’를, ‘양치기 소년’을 읽으며 ‘거짓되지 않은 마음’을 배웠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요즘 아이들은 교과서를 ‘재미 없는 책, 시험을 위해 귀찮지만 억지로 봐야 하는 책’ 정도로 여긴다. 얼마든지 재미있고 자극적인 책들이 혼한 세상이다 보니 그런 모양이다.

하지만 돌려 생각해 보면, 범람하는 정보와 걸리지 않은 지식 속에 노출된 요즘 아이들에게 교과서는 가장 모범적이며 바람직한 지식과 정보, 가르침을 주는 책이라 생각한다. 수준에 맞게 걸러져 정제된 알맹이. 그 알맹이를 먹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선아홉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그리운 어머니가 꼭꼭 씹어 입에 넣어 주시던 따뜻한 사랑을 먹고 우리 팔 남매가 건강하게 자랐듯이 교과서 제목처럼 ‘즐거운’ 그리고 ‘슬기로운’, ‘바른’ 삶을 영위하게 되리라. 정제된 알맹이를 먹고,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



## 심사를 마치고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공모한 제 2회 교과서 관련 수필을 심사하는 동안 교과서와 관련된 추억을 함께 더듬어 나가는 동안만큼은 이웃의 친구와 대화하는 기분으로 내내 정겹고 즐거운 마음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자 한다. 또, 교과서와 관련된 미담, 추억, 소감 등의 여러 이야기를 읽으면서 ‘교과서’라는 창을 통해 세대 간의 차이를 바라볼 수 있어서 더욱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

심사는 교육계 및 언론계의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하여 3차례에 걸쳐 밀도 높게 진행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응모 작품 수가 조금 줄어서 아쉬웠지만 작품의 수준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것이 심사 위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내년에는 본 연구재단에서도 수필 공모에 많은 교육 가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이 번에 응모하신 교육 가족 모두가 행사의 취지를 이웃들에게 입 소문을 통해 널리 알려 주시기를 지면을 통해서나마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이다.

응모 작품을 참가 대상별로 살펴 본 소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부 작품은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아 선생님께 야단맞기가 두려워 친구의 책을 빌렸다가 들켜서 꾸중 받는 어린이의 모습이 인상깊었다. 또, 교과서를 친구들에게 잘 빌려 주지 않다가 본인이 친구에게 교과서를 빌려야 하는 입장이 되어서 자신의 못난 모습을 반성하는 기특한 모습도 보여 주고 있다.

중등부 작품에서는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탓인지 교과서 내용을 통해 인성 교육, 독서 교육에 대해 나름대로의 발전 방법을 모색해 내고 있으며, 장애를 지닌 동생에 대한 친구들의 편견을 안타까워하는 도중에 교과서에 실린 비슷한 처지를 읽으면서 친구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거두는 착한 마음도 잘 드러나 있었다. 친구의 가정 환경을 알고 나서야 낙서로 얼룩진 친구의 교과서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고백까지 다양한 사연들로 채워져 있었다.

고등부 작품에서는 교과서 공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내용이 단연 돋보였다. 성적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예비 수험생의 진솔한 모습을 보는 듯해 안타깝기조차 했다. 교과서에 나오는 원리 중심으로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내용은 사교육에 찌든

청소년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본다.

뭐니뭐니해도 수필 공모의 가장 뛰어난 분야는 일반부 작품이 아닐까 싶다. 형님, 누나들이 공부하던 책을 물려받았으나 닳고 헤어져서 선생님이 읽으라는 부분을 읽을 수 없었다는 슬픈 사연과 이런 어려움을 이겨 내고 교사로 성장한 이야기, 장대비가 억수같이 퍼붓자 교과서가 젖지 않게 하려고 겹옷, 윗옷, 마침내는 아랫도리까지 벗어 책가방 속의 교과서를 둘둘 말아 감고 뛰기 시작하는 모습은 읽는 이로 하여금 포복절도하게 만든다. 하지만 웃어 넘기며 버리기에는 너무나 슬픈 우리 이웃들의 자화상을 한 편의 드라마로 구경하는 듯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이 밖에도 제자 사랑을 실천하는 도중에 부부로 뗏어진 산골 처녀 선생님,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보다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려 애쓰는 선생님, 매우 맑고 긍정적인 교육자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후배 교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 줄 것 같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글은 바로 어머니의 지혜를 확인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교과서 내용 이야말로 가장 정제된 알맹이라고 믿고 있는 필자가 어머니 앞에서 교과서를 줄줄 읽어 나가도록 한 다음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이 읽은 내용을 모두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자연스럽게 자녀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데 사용하는 등 교과서 내용을 자녀들에게 환류(還流)시키는 지혜를 우리 모두는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수필 공모를 통해서 부모님과 자녀가 자기 이야기를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은 매우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한국 교과서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수필 공모 행사가 앞으로도 부모님 세대에게는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는 기회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교과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과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제 2 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심사위원회



# NEWS

## 연구재단 소식

### ✳ 사무실 이전

○...우리 연구재단은 지난 6월 21일 양천구 신정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일반인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새롭게 단장하여 이전하였다.

-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신정 1 동 1018-2 세원 빌딩 4층
- 연락처 : (02) 2651-1950

### ✳ 임원 등정

- ...함수곤, 김성동, 류연수 이사 퇴임
- 우리 연구재단의 함수곤 이사(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성동 이사(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류연수 이사(전 교육인적자원부 장학관)는 2004년 8월 29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퇴임하였다.
- ...정강정, 곽병선, 김만곤 이사 취임
- 우리 연구재단은 2004년 8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정강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씨, 곽병선(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씨, 김만곤(용인성북초등학교 교장) 씨를 이사에 선출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2004년 8월 30일자로 취임하였다.
- ...박삼서 감사 취임
- 정부의 인사 발령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 박삼서 과장께서 우리 연구재단 당연직 감사로 2004년 9월 1일 취임하였다.

### ✳ 이사회 개최

○...우리 연구재단은 2004년 8월 27일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2004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2004년도 추가 경정 예산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정관 중 개정 정관
- 임원 선임

### ✳ 2004년도 2학기 교과용 도서 수증

○...우리 연구재단은 각급 학교에서 현재 사용 중인 2학기 교과용 도서를 발행사로부터 162권을 기증 받아 「교과서정보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용 도서 기증에 협조하여 주신 대한교과서(주), (주)교학사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제2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시상

○...우리 연구재단은 제2회 교과서 관련 수필을 공모, 2004년 10월 4일 수상작을 선정, 발표하고, 11월 19일 오후 2시 재단 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갖고 금상 수상자에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상장과 부상을, 은상 이하 수상자에게는 본 재단 이사장의 상장과 부상을 각각 수여하였다.

금번 수필 공모 행사의 참가자와 협조해 주신 관계 기관 및 발행사에 감사드립니다.

●시상 내역● (단위 : 편)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초등부	1(20)	2(10)	3(5)	5(2)
중등부	1(30)	2(20)	3(10)	11(2)
고등부	1(30)	2(20)	3(10)	10(2)
일반부	1(50)	2(30)	3(20)	5(2)

※ ( ) 안은 1인당 시상 금액(만 원)

✳ 「교과서 출판 교실」 운영

○...우리 연구재단은 교과서 발행사 직원의 자질 향상과 교과서 출판에 관한 지식 및 기법 등을 습득시켜 우리 나라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교과서 출판 교실을 운영하였다. 출판 교실에 참가해 주신 발행사 및 강의를 맡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 시기 : 10월 12일~14일  
11월 16일~18일
- 운영 단위 : 3 일 (21 시간)
- 장소 : 재단 강의실

✳ 교과서 발행사 편집인 산업 시설 답사 지원

○...우리 연구재단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협조로 교과서 편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편집인 31 명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1박 2일) 월성원자력발전소 등 산업 시설 답사를 주관하여 교과서 편찬 자료 수집 활동을 지원하였다.

알림 다

# 고(古) 교과용 도서 수집

우리 연구재단은 국내 유일의 교과서 전문 연구 기관으로

고(古) 교과용 도서를 수집합니다.

기증해 주신 자료는 『교과서정보관』에 비치하여 교과서 연구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역사적 자료로 소중히 보존하겠습니다.

- 대 상 : 전 교과용 도서(교과서, 인정 교과서, 지도서, 참고서, CD, 테이프 등)
- 수 량 : 제한 없음.
- 기 간 : 수시 접수
- 보 상 : 기증자에게는 '기증서' 교부와 아울러 명단을 영구히 보존하고, 실비 보상도 할 수 있음.
- 연락처 : (우) 158-861

서울 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18-2 세원 빌딩 4층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담당자 앞

Tel : (02) 2651-1950(대), Fax : (02) 2651-1954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초·중·고등 학교 학생이 전학이나 교과서 분실 등의 사유로 교과서를 개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과서 발행사 홈 페이지, 발행사 직매장, 개별 지정 판매 서점, 지역별 검정 교과서 공급인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개별 구입을 할 때에는 교과명과 출판사 및 저자(지은이)를 정확히 알아야 구입이 편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 교과서 발행사 연락처

구 분	발행사명	전화 번호	홈 페이지	발행 도서 (각 발행사 홈 페이지 참조)
검정 교과서	(사)한국검정교과서협회	(02) 3663-5409~12	www.ktbook.com	* 중·고등 학교 검정 도서 전과목
국정 교과서	대한교과서(주)	(041) 861-3183 (ARS)	www.daehane.com	〈제 6 차 교육과정〉 중·고등 학교 국정 도서 〈제 7 차 교육과정〉 * 초등 학교 전과목 * 중학교 : 국어, 생활 국어(1, 2 학년), 국사, 도덕 1 * 고등 학교 : 공업계, 수산·해운계 전문 교과
	(주) 교학사	(02) 701-6371	www.kyohak.co.kr	* 중학교 : 국어, 생활 국어(3 학년) * 고등 학교 : 실업계 농업 및 상업계 전문 교과
	(주) 두산동아	(02) 3398-2700	www.dong-a.com	* 고등 학교 : 국어, 문법, 국사 및 외국어계 전문 교과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02) 865-8225	www.eduaplus.com	* 중 학 교 : 도덕 2, 3 학년 * 고등 학교 : 해양 과학, 관광 영어 및 가사 실업계 전문 교과
	(주) 지학사	(02) 330-5302	www.jihak.co.kr	* 고등 학교 : 도덕, 시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생활과 과학, 과학계 전문 교과
	(주) 천재교육	(02) 3282-1773	www.chunjae.co.kr	* 고등 학교 : 확률과 통계, 이산 수학, 체육계 전문 교과
	향우산업(주)	(02) 790-5947		* 고등 학교 : 교련

## 발행사 직매장

구 분	위 치	전화 번호
(사)한국검정교과서협회	서울 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77-2 선일빌딩 2층 (6호선 망원역 부근)	(02) 3663-4292
대한교과서(주)	서울 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1-10 (본사 1층) (7호선 논현역 부근)	(02) 541-8247

※ 기타 개별 지정 판매 서점, 지역별 검정 교과서 공급인 판매소는 **교육인적자원부 홈 페이지(www.moe.go.kr)** 참고

『교과서연구』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의 성과·교육과정·교육 자료 등  
교육 현장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연구』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 교과서 전문 연구지

# 『교과서연구』

### ◆ 원고 내용

- 교과서 및 교육과정 관련 연구와 교육 현장의 교과 운영 현황과 교과서 활용 방안 등
- 교육 현장과 관련된 교수·학습의 특색 있는 내용 등
- 『교과서연구』를 읽고 느낀 점이나 새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등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수필·시·만화 등

### ◆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A4 용지 10포인트 4매 기준)

### ◆ 원고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 보내실 곳 : (우)158-861

서울 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18-2 세원 빌딩 4층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연구』 편집자 앞  
(E-mail 주소 : editor@ktrf.re.kr)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651-1950으로 문의

# 연구재단 후원 기금 출연 안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민법 제 32 조 및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의거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과서 제도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등 교과서와 관련한 종합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재단 운영을 위한 후원 기금(출연금)을 모금하오니 출연에 많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교과서 연구 재 단

이 사 장 한 병 천

❖ 출연 대상 : 개인, 기관, 법인 및 단체

❖ 출연금 접수 : 수시

❖ 출연금의 종류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 출연 참여 방법

○ 현금은 연구재단 예금 계좌로 직접 입금

— 계좌 번호 : (농협) 003-01-190747

— 예 금 주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소득 공제용 영수증 발급

※ 출연금은 소득세법 제 52 조 제 6 항에 의거 종합 소득 금액의 100분의 10의 한도 내에서 기부금 특별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은 출연 방법 별도 안내

○ 분할 또는 별도의 납입 기한을 정하여 출연 가능

❖ 출연금 용도

○ 교과서 관련 조사 연구비

○ 「교과서정보관」 건립비

○ 출연자 지정 용도 등

❖ 기금 출연자에 대한 예우

○ 일정액 이상의 기금을 출연해 주신 분들의 명단은 동판으로 제작하여 영구 보존하고, 정부 포상을 추천하겠습니다.

○ 건물을 출연하신 경우에는 건물의 이름을 출연자의 성명이나 아호 또는 출연자가 원하는 명칭으로 부서하고 건물에 각인하여 보존하겠습니다.

○ 출연해 주신 분의 명단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간행물에 수록하고 간행물의 무상 구독 특전을 제공할 것입니다.

❖ 연락처

○ 기금 출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으로 연락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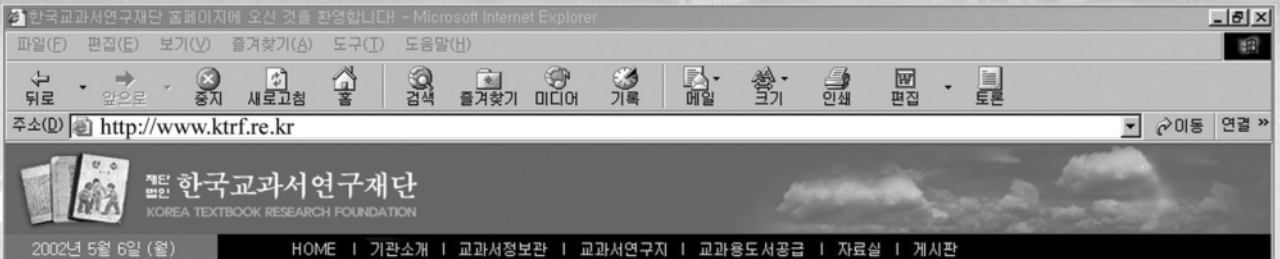
— 주 소 : 서울 특별시 양천구 신정 1 동 1018-2(세원 빌딩 4층)

— 전화 번호 : (02) 2651-1950, e-mail : adm@ktrf.re.kr

## 교과서 정보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부설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 운영 개요

- ☐ 우리 나라 교과서의 수집 및 보존
- ☐ 외국의 교과서 수집 및 보존
- ☐ 교육과정·편수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 교육과정·교과서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 ☐ 교과서 관련 자료의 DB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 교과서 관련 연구 단체 협력 체제 구축
- ☐ 교과서 비교 전시회 개최 등

### 보유 자료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교과용 도서	20,838	5,002	25,840
일반 자료	1,911	—	1,911
계	22,749	5,002	27,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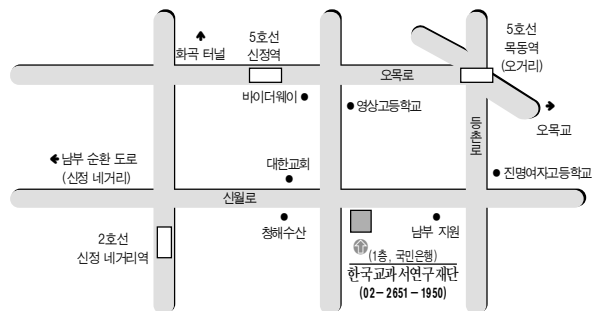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대만 등의 교과용 도서 보유

### 열람 시간

구 분	기 간	시 간
평 일	3~10월	09:00~18:00
	11~2월	09:00~17:00
토요일	1~12월	09:00~13:00

\*공휴일 휴관

### 교통편



- 전철 : 전철 5호선 신정역, 2호선 신정 네거리역 각 3번 출구
- 버스 : 5622, 5712, 602, 603, 640, 5630, 6614 번